

...내리비치

정기 총회 순서	2
6.15남북공동선언 전문	3
10.4선언 전문	4
6.15경기본부 창립선언문	7
6.15경기본부 규약	9
6.15경기본부 체계	14
축사 6.15남측위원회	16
안전 심의	17
①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18
② 2013년 사업평가서 심의의 건	20
③ 2013년 결산안 심의의 건	60
④ 임원 선출의 건	61
⑤ 2014년 사업계획서 심의의 건	62
⑥ 2014년 예산안 심의의 건	70
⑦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채택 건	71
별첨 1. 2013년 홍보위원 칼럼 목록	73
별첨 2. 2013년 홍보위원 칼럼	76

2014년 정기총회 순서

■ 1 부

- 상임대표 인사말
- 6.15남측위원회 축사
- 내빈소개
- 6.15민족통일상 시상식

■ 2 부

- 개회선언
- 성원보고
- 서기 선출
- 안건 및 회순 통과
- 안건 심의
 - 안건 1 :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 안건 2 : 2013년 사업평가서 심의의 건
 - 안건 3 : 2013년 결산안 심의의 건
 - 안건 4 : 임원 선출의 건
 - 안건 5 : 2014년 사업계획서 심의의 건
 - 안건 6 : 2014년 예산안 심의의 건
 - 안건 7 :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채택 건
- 서기록 발표
-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낭독
- 폐회 선언
- 상징의식
- 기념촬영



6.15남북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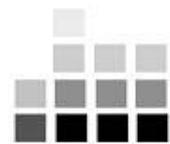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대 중

김 정 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

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

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6.15경기본부 창립선언문

하루빨리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온 겨레의 뜨거운 열망 속에 지난 3월 4일 전민족적인 통일운동기구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6.15 공동위원회)>가 금강산에서 결성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경향각자·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 지향의 의지를 하나의 힘으로 모아낼 튼튼한 조직적 담보를 마련하였고,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앞당겨 그럴 수 있게 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은 광복 60년, 6.15 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이하는 올해를 획기적이며 전환적인 통일국면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역사적인 전민족의 통일선언이다!

우리민족의 의지로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 전환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이하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을 선언한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외세에 의해 반세기 이상을 갈라져 고통 받았던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다시금 강토와 핏줄을 이어내고자 하는 1천만 경기도민의 절절한 통일 열망을 담아 결성되는 일상적인 통일실천 기구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활동의 원칙으로 삼고 이에 동의하는 경기도의 각계, 각층, 정당, 종교, 사회단체, 인사들이 총 망라되어 결성하는 상설적인 통일운동기구이며,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 조직체이다.

광복 60년이자 분단 60년의 지난 세월, 일제강점기 까지 포함하여 한 세기를 우리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왔다.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아야했고, 강대국에 의해 우리민족의 자주권은 유린당해왔으며 민족문화를 핏피우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자주권을 회복하기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해왔으며, 기어이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면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해 내야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염원에 기초하여 탄생한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담보이며, 자주통일의 시간표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존과 평화의 새시대가 열렸으며, 통일운동은 일부가 아닌 전민족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으로 민족의 힘으로 탄생시킨 6.15 남북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단결할 것이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는 분단의 고통이 가장 절절하게 스며있는 지역이다. 그 어떤 도시보다 분단의 장막을 길게 드리우고 있는 지역이며, 분단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가장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는 곳이 또한 경기도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반도에서의 그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강토와 자주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모든 외세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민족 통일만이 우리 조국의 완전한 평화의 정착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기념하고 1천만 경기도민들이 함께 하는 다양하고 대중적인 통일운동,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운동을 일상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이 모든 사업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거족적이며 역사적인 통일대업에 경기도의 제 단체와 인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다.

같은 민족보다 더 큰 동맹은 없으며, 민족만큼 강한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하기에 민족이 갈라져서는 어떠한 번영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이 자주권을 유린하는 외세에 맞서 100년을 싸워온 자주성 드높은 자랑스러운 민족답게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로 총 망라되어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 통일민족으로서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쳐나가자!

전민족이 함께 하는 반전평화공조, 통일에국공조에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가 가장 앞장서 나가자!!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결성 만세!

6.15 남북공동선언 만세!

조국통일 만세!

2005년 4월 29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



6.15경기본부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약칭 6.15경기본부)라 한다.

제2조(목적) 6.15경기본부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조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격) 6.15 경기본부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경기지역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제4조(사업) 6.15경기본부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 한다.

- 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적 실천을 전개한다.
- ②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 ③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상호 존중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 ④ 6.15경기본부는 6.15남측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한다.

제5조(운영원칙)

- ① 6.15 경기본부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소재) 6.15경기본부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7조(구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경기지역의 제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 ① 경기지역 단위의 제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은 시, 군 단위 본부를 회원으로 한다.

제8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①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표결할 권리

- ②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①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 ②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 ③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제10조(탈퇴)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자유로이 그 의사를 표명한 후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11조(구성) 최고의결단위로 상임대표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구장, 집행위원장,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상반기에 진행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표자 1/3이상 발의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나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 ③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 ④ 상임대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 ①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구장 선출에 관한 사항
- ③ 사업 계획 결정과 사업보고 승인에 대한 사항
- ④ 예산과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의

제14조(구성) 상임대표, 운영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구장, 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소집)

-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한다.
- ②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1/3이상 발의 또는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 ③ 운영위원회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 ① 총회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와 수입사항 처리
- ② 가입, 탈퇴, 사고에 관한 사항
- ③ 의무금과 특별 분담금 책정에 관한 사항
- ④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사무처 집행부 인준에 관한 건

- ⑤ 특별위원회, 부설기구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⑥ 고문과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⑦ 예산의 조정과 전용
- ⑧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 ⑨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과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절 지부

제17조(지부의 설치 및 운영)

- ① 6.15경기본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부(시본부)를 둔다.
- ② 지부(시본부)의 위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규로 둔다.

제4절 특별위원회

제18조(구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및 선출)

-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6.15경기본부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5절 부설기구

제20조(부설기구의 설치) 6.15경기본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의 부설기구를 두며, 필요에 따라 법인을 둘 수 있다.

- ① 평화통일 의식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 ② 남북교류협력 사업
- ③ 평화통일 연구 사업
- ④ 그 외 6.15경기본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21조(부설기구장의 직무와 임기 및 선출)

- ① 부설기구의 장은 6.15경기본부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2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 ①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한다.

제6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시군본부 집행책임자와 부문단체의 약간 명으로 한다.

② 부문단체의 약간 명은 부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24조(기능)

- ① 총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 ② 총회와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 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
- ④ 필요시 확대집행위원회 소집, 확대집행위원회는 6.15경기본부 소속단체들의 집행책임자연석회의이다.

제7절 자문기구

제25조(구성) 각계 원로와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한다.

- ①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둔다.
- ② 각계 지도급 인사들로 지도위원을 둔다.

제 4 장 임 원

제26조(임원)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

제27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임대표
 - 상임대표는 경기본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회와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공동대표
 - 지역 본부장(시, 군)과 참가단체 대표로 한다.
- ③ 운영위원
 - 지역본부장(시, 군)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구장 그리고 가입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감사
 - 2인으로 하고 사업과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2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사무 처

제29조 (사무처)

- ① 6.15경기본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 ②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 간부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30조(재정)

- ① 6.15경기본부의 경비는 각종회비, 후원금, 기타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고유목적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⑤ 재정운영을 위한 회계 관련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1조(예산, 결산 및 회계연도)

- ①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 ② 회계연도는 당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 7 장 회칙 개정 및 해산

제32조(회칙개정)

- ① 회칙개정은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 ②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33조(해산)

- ① 6.15경기본부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할 수 있다.
- ② 해산에 관한 결의에서는 위임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34조(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6.15경기본부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산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정(2005. 4. 29)	1차 개정(2006.3.16)
2차 개정(2007.3.27)	3차 개정(2009.1.22)
4차 개정(2011.2.2.)	5차 개정(2013.2.7)



6.15경기본부 체계

■ 고 문 (17명)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강성중(전 국회의원)	10	이원영 (전 국회의원)
2	문학진(전 국회의원)	11	이흥기(전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3	민경학(전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12	임병규(전 남양주향토사료관 관장)
4	박우석(전 6.15경기본부 감사)	13	장문하(경기민언련 전 상임대표)
5	백규현(여주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14	정진후(국회의원)
6	석달윤(통일 원로)	15	채수일(한신대 총장)
7	안민석(국회의원)	16	홍희덕(전 국회의원)
8	안재구(통일 원로)	17	효림스님(봉국사 스님)
9	이기우(전 국회의원)		

■ 지도위원 (20명)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고영인 (전 도의원)	11	윤화섭 (도의원)
2	김동균 (변호사)	12	이상성 (도의원)
3	김주삼 (도의원)	13	이재삼 (교육의원)
4	김현삼 (도의원)	14	이천환 (한사랑병원 원장)
5	김용한 (성공회대 교수)	15	임종성 (도의원)
6	박승원 (도의원)	16	정기열 (도의원)
7	송영주 (도의원)	17	조복록 (전 도의원)
8	수산스님 (대승원 주지스님)	18	최창의 (교육의원)
9	안혜영 (도의원)	19	최철환 (교육의원)
10	유미경 (도의원)	20	한옥자 (경기여성단체연합감사)

■ 감사 : 이주현(매원교회 목사), 조지훈(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상임대표 : 윤기석 목사 (수원교회 명예목사)

■ 공동대표 (32명)

번호	공동대표	번호	공동대표
1	상임대표	17	범민련경인연합
2	6.15수원본부	18	전교조경기지부
3	6.15안산본부	19	전농경기도연맹
4	6.15안양본부	20	전국공무원노조경기본부
5	경기여성단체연합	21	전공노교육본부경기지부
6	경기여성연대	22	정의당경기도당
7	경기자주여성연대	23	평통사 경기남부지부
8	경기IT통합네트워크	24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9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25	천도교수원교구
10	경기청년연대	26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11	경기환경운동연합	27	한국노총경기본부
12	기장경기노회통일위원회	28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경기지회
13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부	29	홍사단경기도협의회
14	민주노총경기도본부	30	김상희(경기도의원)
15	민주당경기도당	31	양홍관(생명살림연구소 소장)
16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32	전환식(6.15사과원 대표)
사 고			
1	6.15고양본부	2	경기대련

■ 집행위원회 [10명]

번호	집행위원	번호	집행위원
1	6.15수원본부	6	사무처장
2	6.15안산본부	7	전농경기도연맹
3	6.15안양본부	8	집행위원장
4	경기청년연대	9	통합진보당경기도당
5	민주노총경기본부	10	평통사 경기남부지부



축사. 6.15남측위원회

안녕하십니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복입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의 총회를 축하합니다.

민족의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자는 남북해외의 목소리가 어느 해 보다 힘차게 울려 퍼지는 바로 이 순간, 마치 봄 소식을 먼저 전하는 전령사처럼 6.15경기본부의 연차 총회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작년 한 해는 통일운동에 있어 시련과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한반도 전쟁 위기는 급기야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남북관계 제로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 6.15공동위원회는 ‘개성민족공동행사’를 합의했지만 아쉽게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7.4남북공동성명 기념식’을 비롯하여 ‘8.15민족통일대회’와 ‘10.4민족대회’ 등 공동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역정에 6.15경기본부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두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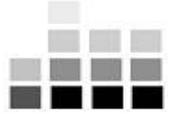
6.15경기본부는 2011년부터 경기도 교육청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평화통일골든벨’ 등 대중적 통일 사업을 판 크게 전개하는 등 6.15남측위 지역본부 중에서 단연 ‘모범’본부입니다.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멸사봉공의 자세로 애쓰신 윤기석 상임대표님과 안영옥 집행위원장 등 본부 간부들과 각 지역, 부문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2014년도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지만, 6.15 공동선언이 밝혀 준 민족의 단합과 단결로 통일 문제를 온 겨레의 힘과 지혜를 모아 풀어가는 원칙을 지킨다면 기어코 민족공동행사도 하고, 남북이 서로 상봉하는 감격도 맞이할 것입니다. 모두 분투하고, 또 분투합시다.

고맙습니다.

2014년 2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안건 심의

[주문사항 : 안건과 회순을 심의해 주십시오.]

안건 1 :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안건 2 : 2013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안건 3 : 2013년 결산 심의의 건

안건 4 : 임원 선출의 건

안건 5 : 2014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안건 6 : 2014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안건 7 :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채택 건

안건 1.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주문사항 : 감사보고서를 심의해 주십시오.]

6.15경기본부 2013년 감사보고서

회계연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감사일시 : 2013년 2월 3일

감사장소 : 6.15경기본부 사무실

감사자 : 이주현, 조지훈

피감사자 : 안영욱, 박성철, 박홍수

1. 사업 감사

-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부정되고 남북관계는 개선될 여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긴장지속과 소위 중북주의 논란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신 6.15경기본부 윤기석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성원에게 따뜻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온 6.15경기본부 사무처 식구들에게 수고의 인사를 보냅니다.
- 지난해에 6.15경기본부는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시작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 기념식과 현수막달기’, ‘제1회 경기 평화통일 골든벨’, ‘통일강사 아카데미 및 강사심화과정’, ‘평화통일교육’, ‘홍보위원회 활동’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실정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의미 있는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 특히 경기도 교육청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화통일 수업’에서는 보수단체들의 방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성과 있게 진행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통일교육’과 ‘평화통일 인문학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노력은 높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평화통일교육사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폭넓게 진행된 반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은 미진하게 진행됐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책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은 안정화되는 반면 6.15경기본부의 결속력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직력과 활동력을 더욱 높여 단체별, 지역별 평화통일사업 지원 등 경기지역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경기평화통일골든벨’이 성과 있게 진행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경기지역 대표적인 평화통일사업이 될 수 있도록 평가와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 재정 감사

- 회계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과 증빙서류는 잘 갖춰졌습니다. 지출결의서와 월별 수입부, 지출부를 작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수입, 지출내역을 면밀히 감사한 결과 회계수치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이 정당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통한 재정마련으로 여러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은 사업상으로나 재정상으로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현황을 감안하여 보다 더 계획적이고 세밀한 사업기획과 재정마련, 사업집행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사업 확대와 후원 증가로 6.15경기본부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사업 확대와 안정적 집행을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회비 납부율은 73%로 전체 금액 면에서는 적은 편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회비 미납단체가 있습니다. 회비미납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화하여 회비 납부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6.15경기본부 전체 성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앞으로도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 이 주 현 

감사 : 조 지 훈 

안건 2. 2013년 사업평가서 심의의 건

[주문사항 : 6.15경기본부의 2013년 사업 평가서를 심의해주십시오.]

2013년 사업 일지

■ 조직사업 (111회)

◇ 1월 (10회)

- 1월 4일 1차 집행부 회의
- 1월 15일 1차 집행위원회 회의
- 1월 21일 2차 집행부 회의
- 1월 22일 1차 운영위원회 회의
- 1월 22일 안산 조례제정을 위한 3차 공개특강 참석
- 1월 24일 감사
- 1월 25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 1월 25일 6.15남측위원회 워크샵
- 1월 29일 전교조경기지부 출범식 참석
- 1월 29일 3차 집행부 회의

◇ 2월 (10회)

- 2월 4일 김현삼 도의원 면담
- 2월 5일 4차 집행부 회의
- 2월 5일 6.15안산본부 총회 참석
- 2월 7일 6.15경기본부 총회
- 2월 18일 5차 집행부 회의
- 2월 23일 경기대불청 회장 이취임식 및 사무실 개소식 참석
- 2월 23일 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회와 면담
- 2월 26일 6차 집행부 회의
- 2월 26일 2차 운영위원회 회의
- 2월 26일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총회 참석

◇ 3월 (15회)

- 3월 4일 안산 평화통일의식 증진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공개 특강 4강 참석
- 3월 4일 7차 집행부 회의
- 3월 5일 6.15수원본부 총회 참석

- 3월 7일 전교조경기지부 면담
- 3월 10일 경기청년연대 정기총회 참석
- 3월 11일 8차 집행부 회의
- 3월 12일 밀알교회 담임목사 면담
- 3월 15일 6.15남측위원회 정기 총회
- 3월 18일 9차 집행부 회의
- 3월 19일 2차 집행위원회 회의
- 3월 19일 경기IL통합네트워크 방문
- 3월 25일 10차 집행부 회의
- 3월 26일 3차 운영위원회 회의
- 3월 30일 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와 협의
- 3월 31일 밀알교회 부활절 예배 참가

◆ 4월 (13회)

- 4월 1일 11차 집행부 회의
- 4월 9일 12차 집행부 회의
- 4월 9일 경기IL통합네트워크 방문
- 4월 12일 13차 집행부 회의
- 4월 13일 전농경도연맹 주최의 7회 농경체험한마당 참가
- 4월 15일 6.15경기본부 교육위원 3차 심화과정 2강
- 4월 16일 3차 집행위원회 회의
- 4월 16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 4월 16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 4월 22일 4차 운영위원회 회의
- 4월 23일 14차 집행부 회의
- 4월 27일 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와의 2차 회의
- 4월 29일 15차 집행부 회의

◆ 5월 (7회)

- 5월 3일 6.15안양본부 총회 참가
- 5월 6일 16차 집행부 회의
- 5월 10일 4차 집행위원회 회의
- 5월 13일 17차 집행부 회의
- 5월 23일 5차 운영위원회 회의
- 5월 24~25일 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회 워크숍 참석
- 5월 28일 6.15사과원 농활

◆ 6월 (10회)

- 6월 3일 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회와 어린이어깨동무 면담
- 6월 4일 18차 집행부 회의
- 6월 8일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제 19회 수원시민통일한마당
- 6월 8일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안산시민견기대회

- 6월 10일 19차 집행부 회의
- 6월 13일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안양시민 영화제 참석
- 6월 17일 20차 집행부 회의
- 6월 18일 5차 집행위원회 회의
- 6월 24일 21차 집행부 회의
- 6월 25일 6차 운영위원회 회의

◆ 7월 (4회)

- 7월 1일 22차 집행부 회의
- 7월 22일 7차 운영위원회 회의
- 7월 22일 23차 집행부 회의
- 7월 27일~28일 전농경기도연맹 가족수련회 참가

◆ 8월 (3회)

- 8월 19일 7차 집행위원회 회의
- 8월 26일 24차 집행부 회의
- 8월 29일 8차 운영위원회 회의

◆ 9월 (7회)

- 9월 2일 25차 집행부 회의
- 9월 3일 6.15수원본부 주최 통일정세 강연
- 9월 11일 6.15고양본부 상임대표 면담
- 9월 13일 8차 집행위원회 회의
- 9월 16일 26차 집행부 회의
- 9월 23일 9차 운영위원회 회의
- 9월 30일 6.15수원본부의 “오인동 박사 초청 강연”

◆ 10월 (6회)

- 10월 8일 27차 집행부 회의
- 10월 15일 28차 집행부 회의
- 10월 17일 9차 집행위원회 회의
- 10월 21일 29차 집행부 회의
- 10월 25~26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 회의
- 10월 28일 30차 집행부 회의

◆ 11월 (10회)

- 11월 4일 31차 집행부 회의
- 11월 5일 6.15수원본부 주최 <강호제 교수> 초청 강연
- 11월 11일 31차 집행부 회의
- 11월 14일 경기남부 평통사 <백승우감독과의 만남> 참여
- 11월 16일 전교조경기지부 참실대회 참여
- 11월 18일 32차 집행부 회의

- 11월 19일 6.15남측위원회 운영위원 집행위원 합동 회의
- 11월 21일 안재구 고문 출판기념회 참석
- 11월 25일 33차 집행부 회의
- 11월 26일 10차 운영위원회 회의

◆ 12월 (16회)

- 12월 2일 35차 집행부 회의
- 12월 5일 6.15지역본부 집행위회의
- 12월 9일 36차 집행부 회의
- 12월 9일 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회회장 면담
- 12월 14일 유병호 선생님 서거 3주기 추모제
- 12월 16일 37차 집행부 회의
- 12월 16일 6.15경기본부, 6.15수원본부 합동 회의
- 12월 17일 10차 집행위원회 회의
- 12월 17일 6.15남측위원회 후원의 밤
- 12월 18일 경기여성단체연합 면담
- 12월 19일 경주시국회의 주최의 철도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 12월 23일 38차 집행부 회의
- 12월 28일 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회와 간담회
- 12월 30일 39차 집행부 회의
- 12월 30일 11차 운영위원회 회의
- 12월 30일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와의 간담회

◆ 교육사업 (97회)

◆ 1월 (8회)

- 1월 3일 제1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1월 5일 제7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3강
- 1월 11일 제5회 전국 통일교육 수련회
- 1월 12일 제7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4강
- 1월 17일 1차 교육국 회의
- 1월 19일 제7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5강
- 1월 25일 제2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과주 통일 기행지 1차 답사)
- 1월 26일 7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6강

◆ 2월 (8회)

- 2월 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면담
- 2월 2일 7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7강
- 2월 14일 경기도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담당자와 면담
- 2월 8일 1차 교육위원회 회의

- 2월 16일 7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8강 및 수료식
- 2월 20일 기아노조 교육위원 집체교육
- 2월 25일 제3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과주 통일 기행지 2차 답사)
- 2월 28일 교안 점검 회의

◆ 3월 (8회)

- 3월 5일 2차 교육위원회 회의
- 3월 7일 초등, 중등 교안 시연회(안양자주학교)
- 3월 9일 7기 교육위원 교안 시연회 1
- 3월 12일 제4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3월 16일 7기 교육위원 교안 시연회 2
- 3월 19일 1차 교육연구팀 회의
- 3월 19일 제5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3월 29일 제6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4월 (10회)

- 4월 2일 3차 교육위원회 회의
- 4월 5일 칠보산 지역아동센터 중등 찾아가는 통일교육
- 4월 8일 6.15경기본부 교육위원 3차 심화과정 1강
- 4월 9일 경기도교육청과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실무 회의
- 4월 19일 통일강사 아카데미 1차 전문가과정 실무회의
- 4월 22일 제7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4월 23일 통일강사 아카데미 1차 전문가과정 1강
- 4월 26일 2차 교육연구팀 회의
- 4월 29일 3차 심화과정 3강
- 4월 30일 통일강사 아카데미 1차 전문가과정 2강

◆ 5월 (8회)

- 5월 3일 4차 교육위원회 회의
- 5월 6일 제8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5월 7일 통일강사 아카데미 1차 전문가과정 3강
- 5월 10일 대구지역 통일강사 워크샵
- 5월 14일 통일강사 아카데미 1차 전문가과정 4강
- 5월 24일 제9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5월 29일 찾아가는 통일교육 진보정의당 안양시위원회 강연
- 5월 31일 3차 교육연구팀 회의

◆ 6월 (5회)

- 6월 5일 찾아가는 통일교육 진보정의당안양시위원회 강연
- 6월 7일 5차 교육위원회 회의
- 6월 11일 경기도 교육청의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중간평가회의 참석
- 6월 12일 찾아가는 통일교육 진보정의당 안양시위원회 강연

- 6월 18일 6차 교육위원회 회의

◆ 7월 (10회)

- 7월 2일 제10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7월 5일 4차 교육연구팀 회의
- 7월 8일 7차 교육위원회 회의
- 7월 15일 5차 교육연구팀 회의
- 7월 13일 청소년 통일캠프 사전 준비 회의
- 7월 20일 제1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강화도)
- 7월 23일 제2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파주)
- 7월 25일 제3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파주)
- 7월 25일~27일 청소년 통일캠프
- 7월 30일 제4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강화도)

◆ 8월 (9회)

- 8월 2일 6차 교육연구팀 회의
- 8월 6일 교육위원 4차 심화과정 1강
- 8월 6일 8차 교육위원회 회의
- 8월 12일 제11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8월 13일 교육위원 4차 심화과정 2강
- 8월 20일 6.15경기본부 교육위원 2013년 1차 워크샵 및 4차 심화과정 4강, 5강
- 8월 24일 찾아가는 통일교육(수원여성회)
- 8월 26일 제12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8월 27일 4차 심화과정 5강

◆ 9월 (7회)

- 9월 6일 제13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9월 10일 9차 교육위원회 회의
- 9월 10일 7차 교육연구팀 회의
- 9월 12일 경기도 교육청 면담,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상반기 평가회의
- 9월 16일 교육위원 긴급 전체 회의
- 9월 24일 제14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9월 26일 8차 교육연구팀 회의

◆ 10월 (5회)

- 10월 8일 10차 교육위원회 회의
- 10월 11일 제15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10월 11일 9차 교육연구팀 회의
- 10월 19일 5차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 10월 26일 6차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 11월 (10회)

- 11월 5일 11차 교육위원회회의
- 11월 7일 7차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 11월 9일 8차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 11월 13일 동패중 통일 공개수업 참여
- 11월 15일 9차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 11월 19일 제16차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팀 회의
- 11월 21일 10차 교육연구팀 회의
- 11월 22일 통일부 철원 기행 참여
- 11월 28일 제17차 평화통일인문학 기행팀 회의
- 11월 30일 10차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 12월 (9회)

- 12월 3일 12차 교육위원회 회의
- 12월 6일 11차 교육연구팀 회의
- 12월 13일 12차 교육연구팀 회의
- 12월 13일 경기도 교육청의 13년 평화통일교육 평가회의 참여
- 12월 19일 18차 평화통일인문학 기행팀 회의
- 12월 20일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주최의 워크숍 참여
- 12월 22일 찾아가는 통일교육(안양청소년)
- 12월 24일 13차 교육연구팀 회의
- 12월 31일 14차 교육연구팀 회의

◆ 대중사업(59회)

◆ 1월 (1회)

- 1월 10일 제7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사무국 회의

◆ 3월 (8회)

- 3월 7일 <전쟁훈련 중단 남북미 대화촉구>기자회견
- 3월 11일 <전쟁훈련 반대 대화 촉구> 1인 시위
- 3월 11일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경기 긴급 시국회의
- 3월 15일 한반도 전쟁 관련 정세 강연(시루봉)
- 3월 18일 경기긴급행동 상황실 1차 회의
- 3월 28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재추진 검토를 위한 간담회
- 3월 28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긴급행동 상황실 회의
- 3월 29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비상시국회의

◆ 4월 (11회)

- 4월 1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긴급행동 상황실 회의
- 4월 4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긴급행동 상황실 회의

- 4월 8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긴급행동 상황실 회의
- 4월 12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긴급행동 상황실 회의
- 4월 15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긴급행동 상황실 회의
- 4월 17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긴급행동 상황실 회의
- 4월 18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비상시국대토론회
- 4월 18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평화촛불
- 4월 22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4월 25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4월 29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5월 (7회)

- 5월 6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5월 13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공동대표자회의
- 5월 20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5월 21일 2013년 경기지역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5월 23일 1차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기획단 회의
- 5월 23일 제3회 시민교육박람회 간담회 참석
- 5월 31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6월 (6회)

- 6월 5일 6.15민족공동행사 보장 촉구 시국회의 참석
- 6월 6일 통일쌀모내기 행사 참여
- 6월 11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6월 13일 6.15공동선언발표 13주년기념식 및 전쟁반대평화실현 경기615인 선언선포식
- 6월 15일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참석
- 6월 18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7월 (14회)

- 7월 2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7월 5일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장소 답사
- 7월 11일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 1차 경주시국회의
- 7월 15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7월 15일 북일 여자 축구 응원전 준비 회의
- 7월 1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 2차 경주시국회의
- 7월 16일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기획단 회의
- 7월 19일 북일 여자 축구 응원전 준비 회의
- 7월 21일 남북 여자 축구 응원전
- 7월 22일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기획단 회의
- 7월 22일 경주시국회의의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규탄 기자회견
- 7월 23일 경주시국회의 대표자 회의
- 7월 25일 북일축구 응원전
- 7월 25일 경주시국회의 1차 공동행동

◆ 8월 (8회)

- 8월 5일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기획단 회의
- 8월 7일 경기시국회의의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규탄 경기지역 동시다발 촛불
- 8월 9일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기획단 회의
- 8월 13일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규탄 경기시국회의
- 8월 15일 광복 68주년 8.15민족통일 대회
- 8월 19일 3차 경기시국회의
- 8월 19일 을지프리덤 훈련 반대 기자회견
- 8월 22일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기획단 회의

◆ 9월 (2회)

- 9월 2일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기획단 회의
- 9월 9일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기획단 회의

◆ 10월 (1회)

- 10월 3일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 11월 (1회)

- 11월 2~3일 전농경기도연맹 통일쌀 경작지 추수행사

◆ 연대사업 (20회)

◆ 2월 (7회)

- 2월 2일 전국 자주통일 대토론회 참석
- 2월 5일 강정마을 희망포차 방문
- 2월 5일 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면담
- 2월 13일 민주노점상연합 화성오산지부 개소식 참석
- 2월 15일 수원여성회 개소식 참석
- 2월 19일 경기민언련 주최의 대안언론 간담회 참석
- 2월 19일 수원 통일나눔 총회 참석

◆ 3월 (3회)

- 3월 5일 민주연합노조 방문
- 3월 13일 민주노점상연합회 방문
- 3월 30일 세계 3.8여성의 날 기념 경기여성대회 참가

◆ 4월 (3회)

- 4월 5일 대안언론 2차 간담회 참가
- 4월 10일 수원평화촛불 참가
- 4월 22일 경기민언련 주최의 대안언론 간담회 참가

◆ **7월 (1회)**

- 7월 18일 정전 60년 고양 60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제심포지엄 참석

◆ **11월 (3회)**

- 11월 12일 평화와 공공성센터의 임동원 전 장관 초청 강연 및 간담회
- 11월 29일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면담
- 11월 27일 경기교육희망연대 준비 회의

◆ **12월 (3회)**

- 12월 6일 수원여성회 국밥 장터 참여
- 12월 12일 경기교육희망연대 출범 기자회견 및 토론회
- 12월 19일 생명, 평화, 기독경기행동 시국 예배 참여

2013년 사업 평가

1. 2013년 경기본부 사업 방향(총회 결정사항)

- ① 반전평화운동과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재개를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② 평화통일교육 대상의 다양화,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통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평화통일의식을 증진시킨다.
- ③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대중들이 친숙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사업을 한다.
- ④ 6.15세력의 단결을 통한 공안정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평화통일 역량 축성에 노력한다.

2. 영역별 사업 내용

1) 평화통일교육 사업

1) 통일강사 양성 사업

◆ 기 조

- 모든 교육위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평화통일교육을 하게 한다.
- 모든 교육위원은 2번의 심화과정 중 1번은 꼭 들어야 하며 한 개 이상의 교육위원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권장한다.

◆ 결과와 평가

- 교육위원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화과정의 1회 이상 의무 참석으로 참석률이 높아졌다.
- 그 외에도 실력 향상을 위한 권역별 모임에서의 책읽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4명의 교육위원이 출산과 개인 사정으로 18명으로 축소되었다.

① 제7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 목표와 내용

- 취지 : 젊고 열정이 있는 새로운 통일강사를 양성한다.
- 기 간 : 2012년 12월 22일~13년 2월 16일까지(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
- 장 소 : 안산 양지 돌봄
- 회 비 : 13만원 [100% 출석 시 6만원, 6강 이상 출석 시 4만원 장학금 지급]
- 교과과정

순서	시간	강의주제	강사명
----	----	------	-----

1강 (12.22)	14:00~14:10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10분)	
	14:10~15:40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자(90분)	이신
	15:40~17:00	초등 교안 배우기(80분)	이효정
2강 (12.29)	14:00~15:20	초등 교안 시연(1명)	
	15:20~17:00	북의 특징과 향후 전망(100분)	김진환
3강 (01.05)	14:00~14:30	초중고 교과서의 민족, 통일관련 내용은(30분)	김영신
	14:30~15:30	초등 교안 다시 배우기(60분)	이효정
	15:30~17:00	초등 교안 시연(1명)	
4강 (01.12)	14:00~15:00	초등 교수법(협력학습) 배우기(60분)	김영신
	14:50~17:00	초등 교안 시연(1명)	
5강 (01.19)	14:00~15:30	초등 교안 시연(1명)	
	15:30~17:00	중등교육안 배우기(60분)	김철기
6강 (01.26)	14:00~15:00	중등 교안 시연(1명)	
	15:00~17:00	내안의 평화, 우리 안의 평화(120분)	이재봉
7강 (02.02)	14:00~15:00	중등 교수법(협력학습) 배우기(60분)	박홍수
	15:00~17:00	중등 교안 시연(2명)	
8강 (02.16)	14:00~15:00	중등 교안 시연(1명)	
	15:00~16:40	우리의 자긍심 고조선, 고구려(100분)	김준혁
	16:40~18:00	수료식 및 종강 뒷풀이	

◆ **결과와 평가**

- 신청자 4명, 4명 이수, 3명 강사 활동 중
- 전체 예산에서 6.15경기본부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되었다.
- 참가비를 높게 책정하고 장학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방식은 새로운 좋은 방식이다.

② **교육위원 심화과정**

◆ **목표와 내용**

- 년 중 2회 심화과정을 진행하며 모든 교육위원은 반드시 1회는 심화과정에 참여한다는 원칙 수립

◆ **결과와 평가**

- 교육위원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화과정이 출석률도 높아지고 적극성도 좋아졌다.

■ **3차 심화과정**

◆ **목표와 내용**

- 주제를 정해서 좀 더 깊고 풍부하게 토론, 연구하여 교육위원들의 교육수준을 심화시키도록 한다.
- 방식 : 하나의 책을 선정하여 그 책에 대해 토론하고 전문가의 강연을 듣는다.
- 주제 : 평화와 갈등 해결 방안

- 기간 : 4월 8일(월), 4월 15일(월), 4월 29일(월) 총 3회
- 참가대상 : 6.15경기본부 교육위원 10명 내외
- 장소 : 시루봉
- 참가비 : 2만원
- 교육과정

강의	날짜	시간	주제	강사
1강	4. 8	13:00~15:00	세미나	
		15:00~17:30	평화란 무엇인가	이재봉 교수
2강	4.15	13:00~15:00	세미나	
		15:00~17:30	통일의 인문학적 접근의 필요성	이재봉 교수
3강	4.29	13:00~15:00	세미나	
		15:00~17:30	갈등이란, 갈등해결 방법은(실습포함)	박수선 강사

◆ **결과와 평가**

- 13명이 참가함.
-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 **4차 심화과정**

◆ **목표와 내용**

- 기 간 : 8월 6일 ~ 8월 27일 (4회)
 - 1 강 : 2013년 8월 6일 14:00 ~ 18:00
 - 2 강 : 2013년 8월 13일 14:00 ~ 18:00
 - 3 강 : 2013년 8월 20일 10:00 ~ 18:00(워크숍)
 - 4 강 : 2013년 8월 20일 16:00 ~18:00
 - 5 강 : 2013년 8월 27일 14:00 ~ 18:00
- 장 소 : 고양, 수원여성회 교육실
- 참 가 자 : 10명 내외
- 교육대상 : 6.15경기본부 평화통일 강사
- 교육 내용 : 다른 인문학의 이해와 통일교육과의 연계성 찾기
- 교육과정

강의	날짜	시간	주제	강사
1강	8. 6	14:00~16:00	세미나	
		16:00~18:00	역사에서 배우는 통일의 지혜 1	김종성 (동아시아 연구가)
2강	8.13	14:00~16:00	세미나	
		16:00~18:00	역사에서 배우는 통일의 지혜 2	김종성 (동아시아 연구가)
3강	8.20	10:00~12:00	상반기 평가	
4강		12:00~13:00	점심	

		13:00~14:00	하반기 계획	
		14:00~16:00	고전에서 배우는 통일의 지혜	이신 (통일사회연구소 소장)
		16:00~18:00	기독교에서 배우는 통일의 지혜	이종철 목사
5강	8.27	14:00~16:00	세미나	
		16:00~18:00	불교에서 배우는 통일의 지혜	범상스님

◆ **결과와 평가**

- 15명이 참가함.
-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③ **평화통일강사 1차 전문가 과정**

◆ **목표와 내용**

- 목표는 시민,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강연을 할 강사 양성과 강연안을 제작하는 것이다.
- 기간 : 4월 23일(화) ~ 5월 14일(화) 4회의 강좌와 토론 모임
- 주최 : 안산 산업단지 복지관 / 6.15경기본부
- 운영계획
 - ▶ 기본 교재 : 민주노총 통일교과서(통일을 부탁해) + 강의안
: 통일교과서를 기본 자료로 교안 작성
 - ▶ 기본 운영 : 3회의 초청 강사 + 3회의 교안 작성 토론
교안 완성 및 평가 : 1회(마지막 회차)의 강의 시연 및 평가, 수정

◆ **결과와 평가**

- 6.15경기본부에서는 안영욱, 박홍수, 이효정, 장화숙 교육위원 참여
- 교안은 2종으로 <노동자와 통일>, <한반도 위기의 전망>을 노동자, 시민용으로 제작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각자 자기 교안을 만들어서 진행하였다.

④ **교육위원 교육 지원 프로그램**

◆ **목표와 내용**

- 12년 성과를 이어서 올해도 교육위원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비 50%를 지원한다.
-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교육위원에 적용되며 년 중 1인 1회 지원 받는다.

◆ **결과와 평가**

- 4명이 지원 하였다.
- 지원자가 많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없었다.

번호	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위원	결과	지원금
1	평화통일지도자과정 제16기	안산통일포럼	9강(3.21~5.16)	안영욱	수료	7만5천원
2	2기 통일 아카데미	한반도선진화재단	5강(2.19~3.8)	박홍수	수료	5만원

3	2013 강풍법 공개강좌	에듀웨이	6.22	장혜영	수료	5만원
4	2013 강풍법 공개강좌	에듀웨이	6.22	정재훈	수료	5만원

⑤ 제8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 목표와 내용

- 새로운 통일 활동가 발굴 차원에서 하반기에 진행한다.

◆ 결과와 평가

- 교육 대상자가 없어 진행하지 않았다.

⑥ 권역별 모임을 통한 실력향상

◆ 목표와 내용

- 매월 진행되는 권역별 모임에서 교안 공유, 상호간의 시연, 자체 세미나를 통해 서로 교육방식과 실력을 향상시킨다.

◆ 결과와 평가

- 권역별 모임에서 한편의 책을 정하고 토론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⑦ 역사노트

◆ 목표와 내용

- 매월 10일에 발표하며 교육위원과 소식지에 실리도록 한다.

◆ 결과와 평가

- 필진을 조근향, 임영희 두 명으로 교체하였다.
- 소식지에 '역사노트'코너를 만들어 매월 기재하고 있다.
- 필진을 더 추가하고 1년 단위로 주제를 내오기로 한다.

횟수	주 제	필 진
1월	-	-
2월	경술국치(한일 합병 조약)	김영신
3월	3.1운동, 민족해방운동	임영희
4월	민족해방운동	임영희
5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조근향
6월	항일무장투쟁, 보천보전투	임영희
7월	한반도 분단의 기원	조근향
8월	미군정	임영희
9월	김구 선생	조근향
10월	모스크바 삼상회의	임영희
11월	미소공동위원회	조근향

12월		
-----	--	--

2) 평화통일교육 사업

◆ 목표와 내용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계층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
- 교육의 효과가 높은 학급별 수업을 고수한다.

◆ 결과와 평가

- 경기도 교육청의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은 교육청의 새로운 담당 부서가 생겨 시작 시기가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학교와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왔다.
-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의 모니터링단의 평가는 보수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교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였다.
- 보수 단체의 평화통일교육 중단 요구와 새누리당 도의원의 평화통일교육 강사 명단 공개 요구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였다.
- 학급별 수업의 원칙 고수와 봉사수업으로 평화통일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① 경기도 교육청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 목표와 내용

- 예산이 2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학급별 수업의 원칙을 고수한다.

◆ 결과와 평가

- 2013년 예산은 1억 2천 만 원으로서 확대시키지 못 했다.
- 학급별 수업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선생님에 대한 설득과 봉사수업을 확대하였다.
- 12년, 13년 평화통일교육 현황 보고서

구 분	12년	13년	증감률(%)
사업기간	9개월(4월~12월)	8개월(5월~12월)	-11
사업비(6.15경기본부, 천원)	97,000(85,245)	120,000(112,521)	24(32)
교육대상	초고, 중	초고, 중	
학교(초, 중)	510교	343교	
수업시간	653시간	925시간	42
봉사수업	20시간	115시간	475
교육위원	24명	21명	-12

■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현황

	중등(비중)	초등(비중)	유료수업(비중)	봉사	합계
총 수업수	239(30)	571(70)	810(100)	115	925
1시간	154(36)	274(64)	428(100)	66	494
2시간	85(22)	297(78)	382(100)	49	431

○ 초등수업에서 1시간 수업이 48%, 2시간 수업이 52%이다.

○ 중등수업에서 1시간 수업이 64%, 2시간 수업이 36%이다.

■ 평화통일교육 학생 설문 결과보고서 [참가자 : 초등-10,798명, 중등- 1,831명]

1. 오늘 평화통일교육이 어떠했나요?	초등		중등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1. 매우 좋다.	6,153	57.0	740	40.4
2. 좋다.	3,435	31.8	775	42.3
3. 보통	1,054	9.8	254	13.9
4. 좋지 않다.	79	0.7	36	2.0
5. 매우 좋지 않다.	77	0.7	26	1.4
	10,798	100	1,831	100
2. 평화통일교육을 받고 나서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초등		중등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1.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7,827	74.9	1,316	72.7
2. 변함없다.	2,541	24.3	471	26.0
3.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86	0.8	23.	1.3
	10,454	100	1,810	100
3. 오늘 수업을 하고 난 후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초등		중등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1. 통일이 되면 정말 좋겠다.	7,739	70.5	859	48.8
2. 통일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2,652	24.2	759	43.2
3.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221	2.0	52	3.0
4. 관심 없다.	357	3.3	88	5.0
	10,969	100	1,758	100

■ 평화통일교육 교사 평가서 결과 보고서 [참가자 : 365명]

1. 평화통일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인원수	비율
1. 매우만족	252	69
2. 만족	106	29
3. 보통	6	1.6
4. 아쉬움	-	
5. 매우 아쉬움	1	0.4
	365	100

2. 평화통일교육 내용 중 보완하거나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인원수	비율
1. 민족의식	27	8.3
2. 남북간의 현실 상황	32	9.9
3. 통일 이후의 미래상	74	22.9
4. 흥미와 재미	33	10.1
5. 평화통일에 대한 감수성 향상	66	20.4
6. 통일과정과 방안	92	28.4
	324	100

② 16강 평화통일교육

◆ 목표와 내용

- 혁신학교와 직접 연계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아동센터, 대안학교 등에서 16강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한다.
- 16강 평화통일교육을 혁신학교 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모색한다.

◆ 결과와 평가

- 학교, 도서관에서 재정 부담과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 수업 참여를 자원봉사로 인정할 수 없어서 자원봉사증 발급이 안되었다.

③ 찾아가는 통일교육

◆ 목표와 내용

-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등 학교 밖의 청소년에 대한 평화통일교육을 확대한다.
-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통일교육을 진행한다. (명칭은 대상에 따라 시민평화통일교육, 노동자 통일교육 등 다양하게 한다.)

◆ 결과와 평가

- 경기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3백 만원 지원, 6.15경기본부 21만원을 지원하였다.
- 청소년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지역 지역아동센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총 54시간 진행[경기도 40시간, 6.15경기본부 14시간, 봉사 13시간, 취소 4회]
- 성인 5회, 청소년 49회 진행하였다. 전국민주노점상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경기II통합네트워크, 진보정의당 경기도당 등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단체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신청은 적었다.

■ 교육내용

구분	교육안	교육대상	교육시간	강사비
1	통일의 조각을 찾아라	초등	60분	무료
2	전쟁이나 평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중, 고등학생	60분	무료
3	통일되면 돈 생기고 밥 나온다.	성인	120분	7만원

■ 찾아가는 통일교육 일정표

번호	날짜	시간	대상	교안	단 체	인원	강사
1	3. 12	오후 3시	청소년	1강	안양 자주학교	5	이성주
2	3. 22	오후 4시	청소년	1강	수원 칠보산 지역아동센터	12	이성주
3	5. 10	오후 1시	청소년	1강	수원탁틴내일	11	이성주
4	5. 20	오후 4시	청소년	1강	월피맑은샘지역아동센터	15	장화숙
5	5. 22	오후 2시	청소년	1강	평화의 지역아동센터	20	장화숙
6	5. 28	오후 4시	청소년	1강	반월동 지역아동센터	20	장화숙
7	5. 29	오후 3시	청소년	1강	생수 지역아동센터	20	장화숙
8	5. 29	오후 7시	성인	1강	진보정의당 안양	8	안영옥
9	6. 5	오후 7시	성인	2강	진보정의당 안양	15	안영옥
10	6. 12	오후 7시	성인	3강	진보정의당 안양	12	박홍수
11	6. 26	오후 4시	청소년	1강	열린교실 본오동지역아동센터	30	장화숙
12	7. 1	오후 4시	청소년	1강	송우은과 지역아동센터	15	조근향
13	7. 3	오후 3시	청소년	1강	밀알 지역아동센터	7	박홍수
14	7. 8	오후 5시	청소년	1강	신갈 푸른학교	21	김진주
		오후 7시		2강		19	
15	7. 10	오후 4시	청소년	1강	안민 희망동지 지역아동센터	7	이성주
16	7. 12	오후 3시	청소년	1강	보리앗 지역아동센터	14	양미화
17	7. 12	오후 4시	청소년	1강	영림 지역아동센터	11	이성주
		오후 6시		2강		10	
18	7. 17	오후 4시	청소년	1강	세교 지역아동센터	20	정재훈
19	7. 17	오후 5시	청소년	1강	오산 푸른학교	11	박홍수
		오후 7시		2강		12	
20	7. 12	오후 2시	청소년	1강	행복꿈터 지역아동센터	21	조근향
		오후 3시		2강		16	
21	7. 24	오후 2시	청소년	1강	아람 지역아동센터	20	박홍수
22	7. 24	오후 2시	청소년	1강	한마음 지역아동센터	10	박홍수
23	7. 26	오후 4시	청소년	1강	한무리 지역아동센터	14	오순자
		오후 7시		2강		13	
24	7. 29	오후 3시	청소년	1강	푸른학교두레교실	21	노정원
25	7. 30	오후 2시	청소년	1강	금광동 푸른학교	15	김진주
		오후 3시		2강		14	
26	7. 31	오후 1시	청소년	1강	이웃사랑 지역아동센터	17	장해영
27	8. 5	오후 1시	청소년	1강	항상 행복한 홈스쿨	13	김진주
		오후 4시		2강		11	
28	8. 5	오후 2시	청소년	2강	꿈세 지역아동센터	18	이재윤
29	8. 6	오후 4시	청소년	1강	두란노 지역아동센터	11	김진주
		오후 5시		2강		13	
30	8. 6	오전 11시	청소년	1강	미금제일 지역아동센터	11	김진주
31	8. 7	오후 4시	청소년	1강	안중 푸른학교	9	송영옥
32	8. 8	오후 2시	청소년	1강	한울타리 지역아동센터	13	노정원
		오후 3시		2강		11	
33	8. 8	오후 3시	청소년	1강	일신성화학지역아동센터	7	양미화
34	8. 9	오후 1시	청소년	1강	태안지역아동센터	8	송영옥
35	8. 9	오후 2시	청소년	1강	샤론지역아동센터	14	오순자
36	8. 9	오후 3시	청소년	1강	초록세상지역아동센터	12	장화숙
		오후 4시		1강		17	
37	8. 9	오후 2시	청소년	1강	마장지역아동센터	13	김진주
38	8. 13	오후 1시	청소년	1강	오산양문지역아동센터	14	이성주
39	8. 13	오후 5시	청소년	1강	안양 꿈꾸는 지역아동센터	취소	박홍수
		오후 7시		2강		취소	
40	8. 14	오후 1시	청소년	1강	꿈이 크는 지역아동센터	8	박홍수

41	8. 16	오후 4시	청소년	1강	연천지역아동센터	13	김철기
		오후 6시		2강		17	김철기
42	8. 17	오전10시	성인	3강	수원 여성회	35	박홍수
43	8. 19	오후 1시	청소년	1강	진광지역아동센터	17	양미화
44	8. 23	오후 4시	청소년	1강	햇빛학교 지역아동센터	11	김진주
45	8. 8	오후 2시	청소년	1강	안중 방정환 지역아동센터	7	송영옥
		오후 3시		1강		8	송영옥
46	8. 20	오후 4시	청소년	1강	홍덕지역아동센터	14	김진주
47	8. 21	오후 4시	청소년	1강	주향지역아동센터	11	노정원
48	8. 22	오후 2시	청소년	1강	대한지역아동센터	14	임영희
49	8. 30	오후 1시	청소년	1강	태평동푸른학교	15	김진주
		오후 2시		2강		13	김진주
50	8. 26	오전11시	청소년	1강	영천지역아동센터	취소	이성주
51	8. 28	오후 3시	청소년	1강	하이탑 지역아동센터	취소	박홍수
		오후 4시		2강		취소	박홍수
52	8. 29	오후 4시	청소년	1강	보람지역아동센터	14	장해영
53	9. 25	오후 4시	청소년	1강	은광지역아동센터	14	박홍수
54	9. 27	오후 4시	청소년	1강	화성시 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취소	이성주
55	10. 12	오후 3시	청소년	1강	수원 YMCA	3	이성주
56	10. 12	오후 3시	청소년	1강		15	박홍수
57	10. 30	오전10시	성인	3강	충북 공공부문비정규직노조	40	박홍수
58	11. 07	오후 4시	청소년	1강	구리시드림 지역아동센터	10	박홍수
59			청소년	1강	부천 시온고등학교	30	박홍수
60	12. 22	오후 4시	청소년	1강	안양 사랑 청년회	30	곽호경
						900	

④ 평화통일캠프, 평화통일인문학기행

◆ 목표와 내용

- 7월 말에 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회와 공동으로 2박 3일 청소년 통일캠프를 진행한다.
- 강화도, 파주, 철원을 기행 코스로 하는 청소년 대상의 평화통일 인문학기행을 한다. 이에 대한 전문 해설사를 양성한다.
- 자원봉사증 발급기관으로 등록하여 봉사시간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한다.

◆ 결과와 평가

○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 총 10회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진행[경기도 3회, 수원시 3회, 일반 신청 4회]
- 경기도 300만원 지원, 수원시 300만원 지원 받아서 진행
- 기행 코스로 강화도 기행(민족의 아픔을 힐링하다)과 파주 기행(광개토대왕의 꿈을 찾아서)이 있으며 철원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프로그램은 제작하고 있다.
- 기행팀을 구성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기행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현 4인의 기행팀원을 5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기행에 자원봉사시간을 줄 수는 없다고 한다.

■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현황

번호	날짜	단체	규모	기행지	주/보조강사	지원금
1	7.20(토)	안양 자주학교, 한무리지역아동센터	21(4)	강화도	조미영/안영옥	경기도

2	7.23(화)	구로 영림중학교	54(4)	파주	조근향,조미영/윤영일	
3	7.25(목)	안산 청소년	32(3)	파주	조근향/조미영	
4	7.30(화)	키다리, 팔달지역아동센터	28(7)	강화도	조근향/조미영	수원
5	10.19(토)	수원 YMCA	40(5)	파주	조근향/이성주	수원
6	10.26(토)	6.15안산본부	20	파주	조근향/이성주	경기도
7	11.7(목)	수원 청소년	22(1)	강화도	윤영일/이성주	수원
8	11.9(토)	파주 지역아동센터	31(1)	파주	조미영/이성주	경기도
9	11.15(금)	안산 YMCA	20	파주	조근향	
10	11.30(토)	진건중	30	파주	조근향/이성주	

○ 평화통일캠프

- 일시 : 2013년 7월 25일 ~ 27일
- 장소 : 연천학생수련장
- 참가자 : 25명(초등- 6명, 중학생- 19명)
- 6.15경기본부 참가자 : 박홍수, 이성주
- 6.15경기본부 참여부분 : 둘째날 오전 : 코너학습 / 둘째날 저녁 : 평화통일 퀴즈대회
- 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한 것이 유의미 했으며 참가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평화통일캠프 일정표

		첫째날(7/25)	둘째날(7/26)	셋째날(7/27)
오 전	7시		기상 아침운동	기상 아침운동
	8시	화서역 1번출구	아침식사 개인정리	아침식사 개인정리
	9시	20분 의정부 낙원웨딩홀 앞	(모둠학습) 코너학습 (전체 2마당 진행)	통일운동회 (축구/짜피구) 야영장시설체험
	10시	30분 문산역	평화의 의미 북녘친구들의 생활	
	11시	임진각 도착/임진각 둘러 보기(깃발만들기)	통일되면 좋은점 통일 쟁반노래방 분단의 아픔을 사람의 아픔으로 내가 대통령이라면	손수건 만들기 및 소감문 쓰기
	12시	점심식사(통일촌)	물놀이준비 및 이동 30분 점심식사	점심식사(12시)
오 후	1시	도라산역 체험프로그램 (역장님 강의)	물놀이 (게임준비) 게임 관련 : 물총준비 등 간식 (감자/수박)	전체정리/시상/소감문 사진 촬영/뒷정리 (2시)
	2시	도라전망대		
	3시	전곡으로 출발		2시 야영장 출발

4시	선사박물관 (체험활동)		3시 30분 의정부 낙원웨딩 홀 5시 수원 화서역
5시	숙소로 출발		
6시	숙소도착 및 정리 30분 저녁식사 /모듬시간 모듬깃발, 구호	30분 숙소도착 및 정리 립딴 만들기	
7시		저녁식사	
8시	통일캠프 여는 마당 인사, 구호, 자기소개 립딴영상(발해를 꿈꾸며 등) (모듬게임▶전체게임) 약30분정도	30분 : 강연 - 평화 통일퀴즈	
9시	추적놀이 대체: 영화상영 (코리아)	30분 통일대동한마당	
10시	30분 : 간식 - 수박	30분 간식 - 수박	
11시	취침, 교사 평가 / 다음날 일정 확인	취침, 교사 평가 / 다음날 일정 확인	
12시			

⑤ 5.18교육

◆ 목표와 내용

- 5.18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5.18교육을 진행한다.

◆ 결과와 평가

- 5.18기념재단의 문제로 5.18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

⑥ 평화통일교육의 전국적 확산 사업

◆ 목표와 내용

- 수도권외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협력수준을 더 높인다. (교안, 수업료, 교육위원 워크숍 등)
-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전국 통일교육 수련회와 제도,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도록 한다.

◆ 결과와 평가

- 서울과 인천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수도권 교류협력이 잘 안되었다.
- 제5회 전국통일교육 수련회(1.11)에 부문단체와 지역에서 35여명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 제6회 전국통일교육 수련회(8.30)에 13명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⑦ 2013년 지자체의 평화통일교육 예산 책정 추진 사업

◆ 목표와 내용

- 수원, 안산, 안양, 군포, 성남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평화통일교육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 한다.

◆ **결과와 평가**

- 수원시에 14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그 외는 없다.

3) 교육위원회 조직 사업

① 집행체계의 보강과 안정적 운영

◆ **목표와 내용**

- 권역별 팀장이 참여하는 교육위원회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교육국회의는 필요시 한다.
- 교육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결합하도록 한다.

◆ **결과와 평가**

- 2월부터 교육국회의를 교육위원회 회의로 전환하여 1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 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으나 12월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하였다.
- 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출석률이 높고 집행의지도 높다.

■ 교육위원회 회의 출석표

성 원	1차 (2.8)	2차 (3.5)	3차 (4.2)	4차 (5.3)	5차 (6.7)	6차 (6.18)	7차 (7.8)	8차 (8.6)	9차 (9.17)	10차 (10.8)	11차 (11.5)	12차 (12.3)	출석률 (%)
교육위원장	0	0	0	0	0					0		공석	55
집행위원장	0	0	0	0	0	0	0	0	0	0	0	0	100
교육국장	0	0	0	0	0	0	0	0	0	0	0	0	100
교육국차장	0	0		0		0	0	0	0	0	0	0	83
교육연구팀장	0	0			0				0	0	0	0	58
동부권 팀장		0	0		0	0	0	0	0	0	0		75
남부권 팀장	0	0		0		0	0	0	0	0	0	0	83
북부권 팀장		대리		0	0		0	0		0		0	58
출석률(%)	75	100	50	75	75	62	75	75	75	100	75	86	

② 권역별 모임의 안정적 운영

◆ **목표와 내용**

- 권역별 모임을 매월 진행하며 권역별 모임에서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 권역별 모임에서 시연을 통해 교안의 수정과 교육위원의 교수법을 서로 공유한다.

◆ **결과와 평가**

- 남부권 모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권역별 모임이 매월 잘 진행되어 6.15경기본부와 교육위원과의 소통이 잘 진행되고 있다.
- 권역별 모임에서 책 토론을 통해 교육위원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모든 교육위원은 월 1회 보조교사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다른 교육위원의 교육방식을 점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좋은 정책이다.

③ 교육연구팀

◆ 목표와 내용

- 교육연구팀을 새로이 구성한다.
- 주업무는 교육위원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사업과 다양한 교육 자료 수집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문통일강사 리스트 작성, 추천 도서목록 작성,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자료 수집

◆ 결과와 평가

- 교육연구팀을 새로이 구성하여 14차 회의를 통해 14년 교안을 제작하는 성과를 내었다.

④ 워크숍

◆ 목표와 내용

- 기본적으로 2회 진행하고 심화과정과 권역별 모임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추가로 한다.

◆ 결과와 평가

- 2013년 8월 20일 1차 워크숍을 통해 상반기 교육사업을 평가하였다.
- 2014년 1월 9일에 2차 워크숍을 통해 2013년 교육사업 평가와 2014년 계획을 논의하였다.

⑤ 부설기관 마련

◆ 목표와 내용

- 당면해서 6.15경기본부 내에 경기평화교육센터를 부설기관으로 두고 법인으로 가는 것을 준비 한다.

◆ 결과와 평가

- 부설기관을 마련하였다.(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고유번호증 등록 완료)
- 이후에는 사단법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1) 경기평화교육센터 설립 목적 :

- 본 센터는 연구, 교육, 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도민들의 평화와 통일의식을 증진시켜 남북의 평화, 통일에 기여한다.

2) 경기평화교육센터 체계

- 대표 : 이상선(전 은행초 교장)
- 감사 : 이종철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6.15경기본부 감사)
- 운영위원 :

번호	운영위원	번호	운영위원
1	김준혁(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7	이상선(전 은행초 교장)
2	노세극(안산 주민연대 공동대표)	8	이주현(매원교회 목사)
3	류명화(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9	장정희(수원여성회 대표)
4	안영옥(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10	최창의(경기도의원)

5	양훈도(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11	황인성(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6	이달호(수원 학예연구원)		

- 사무처장 : 안영옥(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 교육국장 : 박홍수(6.15경기본부 교육국장)
- 교육연구팀장 : 조근향(6.15경기본부 교육위원)
- 기행팀장 : 조근향(6.15경기본부 교육위원)
- 동부권역 팀장 : 임영희(6.15경기본부 교육위원)
- 남부권역 팀장 : 이성주(6.15경기본부 교육위원)
- 북부권역 팀장 : 김철기(6.15경기본부 교육위원)
- 교육위원 : 평화통일교육 강사(6.15경기본부 교육위원)

3) 운영

- 총회 : 연 1회(103명 회원)
- 운영위원회 : 연 4회(11명 운영위원)
- 집행위원회 : 월 1회(7명 집행위원+대표)

4) 주요 사업

- ①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전문 강사 양성
- ② 도민, 청소년 대상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 ③ 평화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개발
- ④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국제교류 활동
- ⑤ 기타 본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조직 강화 사업

◆ 목표와 내용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강화
- 재정 마련으로 집행부와 통일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한다.

◆ 결과와 평가

- 2단체(정의당 경기도당과 경기II통합네트워크)가 신규 가입을 했으나 3단체(대한성공회경기남부지구, 평택민주단체연합, 장원철 공동대표)가 탈퇴하고 2명의 공동대표(경기대련, 6.15고양본부)가 사고 단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위축되었다.
- 집행위원회 회의의 출석률은 높으나 운영위원의 출석률은 높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6.15경기본부와 소속단체와의 결합력을 높여야 한다.
- 보조금, 지원금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재정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① 회의의 안정적 운영과 집행력 강화

◆ 목표와 내용

- 매월 진행을 통한 안정적 운영과 운영위원과 집행위원의 출석률을 높인다.
- 교육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 사무처장을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한다.

◆ **결과와 평가**

- 집행위원회의 출석률은 높은 편이나 운영위원회의 출석률이 높지 않다.
- 교육위원장, 집행위원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어 교육위원장, 집행위원장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으나 현재 교육위원장은 공석이다.
- 사무처장이 당연직 집행위원이 되어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 **운영위원회 회의 출석표**

번호	운영위원	1차 (1.22)	2차 (2.26)	3차 (3.26)	4차 (4.22)	5차 (5.23)	6차 (6.25)	7차 (7.22)	8차 (8.29)	9차 (9.23)	10차 (11.26)	11차 (12.30)	출석률	
1	상임대표	0	0	위임	0	0	0	위임	0	0	0	0	100	
2	6.15고양본부	위임						위임					18.1	
3	6.15수원본부	대리		0	위임	위임	0	위임	0	위임	0	0	90.9	
4	6.15안산본부	위임	위임	0			위임	0	0	0		0	72.7	
5	6.15안양본부		위임	대리	위임	대리	위임		대리	위임	위임	대리	81.8	
6	경기청년연대	0	0			위임	위임		위임		위임		54.5	
7	민주노동경기본부	위임											9	
8	민주통합당경기도당	위임	대리	위임		위임	대리	대리	위임	위임			72.7	
9	전교조경기지부	대리	0	0	0	0	위임	대리	0	위임		위임	90.9	
10	전농경기도연맹							위임	위임		0		27.2	
11	진보정의당경기도당	신 입					위임	위임	위임					50
12	통합진보당경기도당	0	대리	위임	위임						대리		45.4	
13	한국노동경기본부			대리	대리	대리	위임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81.8	
14	교육위원장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사 임		66.6	
15	집행위원장		0	0	0	0	0	0	0	0	0	0	100	
사임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사 임												
사임	민예총경기지회	위임	위임	사 임										
	출석률	62.5	73.3	64.2	57.1	64.2	73	73	73	60	57.1	50		

■ **집행위원회 회의 출석표**

번호	집행위원	1차 (1/15)	2차 (3/19)	3차 (4/16)	4차 (5/10)	5차 (6/18)	6차 (7.12)	7차 (8.19)	8차 (9.13)	9차 (10.17)	10차 (12.17)	출석률
1	6.15수원본부	0	0	0	0	0	0	0	0	0	0	100
2	6.15안산본부			0	0	0		0	0		0	60
3	6.15안양본부			0	0	0			0			40
4	경기남부평통사		0			0	0	0	0	0	0	70
5	경기청년연대		0	0	0	0	0	0	0	0	0	90
6	전농경기도연맹	0	0	0		0	0	0				60

7	진보정의당경기도당	신 입										0
8	통합진보당경기도당	0										10
9	사무처장		0	0	0	0	0	0	0	0	0	100
10	집행위원장	0	0	0	0	0	0	0	0	0	0	100
참관	경기진보연대	0			0	0	0	0				50
사고	6.15고양본부	사 고										
사고	민주노동경기본부	사 고										
사임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사 임										
사임	민예총경기지회	사 임										
	출석률	30.7	66.6	77.7	66.6	80	60	70	70	50	60	

■ 회 의

번호	회의 내용	회수	비고
1	총회	1회	2월 7일
2	운영위원회 회의	11회	10월 무산
3	집행위원회 회의	10회	2월, 10월 무산
4	집행부 회의	39회	
5	교육위원회 회의	12회	
6	교육연구팀 회의	14회	
7	평화통일인문학 기행팀 회의	18회	
8	제1회 경기평화통일 골든벨	13회	
9	교육위원 워크숍	3회	1차 워크숍 5, 6회 전국통일교육수련회
10	아카데미, 심화과정	3회	7기 아카데미, 3차, 4차 심화과정
11	연대회의	20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경기시국회의

② 재정 확대

◆ 목표와 내용

- 재정 확대를 통해 집행부와 통일 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보장한다.
- 자원봉사증 발급기관,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으로 등록한다.
- 공동대표, 후원회원을 확대한다.
-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도비, 기관 등)

◆ 결과와 평가

- 재정확대를 통한 집행부의 상근비가 많이 인상되었다.
- 자원봉사증 발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많은 행정업무를 경감시켰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 등록은 실무 착오로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 공동대표와 후원회원은 크게 늘지 않았다.
-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이 12년에 비해 수원시는 그대로 1건으로 되었고 경기도에서는 3건이 늘어 5건을 지원 받았다.

■ 2013년 후원금 증감표

월별	후원금	월별	후원금
1월	1,101,000	7월	1,064,000
2월	1,202,000	8월	1,148,000
3월	1,281,000	9월	1,062,000
4월	1,441,000	10월	1,085,000
5월	1,241,000	11월	1,300,000
6월	1,203,000	12월	1,067,000

※ 1년치 후원금 일시불 후원

- 김정현 120,000 / 정진후 240,000 / 진상훈(11월) 120,000

■ 2013년 공모사업 결과

지원단체	공모사업	금액	비고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5건)	경기지역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3,880,000	
	평화통일강사 아카데미	3,300,000	
	청소년 통일캠프	3,000,000	신규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3,000,000	신규
	찾아가는 통일교육	3,000,000	신규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3,000,000	신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3회 시민교육박람회	탈락	찾아가는 통일교육신청
아름다운 재단	찾아가는 통일교육	탈락	신규
		19,180,000	

③ 소식지 발행

◆ 목표와 내용

- 매월 6.15경기본부 고문, 감사, 지도위원, 후원회원, 공동대표에게 발송한다.

◆ 결과와 평가

- 소식지 구성을 인사말, 컬럼, 남북속담, 역사노트, 단체소개 등 구성을 새롭게 했다.
- 소식지를 교육위원들에게 발송하지 않았는데 교육위원에게도 발송할 필요가 있다.

■ 2013년 소식지 발행 현황

월별	발송 부수(증감)	월별	발송 부수(증감)
1월	-	7월	176(-1)
2월	176	8월	175(-1)
3월	176	9월	173(-2)
4월	176	10월	173
5월	177(1)	11월	-

6월	177	12월	175(+ 2)
			1,754

④ 홈페이지 활성화

◆ 목표와 내용

- 상시적 관리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 결과와 평가

- 재정적 어려움으로 홈페이지 수정을 하지 못했다.
-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지 못 하고 있다.

3) 6.15 공동선언, 10.4선언 대중화 사업

◆ 목표와 내용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널리 알려낼 대중사업을 한다.
-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결과와 평가

- 6.15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기념식, 현수막달기)를 진행했다.
- 수원, 안산, 안양 등 시별 6.15본부가 있는 곳에서는 6.15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 경기지역 내에 지역별, 단체별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기념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 남북관계의 악화로 민족공동행사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6월 15일 임진각에서 ‘민족통일대회’가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 6.15 즈음에 지역, 부문 등 소속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1) 대중사업

①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 / 10.4선언 발표 6주년 기념사업

◆ 목표와 내용

-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10.4선언 발표 6주년 기념사업을 한다.
- 6.15공동선언, 10.4선언 발표 축하 현수막 달기 사업을 한다.(10개, 10단체)
- 더 많은 경기지역의 시군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사업이 진행되도록 독려한다.

◆ 결과와 평가

-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식 및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 615인 선언 선포식으로 6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30여명이 참석해서 진행하였다.
- 기념식 식순은 대회사, 남·북·해외측 위원회 축하대독, 축하공연, 격려사, 상정의식(평화나무) 등을 진행했고, 예년에 비해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다.
- 기념식 참가대상을 공동대표, 고문, 지도위원, 집행위원, 정당인으로 조직했으나, 많은 단체가 참가하지는 못해 규모 있게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 6.15공동선언 축하 현수막 달기는 30개 신청해서 추첨 후 7개 확정 되었고 6단위에서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기념현수막달기를 2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단위가 적고 재정부담(제작비, 부착비)에 비해 선전효과가 미약하여 중단하는 것이 낫다.

■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식 및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 615인 선언 선포식 식순

식 순	내 용
통일의례	
대회사	윤기석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축사 -1. 6.15남측위원회	대독: 전농 경기도연맹 신동선 의장
축사 -2. 6.15북측위원회	대독: 6.15수원본부 이종철 상임대표
축사 -3. 6.15해외측위원회	대독: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부 이호헌 지부장
축하공연 1	
내빈소개	
축하공연 2	
격려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렬 위원장
격려사	진보정의당 경기도당 김성현 위원장
격려사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장태환 도의원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 615인 선언문 낭독	경기자주여성연대 신옥희 대표
상징의식 - 평화나무	소원지 걸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대합창	

■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현수막 달기

번호	게시대명	행정동	게첨기간	신청 단체
1	송정초등학교	장안구	06.10~06.16	범민련경인연합
2	장안구청 사거리	장안구	06.10~06.16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3	효원공원담	팔달구	06.11~06.17	경기남부평통사
4	시청주차장	팔달구	06.11~06.17	6.15수원본부
5	시청사거리	팔달구	06.11~06.17	전교조 경기지부
6	월드컵 보조 경기장	팔달구	06.11~06.17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7	동수원 뉴코아	영통구	06.11~06.17	전농경기도연맹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을 막아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 통일부의 불허로 민족공동행사는 무산되고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공동으로 채택됨
- 2013년 6월 15일(토) 오후 2시 임진각에서 약 1천명이 참여해서 대회를 진행하고 통일대교까지 행진 하였다.
-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상황에서 6.15남측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민족통일대회를 한 것은 매우 유의했고 의미가 컸다.
-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6.15남측위원회를 높이 평가한다.

② 제1회 경기도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 목표와 내용

- 6월 초에 경기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 결과와 평가

-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른 기획사에 공모한다고 하여서 6.15경기본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③ 제1회 2030 평화통일 골든벨

◆ 목표와 내용

- 평화통일골든벨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 평화통일골든벨을 계기로 경기도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초상식을 갖게 한다.

○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개요

- 1) 행사명 :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 2) 일 시 : 2012년 10월 3일(목) 오후 2시
- 3) 장 소 : 한신대학교 체육관
- 4) 참가대상 : 경기도민(경기도 재직인, 거주인, 재학생)
- 5) 참가비 : 3만원(2인 1팀 - 300팀, 참가비 입금 순)
- 6) 접수방법 :
 - 카페주소 : cafe.daum.net/kgtongilgoldenbell (검색어 - 경기평화통일골든벨)
 - 신청방법 : 카페에서 신청하기(참가비 입금 순)
 - 문 의 : 070-8633-5150
 - 계좌번호 : 농협 128-01-279361 6.15경기본부
- 7) 주 최 : 6.15경기본부
- 8) 주 관 : 경기평화교육센터
- 9) 후 원 : 경기도, 한신대학교, 한사랑병원
- 10) 부대행사
 - ① 평화통일 포토존(백두산 천지 배경)
 - ② 평화통일 퀴즈 : 역사와 진실
 - ③ 평화통일 수레바퀴 :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④ 우리 먹거리 판매 부스 : 동서남북포럼
 - ⑤ 먹거리 장터 : 전국민주노점상연합 오산화성지역협의회

○ 기획단 체계

- 행사위원장 : 윤기석(6.15경기본부 상임대표)
- 수석 장학위원 : 7명
- 장학위원 : 33명
- 기획단장(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안영욱) - 전체 기획, 집행 총괄 담당
- 사무처장(6.15경기본부 사무처장 박성철) - 제반 실무, 집행 담당
- 출제위원장(6.15경기본부 교육위원장 양훈도) - 문제 출제 담당
- 사무국장(6.15경기본부 교육위원 송영욱) - 홍보 담당, 접수 담당,
- 자봉단장(6.15경기본부 교육위원 이성주) - 진행요원 담당, 정답 확인 진행요원
- 조직위원 : 6.15경기본부 집행위원 외 추가
- 사회 : 김태현, 변효진(극단 동네풍경)

◆ **결과와 평가**

○ 제1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참가팀 수

- 300팀이 목표였으나 결과는 89팀(178명)이 참석하였다.

번호	이름	내역	결과(팀)
1	6.15안산본부	일다 포함	5
2	6.15안양본부	김광범 외	5
3	경기남부평통사	한상진 외	3
4	경기대 민주동문회		1
5	경기민권연대	최승재 외	1
6	경기여성연대	이정희 외	1
7	경기청년연대	김식 외	1
8	남부대련		4
9	동서남북포럼		1
10	범민련경인연합	통일아침 포함	5
11	부천평통사		4
12	수원여성회		7
13	안산 커피공방		3
14	안산 통일포럼		5
15	안양 대안과 나눔		2
16	역사와 진실		2
17	개별 참가자		7
18	일반 신청자		20
19	전농경기도연맹		6
20	현장접수		6
합 계			89

○ 수석 장학위원

번호	이름	소속
1	박길용	6.15 안양본부 상임대표
2	신동선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3	윤기중	안산 통일포럼 대표
4	이천환	안산 한사랑병원 원장
5	전순영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6	전환식	6.15사과원 대표
7	정진후	국회의원

○ 장학위원

번호	이름	소속	번호	이름	소속
1	강경민	고양 평화누리 상임대표	18	이주현	매원교회 목사
2	곽라분이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19	이호현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지부장
3	김 식	경기청년연대 의장	20	이흥기	전 경기도연맹 의장
4	김승일	경기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21	임득선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5	김영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안산지역연합회 지역장	22	장창원	경기남부 평통사 대표
6	김주영	전교조경기지부 지부장	23	정광영	우리 허니문 대표
7	김진윤	수원광장 대표	24	정석인	범민련경인연합
8	노세극	피움 협동조합 대표	25	조재학	안산 통일포럼 이사
9	류명화	경기연성단체연합 전상임대표	26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10	류연복	(사)경기민예총이사장	27	최준수	고양평화누리상임이사
11	민경학	전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28	최창식	6.15고양본부상임공동대표
12	범상스님	6.15경기본부홍보위원	29	최창의	경기도의원
13	수산스님	대승원 주지	30	최철환	경기도의원
14	이계연	예촌 대표	31	최현수	자바르떼 경기지부 대표
15	이달호	수원시 학예연구원	32	한옥자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
16	이상선	한신대학교 민주동문회	33	허 원	한국노총경기본부 의장
17	이종철	6.15수원본부상임대표			

○ 후원

번호	단 체	금 액	번호	단 체	물 품
1	한사랑병원	3,000,000	10	6.15사과원	사과 400개
2	전농경기도연맹	500,000			사과 경품용 10상자
3	전교조 경기지부	200,000			사과 판매용
4	동서남북포럼	800,000	11	블루베리농장	엑기스 경품용 10병
5	민주연합노조	300,000	12	조근향	고구마 경품용 5상자
6	김진훈	100,000	13	한신대학교	장소(체육관 등)
7	통일나눔	50,000			
8	안산통일포럼	108,000			
9	한국노총	500,000			
합 계		5,558,000			

○ 시상 및 시상자

등 수	시 상 품	시 상 자
1등	평화통일골든벨 상	상금 3백만원, 상장

	평화통일상	상금 2백만원, 상장	이상선(69번)
2등 - 10.4선언상		노트북, 상장	안순배(114번)
3등 - 6.15공동선언상		아이패드, 상장	김인정(112번)
7.4남북공동성명상		1만원 문화상품권	12명

○ 재정 결산

수입			지출		
참가비	89팀	2,250,000	상품 및 경품	시상품 등	3,352,190
장학위원	41명	3,880,000	홍보비	포스터, 전단지 등	1,225,000
후원		5,558,000	업무추진비	교통비, 식비 등	1,472,597
기타	판매, 도서 등	530,000	행사진행비	렌탈, 음향영상 등	4,872,000
			인건비	사회자, 상근자	1,000,000
			기타	세금, 수수료 등	314,500
합 계		12,218,000	합 계		12,236,287
잔 액					-18,287

④ 반전평화, 평화협정 체결 운동

◆ 목표와 내용

- 전쟁을 막고 평화를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대중적으로 진행한다.
- 경기지역 제 단체와 연대해서 대중적 운동이 되도록 노력한다.

◆ 결과와 평가

-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에 참여하여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 615인 선언운동”(총 260명 중 6.15경기본부에서 80명 조직)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도민 서명운동(1만 3천23명)을 같이 진행하여 7월 26일 경기도 일간지(경기일보, 경인일보)에 광고하였다.
-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 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다.
- 수원지역과 ‘평화촛불’을 같이 진행하였다.

⑤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운동

◆ 목표와 내용

- 팍 막힌 남북관계를 풀 최소한의 사업인 금강산관광 재개 운동을 모색한다.
- 5.24조치 철회 촉구 운동을 한다.(1인 시위 등)
- 경기지역 제 단체와 연대해서 대중적 운동이 되도록 노력한다.

◆ 결과와 평가

-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등 나름 활동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정세 대응 활동

력이 부족했다.

- 동아시아축구대회 참가한 북한여자축구대표팀 응원전을 하였다.(7월 21일 서울상암 남-북경기 총 66명, 응원 참가 및 참가 독려 / 7월 25일 경기화성 북-일 경기 응원 총 51명 : 기아13명, 전농2명, 평통사 5명, 인천5명, 언론 3명, 오산 22명, 사무국2명)

2) 정책 사업

① 2013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목표와 내용

- 토론회는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상반기(5월 초)와 하반기(11월 초)에 진행한다.

◆ 결과와 평가

- 경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줄어서 토론회(5.21)를 1회만 진행하였다.

- 토론회 주제는 “생활과 통일이라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으로 30여명이 참석해서 아주 열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 2013년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시기 : 5월 21일(화) 오후 3시 ~ 5시
- 장소 : 수원화성박물관 교육실
- 주제 : “생활과 통일이라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 패널 구성:
 - 사회자 : 양훈도(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주발제자 : 이신(통일사회연구소 소장)
 - 토론자 : 1 - 최혜경(어린이 어깨동무 사무총장)
 - 2 - 이연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교육국장)
 - 3 - 윤영일(동서남북포럼 사무처장)
 - 4 - 최은아(6.15남측위원회 공동사무처장)

② 평화통일 기반 마련 사업

◆ 목표와 내용

- 각 시군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민들의 평화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

- 각 시군에서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한다.

◆ 결과와 평가

- 안산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

3) 선전 여론 사업

① 홍보위원회 활동

◆ 목표와 내용

- 이 활동의 의미는 시민들에게 통일, 평화, 민족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생각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 홍보위원 8명이 매주 한 개의 칼럼을 쓰고 이를 지역 언론사에 보낸다.

◆ 결과와 평가

- 홍보위원 3명이 교체 또는 추가되어 10명으로 늘어났다.
- 칼럼은 현재 10곳의 언론사에 보내지고 있는데 칼럼을 잘 실어주지 않는 언론사는 협의 후 정리가 필요하다.
- 내년에는 여성 칼럼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 칼럼을 보내는 언론사

번호	신문사	홈페이지	발행일	구분	칼럼란
1	수원시민신문	www.urisuwon.com	격주 발행	인터넷(수원)	평화와 통일
2	신문고뉴스	www.shinmoongo.net	월 1회	인터넷(고양, 파주)	X
3	안양뉴스	www.aynews.net		인터넷(안양)	시민칼럼
4	세종신문	www.yeojufocus.co.kr	매주 금요일	인터넷(여주)	외부칼럼
5	컬처인시흥	www.culturein.co.kr		인터넷(시흥)	사람과삶 >칼럼
6	부천타임즈	www.bucheontimes.com	월1회	인터넷(부천)	12.9.16까지
7	성남투데이	www.sntoday.com		인터넷(성남)	X
8	개벽신문	지면신문		인터넷(천도교)	칼럼
9	뉴스피크	www.newspick.kr		인터넷(수원)	오피티언>칼럼
10	뉴스Q	http://www.newsq.kr/		인터넷(수원)	오피티언>칼럼

■ 홍보위원의 칼럼 수 - 34 편

순서	홍보위원 명단	칼럼	순서	홍보위원 명단	칼럼
1	이종섭(6.15경기본부 홍보위원)	3	6	문영희(6.15경기본부 운영위원)	4
2	범상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4	7	수산스님(6.15경기본부 지도위원)	4
3	박영락(수원 밀알교회 목사)	2	8	양훈도(6.15경기본부 교육위원장)	3
4	노세극(6.15경기본부 홍보위원)	4	9	안영옥(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4
5	박길수(동학민족통일회 집행위원)	3	10	한상진(경기남부평통사 사무국장)	3
		16			18

■ 월별 칼럼 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칼럼 수	3	3	4	2	3	3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4
컬럼 수	3	3	2	2	4	2	

②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와 실천 사업 강화

◆ 목표와 내용

- 6.15경기본부의 성명서, 논평을 자주 발표하도록 한다.
- 실천사업(선전사업 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여론을 확대한다.

◆ 결과와 평가

- 사안에 따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 선언운동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정세 대응 투쟁이 미진함.
-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기지역 시국회의에 참가.

■ 2013년 성명서

번호	성명서 / 기자회견	날 짜
1	[기자회견문-공동주최] 전쟁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촉구한다.	3월 7일
2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기시국 선언문	7월 3일
3	[경기운동본부]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 615인 선언	7월 26일

4) 2013년 재정 결산

1) 2013년 재정 확대 계획

번호	재정 확대 내역	목 표	결 과
1	공동대표 확대를 통한 확충	10,000	-10,000
2	고문, 감사, 지도위원 후원금 확충	60,000	20,000
3	후원회원 확충	100,000	-86,000
		170,000	-76,000
4	도, 기관 보조금	15,000,000	19,180,000
5	교육후원	28,000,000	33,756,350
6	민족21 경기지사(20명)	600,000	60,000
		43,600,000	52,996,350

① 공동대표 확대, 회비 재조정을 통한 확충 => -1만원

번호	공동대표	소 속	회 비	비 고
1	양홍관	6.15경기본부 전 감사	20,000	가입
2	남경일	경기IL센터 대표	10,000	가입
3	김성현	진보정의당 경기도당	100,000	가입

4	6.15안양본부		-30,000	회비 조정
5	경기민언련		-10,000	회비 조정
6	경기민예총		-20,000	회비 조정
7	경기대련		-10,000	사고
8	6.15고양본부		-30,000	사고
9	양홍관		-30,000	사고
10	대한성공회남부교무구		-10,000	탈퇴
11	장원철		-20,000	탈퇴
12	경기복지시민연대		-10,000	탈퇴
합 계			-10,000	

② 고문, 감사, 지도위원의 후원금 확대 (고문:17명 / 지도위원:20명 / 감사:2명) => 현 20,000원

- 6월 : 2만원
- 정진후(2만원)

③ 후원회원 => 현 -8만6천원

- 2월 : -7만5천원
- 이강진(-1만원), 안소희(-1만원), 홍희덕(-1만원), 한지수(-5천원), 신광수(-1만원), 최명림(-3만원)
- 3월 : 3만원
- 김주영(1만원), 김이기(1만원), 류명화(1만원)
- 5월 : 2만원
- 김영후(1만원), 유재(1만원)
- 6월 : -5천원
- 양성렬(-5천원)
- 11월 : 1만원
- 진상훈(1만원)
- 12월 : -4만6천원
- 이선진(1만원), 김형배(1만원), 김종완(-5천원), 박현기(-2만원), 이충익(-1만원), 박진우(-1만원), 문주남(-3천원), 김희경(-3천원), 김동욱(-5천원), 유미경(-1만원)

④ 사회단체 보조금 => 현 19,180,000 원

- 경기도(5건) : 총 16,180,000원 → 토론회(3,880,000), 아카데미(3,300,000), 통일캠프(3,000,000), 통일교육(3,000,000), 골든벨(3,000,000)
- 수원시(1건) : 총 3,000,000원 → 평화통일 인문학기행(3,000,000)

⑤ 교육후원[목표 : 2천8백만원] => 33,756,350원

⑥ 민족21 경기지사 => 현 6만 원

- 임영희(3만원), 이주현(3만원)

⑦ 일반후원 [목표 : 1천3백만원] => 4,980,200원

5) 2013년 사업 총평

2013년은 박근혜 정부의 취임과 함께 계속된 전쟁 위기와 민주주의의 파괴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막아내기 위한 힘겨운 투쟁으로 점철된 해였다. 민주세력, 평화통일세력에 대한 공안몰이가 상상을 초월하였지만 6.15경기본부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기시국회의'에 참여하여 반전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학교에서의 평화통일교육 중단을 요구하는 수구세력 때문에 사업에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상임대표님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극복하였다.

부정한 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벌리고 있는 중복몰이에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만 가고 있다. 6.15경기본부도 비상식적인 중복몰이를 파탄내고 평화통일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6.15공동선언발표 13주년 기념식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 615인 선언운동, 제1회 평화통일골든벨, 1,168회의 평화통일교육과 10회의 평화통일인문학기행, 1회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다.

다만 앞으로는 교육사업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6.15경기본부 소속단체와의 결속력을 높이고 더 많은 경기지역 제 단체와 연대하여 팍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의 수위를 높일 필요는 있다.

■ 교육사업 평가

- 3년째 접어들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 교육은 새누리당과 수구단체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방해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극복하였다.

- 교육위원회, 교육연구팀 구성, 기행팀 구성, 권역별 모임 운영 등 교육위원회의 체계가 잘 꾸려져 평화통일교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기행팀의 운영을 통해 평화통일인문학기행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해설사 양성이 이루어졌으며 주변에 기행의 입소문이 나고 있다.

- 부설기관 설립으로 이제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이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3년의 교육사업에서 평화통일강사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평화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된 강사가 부족하다. 하여 내년에는 상임교육위원제를 도입을 통한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평화통일교육의 자립 활동영역의 마련도 중요하다.

■ 조직사업 평가

- 팍 막힌 남북관계는 6.15경기본부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2개 단체가 새로이 가입하였으나 3명의 공동대표가 탈퇴하고 2단체가 사고 처리되고 후원금도 상당히 감소되었다. 경기지역의 다양한 계층, 단체, 명망 인사들이 6.15경기본부에 참여하여 경기지역의 가장 광범위한 통일운동 조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듭나기 위한 조직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 6.15경기본부 조직이 살아있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출석률을 높이는 것과 6.15경기본부와 소속단체와의 결함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대중사업, 정책사업 평가

- 연초부터 조성된 한반도 전쟁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기자회견, 거리 캠페인, 1인 시위 등을 진행하였으며 동아시아축구대회의 북한여자축구선수단 응원단을 조직한 것은 시의 적절하였다. 하지만 평화협정체결 운동, 이북큰물피해돕기 등 다른 계기 사업은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남북해외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상황에서 6.15공동선언 13주년 기념식과 기념현수막 달기 사업을 진행한 의미는 있으나 6.15공동선언 기념사업이 좀 더 성황리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6.15경기본부의 소속단체, 경기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지역 전체의 평화통일사업이 필요하다.

- 토론회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대성한다는 의미가 크지만 참가자를 늘리는 문제가 남아 있다.

■ 재정사업 평가

- 평화통일교육사업으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근자들에게 충분한 상근비를 주고 있지는 못하다.

- 경기도와 수원시의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확대 할 수 있었다.

- 기부금영수증 등록단체를 신청하였으나 실무착오로 등록되지 못해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 지금은 전체 재정에서 운영비의 비중이 크고 사업비 비중이 작는데 재정 확충을 통한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

■ 연대사업 평가

- 사안에 따라 지역 연대기구에 가입 또는 참관(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주시국회의)하여 지역에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과가 성과 있게 나오지는 않아 아쉽다.

안건 3. 2013년 결산안 심의의 건

[주문사항 : 2013년 결산안을 심의해주십시오.]

⇒ 별 지

안건 4. 2014년 임원 선출 건

[주문사항 : 2014년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 선출 안 >

임원	이름	소속
상임대표(1명)	윤기석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감사(2명)	이주현	매원교회 목사
	조지훈	범무법인 다산 변호사
운영위원(12명)	김식	경기청년연대 의장
	김성현	정의당경기도당 위원장
	김익영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김주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지부장
	김태년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길용	6.15안양본부 상임대표
	신동선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안영욱	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이상언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본부장
	이종철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임득선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허원	한국노총경기도본부 의장

안건 5. 2014년 사업계획서 심의의 건

[주문사항 : 2014년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 . 2014년 통일정세 전망과 과제

① 박근혜 정권과 민주주의 세력과의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 부정선거의 논란이 확산되는 속에서 전쟁 위기 고조, 주요 공약 폐기, 철도와 의료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민영화 등 국민 생활의 전방위에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반민생적, 반통일적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큰 저항일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 박근혜 정권은 6월 지방선거를 유신 부활의 분수령으로 잡고서 '보수대연합'을 펼칠 것이며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분열과 배제, 공안몰이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② 전쟁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

- 북은 신년사와 중대제안을 통해서 남북 상호간의 비방중상 중지와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며 묵살하면서 2월말부터 키리졸브 훈련,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독수리 훈련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전쟁의 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 있다.

- 조선일보의 '통일은 미래다'라는 연재기사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은 통일의 화두를 지난 대선때처럼 가로채려 하고 있다. 또한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3~4월 위기설을 통한 6.4지방선거 승리 계획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추락하는 지지율과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못해 남북화해와 같은 극적 전환의 분위기를 유도할수도 있다.

③ 약화된 통일역량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 객관적 정세는 매우 많은 활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이끌어가야 할 통일역량, 민주주의 역량은 매우 취약하다. 약화된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경기지역 내의 다양한 계층과 세력들이 하나의 통일역량으로 묶기 위한 연대연합 사업을 부단히 벌이며 통일일군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벌려 내야 한다.

II . 2014년 경기본부 사업 방향

- ① 민주주의 수호와 반전평화,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② 소속단체와의 결속력을 높이고 주변 통일 애국역량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다.
- ③ 평화통일교육의 질적 향상과 자립적 활동공간을 마련한다.

III . 영역별 사업 내용

1. 6.15 공동선언, 10.4선언 대중화 사업

1) 대중사업

① 6.15 공동선언 발표 14주년 기념사업

- 6.15수원본부의 6.15기념행사와 연계해서 6.15 기념사업을 한다.
- 6.15기념식과 토크콘서트 같은 대중행사를 결합하여 대중적 행사가 되도록 한다.
- 각 시군 지역과 단체에서 6.15관련 행사(사진전, 해외 순회 강연회, 캠페인 등)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 사업 개요

- 일시 : 2014년 10월 9일 목요일 14시
- 장소 : 추후 결정
- 참가대상 : 누구나
- 참가비 : 2만원(팀당)
- 참가규모 : 250팀(2인 1조)
- 주최 : 6.15경기본부
- 주관 : 경기평화교육센터

■ 사업 계획

- 3월에 기획단을 구성한다.
- 대학생,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조직에 신경을 쓰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순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 예상문제집을 미리 만들어 배포하며 문제 안에 역사, 시사 내용을 포함시킨다.

③ 정세 대응 관련 투쟁 사업 강화

- 민주주의 수호, 전쟁반대, 평화실현 등 각종 투쟁을 소속단체, 경기지역 제 단체와 잘 협력하여 진행한다. (1인시위, 촛불 결합, 기자회견 등)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응원단 참여 등 계기별 사업을 진행한다.

④ 2014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경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평화와 안보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주제로 3월 25일(화) 오후 2시에 진행한다.

⑤ 북, 해외 교류협력 사업 모색

- 6.15남측위 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해외의 일제강제징용자의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해외 토론회에 참여한다.
- 6.15경기본부와 북이 교류협력 할 수 있는 독자적 사업을 모색한다.
- 2014 6.15해외측 인사 초청 강연회
 - 기간 : 2014년 4월 1일 ~ 4월 15일(2주)
 - 강사 : 오인동(6.15미주위원회 공동대표,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 저자)
신은미('재미동포 아줌마 북한 가다' 저자)
 - 강사비 : 20만원(각각)
 - 강의 형식
 - : 강연시간은 기본적으로 90분으로 한다.
 - : 강의는 한 개 혹은 두 개 모두 선택 가능(단 두 개는 날짜를 다르게)

구분	강의	강사	강의시간
선택 1	강연1 - 내가 본 북한은	신은미	90분
선택 2	강연2 - 통일을 향한 우리의 과제	오인동	90분
동일적용	질의 응답		30분
동일적용	뒷풀이		

- 신청 대상 :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각 시군본부, 부문단체, 기타 등
- 접수 방법 : 강연회 신청서를 6.15경기본부로 제출
- 주최 :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⑥ 6.4지방자치선거 대응 사업

- 평화통일지지 후보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한다.
- 평화통일지지 후보를 선정하여 지지, 지원한다.

⑦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 추수 행사

-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6월 초), 추수행사(11월 초)

2) 선전 여론 사업

① 성명서 발표

- 여러 현안에 대한 6.15경기본부의 입장(논평, 성명서)을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한다.

② 홍보위원회 활동

- 경기민언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지역 대안언론에 평화통일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한다.
- 홍보위원 중에 여성 칼럼자를 추가한다.

2. 조직 강화 사업

① 접촉 확대를 통한 조직의 결속력 강화

- 집행부의 소속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간담회, 단체의 주요행사에 참여한다.
- 소속단체의 회원 연락망(이메일, 문자)에 6.15경기본부의 연락처가 링크되게 한다.
(kg615@hanmail.net)
- 주요 사업에 소속단체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하여 결합 기회를 높인다.
- 각 소속단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일사업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진행한다.

② 조직의 확대, 강화 사업

- 집행위원을 확대, 강화하며 시군본부 건설에 노력한다.
- 상근자 1명 보강과 집행부의 역할과 능력 향상(조직, 교육, 대외, 총무 등)
- 경기지역 제 단체와의 연대 연합을 강화한다.(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회의 참관)
- 경기지역 명망 인사(정치인, 종교인 등)들을 6.15경기본부 고문, 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소식지 발행

- 매월 6.15경기본부 고문, 감사, 지도위원, 후원회원, 공동대표, 교육위원에게 발송한다.

3. 평화통일 교육 사업

1) 통일강사 양성 사업

① 교육위원 5차, 6차 심화과정

- 상반기, 하반기 각각 진행하며 모든 교육위원은 반드시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 5차 심화과정

구분	일 정	사업	비 고
1	3월 18일 10시 ~ 12시	2014 1차 워크숍	14년 교안 점검
2	3월 18일 13시 ~ 16시	강의 1 - 평화와 안보 1	
3	3월 20일 14시 ~ 17시	강의 2 - 평화와 안보 2	
4	3월 27일 14시 ~ 17시	강의 3 - 평화와 안보 3	
5	4월 3일 14시 ~ 17시	강의 4 - 평화와 안보 4	

■ 6차 심화과정

구분	일 정	사업	비 고
1	8월 5일 14시 ~ 17시	강의 1 - 평화와 안보 1	
2	8월 12일 14시 ~ 17시	강의 2 - 평화와 안보 2	
3	8월 19일 10시 ~ 14시	2014 2차 워크숍	상반기 평가, 하반기 계획
4	8월 19일 14시 ~ 17시	강의 3 - 평화와 안보 3	

② 역사노트

- 역사노트 필진을 3명으로 추가하고 3월부터 새로운 주제로 시작한다.

2) 평화통일교육 사업

① 찾아가는 통일교육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
- 교육대상 :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교사,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 교육목표 : 50회 이상
- 추진계획 :
 - '재미있는 평화교실'로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 교육내용

프로그램	교육 대상	교 육 내 용	시 간
평화통일교육	초등 저학년	남한, 북한 그리고 통일코리아	40분
	초등 고학년	큰 안보 생각해보기	40분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상의 법칙	80분
		연극놀이로 만나는 평화	80분
	중학생	세계 속의 통일코리아	45분
		퀴즈로 알아보는 통일	90분

		연극놀이로 만나는 평화	90분
	고등학생	세계 속의 통일코리아	50분
		연극놀이로 만나는 평화	100분
	교사, 시민	통일은 대박이다	90분
평화통일인문학기행	청소년, 시민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당일, 1박
	청소년, 시민	북중려 접경지역 평화기행	5박 6일

② 평화통일인문학기행

■ 사업 개요

- 사업명 :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 기행코스 : 당일코스(강화도, 파주, 철원)
- 소요시간 : 6시간(10시~16시,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은 별도)
- 신청대상 : 청소년, 가족,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누구나(30명 이상)
- 신청시기 : 4월 ~ 11월 말
- 기행 코스 설명

① 강화도

- 주제 : 민족의 아픔을 힐링하다.
- 주요코스 : 광성보, 고려궁터, 강화산성 북문, 강화평화전망대 등
- 협동놀이 : 통일버튼 만들기, 소원지 쓰기
- ※ 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파주

- 주제 : 철의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광개토태왕의 꿈
- 주요코스 : 임진각, 덕진산성, 도라산역, 도라산전망대 등
- 협동놀이 : 통일버튼 만들기, 평화의 균형잡기

③ 철원

- 주제 : 철원에서 안보의 길을 묻다
- 주요코스 : 고석정, 승일교, 월정리역, 철원평화전망대 등
- 협동놀이 : 통일버튼 만들기, 평화의 균형잡기
- ※ 거리가 멀어 경기도 동부지역에서 신청하면 좋습니다.

■ 사업 계획

- 목표 횟수 : 3회
- 재정 마련 :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으로 한다.
- 활용 계획
 -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별 130만원 지원 프로그램(20개 학교)을 잘 활용한다.
 - 경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한다.('안보와 평화의 즐거운 동행')

③ 평화통일 도보순례 추진

- 7월 중순 이후에 6.15서울, 경기, 인천본부와 전교조 서울, 인천, 경기본부 공동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2박 3일의 평화통일 도본순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평화통일교육의 전국적 확산 사업

- ‘전국 통일교육 수련회’를 2회(8월, 1월) 정도 진행하여 서로간의 교수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⑤ 북중러 접경지역 평화 기행

- 남북민간교류협의회와 공동으로 7월 초에 5박 6일(110만원)로 30여명이 북중러 접경지역을 평화기행 한다.

■ 기타

- 경기도 교육청의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교사 연수 등은 경기평화교육센터에서 진행한다.

4. 재정 사업

번호	재정 확대 내역	13년	14년
1	공동대표 확대를 통한 확충	30,000	0
2	고문, 감사, 지도위원 후원금 확충	20,000	20,000
3	후원회원 확충	0	500,000
		50,000	520,000
4	도, 기관 보조금	19,180,000	15,000,000
5	교육후원	33,756,350	23,190,000
6	민족21 경기지사(10명)	30,000	100,000
7	추석 재정 사업		1,500,000
		52,966,350	39,790,000

① 후원회원을 늘린다.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한다.
- 후원금액이 월 50만원이 늘어나도록 노력 한다.

② 재정사업을 한다.

- 추석에 재정 사업을 하여 1백5십만원을 마련한다.

■ 월별 주요 사업

월	주요 사업	비고
1월	- 2014년 1차 워크숍 -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1차 홍보	
2월	- 2014년 총회 -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2차 홍보	
3월	- 전쟁반대 대응 사업 - 찾아가는 통일교육 - 교육위원 5차 심화과정과 1차 워크숍 - 평화통일인문학 기행 3차 홍보 - 25일 2014년 경기지역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제2회 평화통일골든벨 기획단 구성	
4월	- 1~15일 6.15해외측 인사 초청 강연회 - 2014년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시작	
5월	-	
6월	- 6.4기초자치단체 선거 -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 행사 -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 기념사업	
7월	- 북중려 접경지역 평화기행 - 평화통일 도보순례 - 교사연수	
8월	- 8.15대회 - 교사 연수 - 교육위원 6차 심화과정과 2차 워크숍 - 제7회 전국 통일교육 수련회	
9월	- 추석 재정 사업	
10월	- 9일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11월	- 통일쌀 경작지 추수행사	
12월	- 교사 연수	

안건 **6.** 2014년 예산안 심의의 건

[주문사항 : 2014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지**

안건 7.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채택 건

[주문사항 :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번영을 위한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연초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하는 이북의 신년사와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접하며 꿈꿨던 얼어붙은 최악의 남북관계가 해빙되는 한해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에 화답하듯 남북 당국의 노력과 양보로 2010년 10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민족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이산가족상봉’이 우여곡절 끝에 금강산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쌍용훈련 등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시작으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은 바다로 하늘로 각종 핵무기들이 드나들며 우리 국민들을 핵전쟁의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지난 5일 판문점에서 남북이 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을 하는 와중에 미국의 핵전략폭격기인 B-52가 전북 군산 직도일대에서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이산가족상봉 무산을 넘어 작년과 같은 전쟁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한미 군 당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전면전의 전쟁불바다로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세계3차 대전이며 재앙이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공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듯 이 땅 한반도는 평화냐 전쟁이냐, 번영이냐 공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뚝 설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패권 쟁탈전의 열점이 될지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번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비방 중상을 전면 중지하고, 남북관계개선과 정상화를 위한 양보와 노력을 기대합니다.

남과 북이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공생번영하며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소통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했듯, 남과 북은 오랜 분단과 대립으로 정치, 경제적 사회체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랜 분단과 대립으로 생긴 오해와 차이는 만나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치유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은 정치적, 군사적 대립 중단과 동시에 금강산관광재개, 경제협력 등 ‘남북 민간교류’를 폭넓게 확대하고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청산하고 번영과 평화를 위해 남과 북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남과 북은 상호간의 비방 중상을 전면 중단하고 민족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서라.

하나, 남과 북은 서로를 자극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안전장치를 설치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5.24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남북민간교류협력을 전면 보장하라.

우리는 이 땅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쟁훈련 반대’, ‘상호비방 반대’ 그리고 ‘5.24조치 철회’와 ‘남북관계개선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4년 2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별 첨 홍보위원회 2013년 칼럼 목록

■ 1월 - 3편

날 짜	칼럼 제목	칼럼자	소식지
1월 7일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역사다	이종섭	
1월 14일	이념이라는 허상	범상스님	
1월 21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약속한대로만	박영락	2월호

■ 2월 - 3편

날 짜	칼럼 제목	칼럼자	소식지
2월 4일	역사의 죄인들	노세극	2월호
2월 18일	만나서 대화하는 것	박길수	3월호
2월 25일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조기대결	문영희	3월호

■ 3월 - 4편

날 짜	칼럼 제목	칼럼자	소식지
3월 4일	만나고 싶은 리더의 모습	수산스님	
3월 11일	평화의 목소리를 내자	안영욱	
3월 23일	이야기 두편	양훈도	4월호
3월 28일	한-미 방위비분담의 굴욕적 실상	한상진	

■ 4월 - 2편

날 짜	칼럼 제목	칼럼자	소식지
4월 8일	성찰이 필요할 때	범상스님	4월호
4월 15일	민족의 제단에 몸을 바칠 정치인은 한명도 없는 것인가	노세극	

■ 5월 - 3편

날 짜	칼럼 제목	칼럼자	소식지
5월 9일	핵전쟁 불감증	문영희	5월호
5월 14일	신심과 맹신	수산스님	5월호
5월 24일	평화통일교육이 문제인가	안영욱	6월호

■ 6월 - 3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6월 14일	제발 좀 만납시다.	박영락	6월호
6월 20일	신뢰프로세스? 불신프로세스?	양훈도	
6월 27일	짜고 치는 고스톱	한상진	

■ 7월 - 3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7월 1일	춧불이 모든 것을 밝힐것입니다.	이종섭	7월호
7월 11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범상스님	7월호
7월 29일	남북대화의 '성공'을 기도한다	박길수	

■ 8월 - 3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8월 9일	7.27과 8.15사이에서	노세극	8월호
8월 23일	전쟁도 맘대로 평화도 맘대로	문영희	8월호
8월 29일	33년 만에 나타난 내란예비 음모죄	안영옥	

■ 9월 - 2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9월 5일	자업자득 인과응보	수산스님	9월호
9월 23일	전시작전통제권 제대로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되찾읍시다	한상진	9월호

■ 10월 - 2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10월 11일	남북신뢰의 물꼬	양훈도	10월호
10월 31일	내 주먹맛을 볼래	범상스님	12월호

■ 11월 - 4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11월 4일	역사의 봄날을 기다리며	이종섭	
11월 15일	우산 하나	노세극	
11월 21일	희망 만들기	박길수	
11월 28일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문영희	

■ 12월 - 2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12월 5일	진실을 발로 알고, 진실을 얘기하자	수산스님	
12월 19일	안녕하지 않습니다.	안영욱	

□ 홍보위원회 2013년 칼럼 □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역사의 책무이다.

이중섭(615경기본부 홍보위원)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2013년 새해는 그리 희망차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30여 년 만에 과반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매서운 올해 겨울 추위만큼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심리적 추위를 한 번 더 맛봐야 했다. 단순히 심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연이은 노동자들과 통일을 열망했던 청년의 죽음이 이어지면서 심리적 절망은 그것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희망을 기대하며 버티며 살아오다 절망의 끝을 느낀 순간의 선택에 대해 보탬 수 있는 말은 없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고공농성을 하며 이 현실과 추위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마음이 더 걱정이 되는 2012년 말, 2013년 새해이기도 하다.

“제발 죽지 말고 싸우자”라는 말 한마디를 보태고 싶을 뿐이다.

개인의 상처와 절망을 개인이 해결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희망버스가 시동을 걸었고, 서로 이겨내자고 마음을 모으고 있다. 모두가 살아야 한다. 대선의 결과에 대해 여전히 누구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도 있다. 여태까지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고,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다가 실패의 경험만을 쌓아놓지 않았던가.

통일을 한 걸음 더 앞당기려는 노력도 우리 스스로 부족했던 탓이다. 여전히 ‘종북’이라는 딱지를 적극적으로 맞서 걷어내려는 노력보다 피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70년이 넘게 이어온 색깔 덧씌우기가 여전히 우리를 옥죄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고, 부담이 되고, 피하게 되는 부담스러운 문제로 여겨진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2000년의 기억, 2007년의 기억은 단지 과거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잔뜩 긴장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지다보면 작은 일 하나가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전쟁을 막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이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더욱 요동치며 변화될 동북아 정세에서 그 중요성은 더해갈 것이다.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 그것을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준비를 더 아글타글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다.

역사는 방심하면 뒤로 가거나 머물러 있고, 준비하면 앞으로 내딛는 것이다. 가시밭길이 아닌 역사가 없었고, 통일의 역사는 더더욱 그러했다. 역사를 앞으로 발전시키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희망을 얘기하는 것, 희망을 만드는 것은 관념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희망의 문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나갈 때부터 열리기 시작한다. 2013년 일 년, 나아가 5년의 시간 동안 세상은 얼마나 어떻게 변

할지 예측할 수 없다. 서로를 일으키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자. 통일의 관문을 열기 위해.

이념이라는 허상

범상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이념(理念)의 사전적 의미는 “이성에 의하여 얻은 최고의 개념으로, 온 경험을 통제하는 주체”이며, 서양철학에서는 존재자의 원형을 이루는 영원불변의 실재(實在:idea)라고 주장하는 플라톤을 시작으로 칸트에 와서는 형이상학의 본래 대상인 영혼·세계·신의 3가지 개념 즉, 경험을 초월한 선형적 순수이성으로 정의 되지만, 결국 절대적 그리고 실재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형이상학의 근본 물음인 ‘변화하는 자연물 배후에 그 존재근거로서 영원불멸의 실재’를 부정하고, 마음·영혼·생각 등은 대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각자의 업(의지적 행동)에 의해서 형성되며, 그것마저 오염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불교적 입장에서의 이념은 매우 허망한 것이 된다.

형이상학을 부정하는 것은 ‘무한 속의 유한’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리는 아주 미세한 것에서부터 매우 큰 것이 있지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유한의 밖에 있는 ‘인식되지 않는 세계’를 논하는 것은 결코 성스러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염이 되어있다는 것은 ‘유한 속의 무한’의 개념으로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똑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각자의 입장[업]에 따라 다르게 들리므로 결코 내가 인식하는 소리와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소리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절대와 실재로 귀결되는 서양에서의 이념(idea)이 정치현실에서 인간을 자유인과 야만인으로 나누고 “인간은 본성상 폴리스에 살도록 의도된 동물이다”라는 명제아래 이성적 동물인 그리스인만이 정치할 수 있는 본성을 지녔으므로 야만인은 지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근거가 된다.

유일한 정치적 동물로서의 그리스인이라는 주장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선민주의, 제국주의 식민지공간에서 백인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므로 유색인들 보다 우월하다는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백인들은 유색인들을 구원해야 하는 책무를 지녔다는 이념으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선으로 포장하는 서구중심의 사회를 만들었다.

성리학 역시 리(理)와 기(氣)의 논쟁이 치열하지만 “유가 근본이 되어 유에서 실체에 이른다.”는 서구 사상과 달리 “무에서 유로 나아간다”는 입장에서 자연과 인간, 객체와 주체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무상생으로서 모이고 흩어지는 일시적 변화로 이해한다. 그래서 동양은 서양과 같은 극단(이단)의 현실적 행위가 적었다고 본다.

불행하게도 우리사회는 일본의 직접지배와 미국의 간접지배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일본(미국)에 선택된 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만 옳다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여지없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논의는 실종되었고 중북·빨갱이 등의 왜곡된 이념논쟁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필자가 두려운 것은 그들이 말하는 통합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특정집단의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말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약속한 대로만”

박영락(6.15경기본부 홍보위원)

통일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논의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올 해 첫 남북 접촉승인요청을 불허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1월 말,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제3회 인천 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기념 국제 여자청소년 축구대회”에 남한과 북한, 태국과 중국 등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작 남한 선수단은 당국의 불허로 참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집권 5년 동안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것으로도 모자라서 정권 말기 제3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교류마저도 불허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향후 5년 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갈 박근혜 당선자는 철저하게 기업가 정신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동안 박 당선자는 스스로를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소개해 왔으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고 자랑해 왔다. 그래서 상기시킨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 “남북 간 신뢰를 위해서는 우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발표한 공약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존 합의’란 말 할 것도 없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기본원칙을 만천하에 천명했던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남과 북이 합의한 것을 지키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전면적 생사확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약속이 급조된 것은 아닌 것 같다. 박 당선자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당선되기 전에 이미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합의한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2002년 5월 11~14일,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1시간 동안 면담하면서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와 남북 축구 대회 등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해서 합의하지 않았는가? 통일부에 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사망하고 이제 7만 명 정도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약속도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 양치기가 되어 버리고 만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약속한 대로만 하기를 바란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약속을 상기시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겸손히 귀 기울이면 될 것이다. 부디 어린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한다.

역사의 죄인들

노세극(615 경기본부 홍보위원)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닐 것이다. 작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재미도 없고 우울한 나라가 되었다. 며칠 전 김용준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더니 아들 명역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사퇴하고 말았다. 현재 소장 출신에다가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 무난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아들 병역문제가 불거지자 청문회에서 통과가 자신 없었던지 슬그머니 물러나고 말았다. 안보를 소리 높여 외치는 보수층들은 정작 자신이나 가족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 율배반적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던가? 위장전입 공금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현재 소장 후보자 자리를 깨끗하게 지키고 있는 이동흡의 행보로 인한 논란이나 인수위 대변인에 임명된 극우 논객인 윤창중에 대한 논란을 보더라도 박근혜 당선자의 시각을 읽을 수 있고 차기 정부도 별 볼일 없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실망하고 걱정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한 후 북한이 전면대결전을 선언하며 3차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정밀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등 한반도의 기류가 심상찮게 돌아가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자의 입장은 그저 북한 핵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거나 핵실험으로 얻을 것이 없다는 등의 하나하나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가 후퇴를 거듭하다 완전히 파탄 난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전까지 벌어진 마당이라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인데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그러한 기대도 접어야 할 것 같다.

적어도 이번에는 민족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나라와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고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기를 고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역사의 죄인들이다. 적어도 진보정치권에 몸담았거나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각을 가져야 한다. 진보가 구심을 잃고 분열과 자중지란 속에 스스로 붕괴해 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보수의 득세를 가져왔다. 통렬한 자기 성찰과 반성 없이는 거듭날 수 없을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교류 협력하며 연대해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임에도 대결과 대립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수구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은 오직 타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뿐 교류 협력의 상대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미국이 선이며 북은 악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북미 대결의 역사에서 미국이 보여준 일관성 없는 정책이나 지키지 못한 협약이나 협정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등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습성으로 인해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도 빨갱이로 낙인찍더니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지 않은 48%의 국민들을 빨갱이로 모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런 정신병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역사의 후퇴를 막고 역사가 순리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의 죄인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며 조국과 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몇몇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올해 7월 27일이 되면 휴전 즉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상에 전쟁을 3년 동안 치른 후 잠시 쉬다는 개념인 정전상태로 60년을 보내다니 이것이야말로 웃기는 일 아닌가? 역사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없을 때 이러한 비정상이 당연시 되는 풍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의 죄인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정도이다

박길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나는 '동학민족통일회'라는 통일운동단체 집행위원으로서 지난 해 11월경에 개성에서 북측의 '천도교청우당중앙지도위원회' '동덕(同德)'들과 오랜 만에 실무 접촉을 한 바 있다. 그때 '우리(남과 북의 천도교 통일 부문 일꾼들)'은 거의 1년 만에 성사된 남북한 천도교 접촉에 감격하면서, 특히 그 사이 남과 북 모두 통일운동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진 바, 새롭게 충원된 성원의 상견례와 더불어 남과 북 천도교 어른들의 안부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실무적인 내용으로는 현 정부(이명박 정부) 시기에 극도로 경색되었던 남북한 간의 교류 활성화와 통일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가늠해 보고, 특히 12월로 다가온 대선 이후의 통일운동의 전망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원활하게 진행되기에 앞서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던 사안은 상호간 소통의 단절로부터 야기되는 '오해'와 관련된 것이었다. 현재 남과 북의 천도교 사이에는 제3국을 경유한 연락망이 개설되어 있는데(당국의 허가를 받아), 이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실수나 절차상의 허점도 상대방에게는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한, 그것도 유선 연락이 아닌 팩스를 통한 연락이고 보니 정확한 의사 전달이나 피치 못할 기술적 문제로 인한 연락의 차질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랜 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처음에는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끝 무렵에 가서는 배꼽을 잡고 웃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직접 만나서 한두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실수이거나 불가피한 차질에 불과한 일들이,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눈덩이처럼 큰 문제로 비화하곤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아무튼 그날 남과 북의 통일 일꾼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즈음에는 통일운동의 방향이나 환경이 지난 몇 년간보다는 훨씬 달라진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고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이 시점의 상황만 놓고 볼 때, 그때 우리들의 전망은 너무도 안일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때 우리들이 서로 합의한 '낙관적 전망'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것만은 아니었고, 다분히 '기원적(祈願的)인 전망'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점은 달라질 바가 없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가 점입가경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이고 심지어 EU에서도 북의 핵실험을 우려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와중에 한국의 주류 언론들의 반응이야 새삼 반추할 필요가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매체들조차 '북 핵실험은 북한 정권의 오판'이라는 피상적인 패러다임에 갇힌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지난 20여 년간의 북미관계 개선 시도와 6자회담 노력, 남북 화해 협력 정책 전체가 오류였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도 핵무장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고 보면, 현 상황이 결코 녹록한 국면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이 터졌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똥 편 놈이 성내는 식의 그러한 결과론을 따라하는 것이 언론의 정도는 아닐 것이다. 아무리 시끄럽고 위증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차분히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사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언론은 물론 정책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연후에, 그러한 대안과 사태 해결 노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지나온 행로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행스런 것은 이러한 '표면적인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하고, ‘한반도의 핵 재무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눈을 돌리는 흐름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여주는 안정감(?)이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한 좋은 징조가 아닌가 한다. 어떤 신문에서는 북 핵실험 직후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너무 안심한 것이고, 지난 정부(김대중-노무현) 시기에 잘못 심어준 환상 때문이라며 질책하기도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반대이다.

앞에서 필자의 최근 경험을 통해 이야기했듯이, 사실 북의 핵문제는 최근 몇 년을 제외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했듯이 남과 북, 그리고 그 밖의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도이다. ‘대화한 결과가 현재의 3차 핵 실험’이라는 식의 진단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누구도 한반도의 ‘핵무장’을 바라지 않는다. 심지어 지금 가동 중인 핵발전소조차 멈추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판에 ‘핵폭탄’이라는 것은 정말 가당찮은 것이다. 나는 여전히 현재 한반도의 ‘핵 상황’이 비가역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통일되면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만남과 대화의 국면이 가능해지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펴 나가는 데서부터 이 문제의 해결은 시작될 것이다. 아니, 상대방의 입장을 ‘일단’이라도 이해하는 정책을 택하는 데서부터, 만남과 대화 국면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분명 위기이다. 그러나 이 위기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도사리고 있다고 믿는다.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60년간의 朝-美대결'

문영희(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는 3월 1일부터 두 달간 실시되는 연례 한미연합 군사작전 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은 처음으로 우리 군 주도하에 실시된다. 이 합동지휘소연습은 지금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이를 주도해 왔지만 이번만은 한국군 합참이 훈련의 계획으로부터 진행까지 도맡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3500여 명에 주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덴마크, 영국, 호주, 콜롬비아, 캐나다 등 5개국 일부 병력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을 띤다.

봄만 되면 우리 남쪽 산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태평양을 건너온 미군들의 전쟁연습장으로 변한다. 그런데 올해는 그 연습의 규모나 기간 등이 유난히 길고 시끄러울 것 같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이 핵보유국들이 반대하는 인공위성과 지하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한 미국 측의 신경질적인 반응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그것은 남쪽 인민이나 미국 측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은 왜 국제사회의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핵실험을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중국 언론을 통한 중국의 입장을 알아본다. 지난 2월 18일 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한국어판에는 '조선 핵실험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기사가 실렸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의 핵실험 문제에서 미국은 마땅히 더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 역사적 경험은 무력과 제재 위협은 한 나라를 굴복시킬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피해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더 편중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더구나 조미(朝美)간 60년 적대 관계의 악과(惡果)가 바로 북의 핵실험"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 지식인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북 핵실험과 관련한 인민일보 보도를 더 따라가 보자.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시은홍 교수는 "조선 핵실험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한 일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문제에서 해당 국 모두 의무가 있다. 조선의 핵실험 고집은 각국의 노력이 모두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시사해준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연구원 도문소는 조선의 제3차 핵실험 후 발표한 글에서 "중국은 조선과의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많은 나라들의 질타를 받고 있고 조선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은 유엔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중국과 조선사이의 경제무역관계는 두 이웃나라 사이의 정상적관계이다."

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류영강 부원장은 일부에서 거론하는 "대북정책 실패론은 전혀 도리에 어긋난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고 계속 견지해야 한다. 그는 또 조선의 핵실험이 노린 것은 중국도 한국도 아니라 미국이다. 이 문제에서 마땅히 미국, 한국과 일본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미한일은 더욱더 반성을 해야 한다. 제재 또는 고압정책은 조선이 핵실험을 계속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원종택 부소장은 "현재 동북아정세는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고, 게다가 자체의 군사력 역시 만만치 않아 이중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안전압력은 미국으로부터 오기에 핵위협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유엔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그 답이 6자회담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회담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로 대결하는 한 7천만 인민의 숙원인 통일문제는 그만큼 꼬이게 된다.

반통일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가 물러났다. 박근혜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통크게 평화협정 추진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이 방법은 북한으로부터는 핵 양보를 받아내고, 미국 그리고 남한은 북의 핵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60년 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나고 싶은 리더의 모습

수산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히 뛰어난 10분의 제자를 일컬어 10대제자라고 부른다. 그 가운데 흔히 다문제일(多聞第一)로 알려진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마지막 25년을 함께 하셨던 제자였다. 그런데 ‘아난’이 처음부터 곁에서 시중을 들었던 시자(侍者)였던 것은 아니다. 부처님을 보좌하고 시중을 드는 요즈음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자는, 처음에는 제자들 중에서 뛰어난 분들이 번갈아 맡았지만 그 중에는 부처님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었기에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시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부처님께서 사촌동생이기도 한 ‘아난’을 옆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아난’에게 시자로써 부처님을 모시도록 간곡하게 권유하게 되었다. 완곡하게 사양하던 ‘아난’은 결국 제자들의 희망을 받아들여 다음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새것이든 헌것이든 부처님을 위해 만들어진 의복을 받지 않겠다. 둘째, 부처님께 올려진 음식을 받지 않겠다. 셋째, 일정한 시간이 아니면 부처님을 만나 뵙지 않겠다.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용인으로 드디어 부처님의 시자가 된 ‘아난’은 이후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까지 늘 곁에서 보좌하며 정성껏 모시게 되었다.

그런데 왜 ‘아난’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던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난’이 의복이나 음식을 탐내었기 때문에 시자가 된 것이라고 비난하게 됨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때를 잘 알아 부처님을 뵈는 때와 부처님이 설 때를 구별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시자가 된 ‘아난’은 이후 25년간 추호도 오만한 마음을 내는 일이 없고, 한 번도 부처님께 꾸중을 들은 일도 없이 맑은 바의 소임을 충실히 지켜냈던 것이다.

오늘날의 직책으로 본다면 비서실장의 역을 맡았던 ‘아난’이었지만 그가 제시한 조건은 자신만이 특별 취급을 받지 않고, 또한 언제든지 부처님을 뵈고 공금증을 풀 수 있는 등의 특권을 갖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이다. 부처님의 눈귀가 되고 손발이 되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시자로써의 경계를 넘지 않았던 ‘아난’은 특히 오늘날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리더십이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며 타인이 조직의 효과성과 성공을 위해 공헌하도록 만드는 개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고위공직자를 보기를 원한다. 지금 새 정부의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로 정국이 시끄럽다. 이명박 정부의 청문회에서 반복되었던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도덕기준의 파괴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는데, 잠시나마 가졌던 새 정부에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작은 희망 역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자신의 조국을 닳아빠진 국가요 온통 가난만 지배하던 국가라는 기억을 갖고 있으며 군복무를 통해 자신에게 미국이 진정한 조국이고 자신이 정말로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분의 장관직 후보의 사퇴가 1,000억 원에 이르는 ‘국적 포기세’와 사생활 공개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었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겠다는 분이, 다른 많은 의혹은 차치하고, 천안함 사건 직후 국가에도 기간 중에 골프를 즐겼거나 연평도 포격 다음날 친구들과 일본으로 부부동반 온천여행을 다녀온 일이 없었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북한군의 군사위협에 대하여 도발 시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최선의 대응인지 의문이다. 남과 북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치닫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정치적 해결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기에 이런 민감한 시기에 북한을 자극하는 한미군사연습은 너무도 아쉽기만 하다. 북한의 핵실험은 강력히 규탄해야만 한다. 그리고 전쟁연습도 중단해야 한다. 한미동맹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말하지 못하는 리더가 팔로워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상식을 지키며 비전을 천명하고 가치를 구현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을 지닌 리더가 보고 싶다.

평화의 목소리를 내자

안영욱(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94년 전쟁위기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렇게 엄중하지 않은 것 같다. 너무 평온한거 아냐 하는 당혹감마저 든다. 작년 12월 12일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유엔은 지난 1월 22일 2087호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서 다시 북은 지난달 12일에 3차 핵실험으로 대응 하였다. 그리고 유엔은 지난 7일 더 강력한 2094호 대북제재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였다. 북은 이미 유엔의 대북제재가 되면 2차, 3차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황이다.

서로 공방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방의 끝은 결국 물리적 힘겨루기 밖에 없다.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국민들이 죽어가고 고통 받는 것은 확실히 알겠다.

오늘날의 전쟁은 그저 총알 몇 개, 대포알 몇 개 오고가는 수준이 아닌 핵포탄이 오고가는 전쟁이다. 민족의 공멸을 가져오는 전쟁이기에 전쟁을 막아야 한다.

이번 3차 북핵 위기는 북의 우주 이용권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본질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은 북이 붕괴할 것 같아서 경수로 건설과 중유 제공을 차일피일 이행하지 않았고 북은 98년 광명성 1호 발사로 대응하였다. 2005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 세탁에 대한 문제 제기로 9.19공동성명 이행이 어렵게 될 때 북은 2006년 핵실험으로 대응하였다. 오바마 1기는 전략적 인내라면서 북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할 때 북은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대화를 촉구했다.

북미간에 위기-대응-합의-파탄-위기라는 주기가 길게는 60년, 짧게는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장기간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위기가 일상화 되었고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사태에 대한 심각성보다는 또 반복되는 북미간의 말싸움 정도라고 치부하는 위기 불감증이 커졌다. 주가 폭락이 없음이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난 20년 동안은 북이 방어적 자세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하였지만 지금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결판을 내겠다는 공격적 자세로 나서고 있어 사태가 엄중해 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북미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서로간의 행동대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 다시 반복되는 협상이 아닌 항구적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평화협상이 되어야 한다. 이제 북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실질적 핵보유국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의 북이 아니다. 북미 서로가 대화의 파트너로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평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제 정전협정은 60년으로서 생을 마치고 평화협정 체결로 새로운 사회가 열려야 한다.

지금 당장 할 일은 한미 두 정부가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시작하자고 북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평화의 목소리를 울릴 때이다. 그것도 크게 울려야할 때이다.

이야기 두 편

양훈도(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이야기 하나

꿩 무리와 닭 무리는 원래 사이좋게 살아가는 숲속의 이웃이었다. 이들은 힘을 모아 여우 족제비 뱀 독수리의 공격을 막아내곤 했다. 그러나 희생당하는 꿩과 닭이 갈수록 늘어나자 긴 토론이 벌어졌다. 닭은 사람들 마을로 내려가 살자 했다. 꿩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옥신각신 끝에 닭들은 마을로 내려가고, 꿩들은 남았다. 이때부터 두 무리는 원수가 되었다. 혹여 길에서 만나면 맹렬하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꿩 무리의 막내 ‘긴꼬리’는 어느 날 외출했다가 족제비에게 물려 죽을 뻔했다. 간신히 도망치긴 했으나 정신을 잃었다. 쓰러진 ‘긴꼬리’를 암탉 ‘빨간벚’이 우연히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정성껏 돌봐 준다. 하지만 꿩들은 ‘긴꼬리’의 실종을 닭들 짓이라고 오해한다. 꿩 대표인 좌상꿩은 닭들에게 ‘긴꼬리’를 당장 돌려보내라고 호통 편지를 띄운다. 닭의 우두머리 ‘금빛수탉’이 직접 나서 건강을 회복한 ‘긴꼬리’를 데려다 준다.

‘긴꼬리’는 엄마꿩에게 닭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엄마꿩은 한마디도 믿지 않고 오히려 ‘긴꼬리’를 나무란다. 꿩과 닭이 100년 이상 갈라져 살아오는 동안 쌓일 대로 쌓인 나쁜 감정과 불신 탓이다. 그래도 가서 직접 한번 보라고 간곡히 권유하는 ‘긴꼬리’를 따라 닭마을에 가본 엄마꿩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뒤이어 ‘금빛수탉’이 좌상 꿩을 찾아와 이제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다시 사이좋게 살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좌상 꿩은 못 믿겠다며 거절한다.

#이야기 둘

긴급 어전회의가 열렸다. 북쪽 왕국에서 쏘아 보낸 포탄이 남쪽 왕국 궁궐에 하나, 각 도시 시청 마당에 하나씩 떨어졌기 때문이다. 포탄이 터지지는 않아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모든 포탄에는 ‘꽃의 뿌리’라는 북쪽 왕국 말이 쓰여 있었다. 남쪽 군인들이 조심스레 열어보니 정말 온갖 종류의 꽃을 피우는 풀과 나무의 뿌리가 한가득이었다. 그래도 행여 독초인지 의심스러워 즙을 짜서 짐승들에게 먹여보았으나 멀쩡했다.

남쪽 왕은 애꿎은 수염만 배배 꼬며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대응한다? 이 때 한 신하가 나섰다. “예부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습니다.” “?” “우리는 꽃씨를 담은 포탄을 쏘는 겁니다.” 다음 날 북쪽 왕국의 궁궐에 하나, 각 도시 시청 마당에 하나씩 포탄이 떨어졌다. 역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고, 포탄 속에는 온갖 종류의 꽃씨가 가득 들어 있었다.

북쪽 신하가 왕에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긴 것이옵니다.” “?” “우리가 선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별소리를 다 하오. 이런 일에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소?” 북쪽 왕은 꽃씨 포탄을 한참 드러다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졌소.” “무슨 말씀이시옵니.” “꽃의 뿌리보다 꽃씨가 열배는 많지 않소.” “임금님께서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에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바탕 웃음이 일었다.

첫째 이야기는 북쪽의 동화작가 김우경이 쓴 <어린 장끼와 금빛수탉>이고, 둘째 이야기는 남쪽의 동화작가 김성도가 쓴 <대포와 꽃씨>다. <어린 장끼와 금빛수탉>은 북한 유일의 아동문학잡지인 『아동문학』 1981년 10월호에 실려 있고, <대포와 꽃씨>는 『100년 후에도 읽고 싶은 한국명작동화』에 수록돼

있다. 두 동화의 결말은?

‘금빛수탉’의 무리는 한겨울 양식이 떨어진 꿩들을 위해 눈밭에 콩을 뿌려준다. 꿩들은 독이 든 콩이라 의심하지만 닭들의 선의를 아는 ‘긴꼬리’가 먹어보이자 믿게 된다. 마침내 꿩과 닭은 화해하고 옛날 처럼 좋은 사이가 된다. 꽃포탄 사건 이후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은 사신을 교환한다. 사신들은 서로 가보지 못했던 땅에 가서 자기들 나라에는 없는 귀한 꽃나무를 얻어 돌아온다.

지난 21일 평양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 같은 날 연평도에서는 ‘실제상황’이라는 방송 때문에 일대 피란 소동이 벌어졌다. ‘핵 불바다’ 위협이 연일 쏟아지고, 핵잠수함이 출몰하는 이 시기에 동화는 무력하다. 하지만 동화 세계가 잘못된 것인가, 현실 세상이 잘못 된 것인가. 남이든 북이든 자기 마음속 염원을 더 이상 속여서는 안 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굴욕적 실상

한상진(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이제 다음 달 4월부터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한-미간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를 한국이 지원하는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그 심각한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해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중 일부를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라는 겁니다. (정식명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소과협정 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

2012년에는 8361억 원을 주었습니다.

한-미SOFA에 위배되는 이 협정은 3~5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해서 갱신하는데,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정의 갱신을 위해 협상을 한다는 것은 폐기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만...

미국은 경제위기로 인한 국방예산 대폭 삭감의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미군에 준 방위비분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1991년부터 2012년까지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0조 7553억원.

2008년 현재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 가치가 10조 원을 상회한다니 그 동안 퍼준 방위비분담금이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주요한 무기, 장비를 사들일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방위비분담은 특별조치협정을 맺어서 지원하는데, 이는 한미소과 위반입니다.

한미소과 5조 1항은 주한미군의 경비(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소과의 이 규정을 정지시키고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죠.

따라서 이 특별조치협정은 모범인 한미소과를 원천적으로 위배한 불법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에 돈을 주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뿐이라네요.

이처럼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특별조치협정이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니, 이제는 폐기하고 돈도 그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위비분담금은 한미소과에만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방어로 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의 임무는 대북방어가 아니라 중국을 포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

계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월 한미 당국자들이 합의한 것인데, 이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 주한미군 구조 및 전력 개편, 해공군 중심 운영으로의 주한미군 전력 및 조직 구조 개편, 주한미군 근무형태 변화가 이루어지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미소파에 위배되고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기에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되는 방위비분담금!

게다가 주한미군이 한국방어가 아닌, 오로지 자국의 세계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주둔하게 되었는데 왜 그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합니까? 이제 주지 맙시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10 년간의 민주정부의 대북지원을 북한 퍼주기라 비난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2조 366억 원입니다. 무상지원으로 1조 1,651억 원, 식량차관으로 8,715억 원입니다. 쉽게 환산하면 우리국민 1인당 1년에 자장면 1그릇 지원한 셈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에 직간접적으로 퍼 준 금액은 29조 150억 원이 됩니다. 무려 대북지원금의 14.2배가 됩니다.

우선은 지면 관계상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의 불편한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긴장과 갈등을 넘어 선 이 위기가 슬기롭고 평화롭게 넘어가 근본적 해결책인 당사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방위비 분담의 불평등함과 주한미군 주둔의 불필요성의 드러나 평화협정의 길로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찰이 필요할 때

법상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전쟁의 포화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만을 피해가지 않는다.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범죄는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다.

인터넷 상에서 극우사이트라고 알려진 ‘지만원의 시스템클럽’나 ‘일베저장소’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이버공간 곳곳에 남북긴장을 넘어 전쟁을 옹호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편가르기식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정보를 양산, 유포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부분 걸러지고는 있다. 그렇지만 정보의 양과 분포에서 본다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유통시키는 일종의 직업군(職業群)이 존재한다는 생각이들 정도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인간의 심리에는 “지금까지 행동해온 것과 일관되게 혹은 일관되게 보이도록 행동하려 하는 거의 맹목적인 욕구”가 있다고 한다. 이것을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다니’는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러한 선택이나 입장과 일치되게 행동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부담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전에 취한 선택이나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살펴보았듯이 단 한번이라도 전쟁을 옹호하거나 편가르기식의 주장을 했던 사람은 일관되게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논리와 행동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주변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집요해지고 강화되어지면서 정예화 되어간다. 그래서 비록 극소수라 할지라도 일단 문제를 일으키면 그 폭발력은 사회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한 극우 민족주의인 ‘나치주의’가 있고, 최근 일본의 극우 단체 반한집회에서 “한국여성을 강간하자”거나 “대학살을 감행하겠다”는 발언과, 강제추행을 당한 여동생에 대해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이슬람 근본주의 등 이러한 행동들은 편협된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6.25전쟁을 전후해서 극과극의 대립을 경험했다. 그 중하나가 전쟁 중에 일어난 “국민보도연맹사건”이다. 보도연맹은 1984년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이유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 보호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다. 그런데 본래 목적과 달리 지역할당제를 실시했고, (이승만과)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반강제로 가입시켰다. 이러한 와중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승만 정권은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점령지에서 북한군에 협조할 것이라며, 군경과 서북청년단을 동원해서 즉결처분하였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이 최소 20만에서 최대 100만 명으로 추산 된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와 가신에 대한 성찰(省察)이 필요하다. 성찰은 철학에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요즘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치권과 국민모두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민족번영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

민족의 제단에 몸을 바칠 정치인은 한명도 없는 것인가?

노세극 (615 경기본부 홍보위원)

일전에 미국과 호주에 오랫동안 살다가 오신 분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 분의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비행기타고 빨리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전화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분은 아들한테 여기는 별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안심시켰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한반도 상황이 전쟁일보직전으로 보도되었는데 정작 반도의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무사태평 무감각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한반도 남녘 사람들의 이러한 이상하리만큼의 전쟁에 대한 무덤덤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는지 뉴욕타임스 등 외국 신문들이 전쟁불감증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사실 오늘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단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구조적 위기 속에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알고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북한에서 최근 들어 저렇게 살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고도 하지 않는다. 대체로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고 공멸인데 그러한 무모한 불장난을 누가 일으킬 것인가?’ 하는 단순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의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 하고 있는 상황여서 치열한 생존 게임인 경제 전쟁이야말로 현실적인 것이고 군사 전쟁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일상이 다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무관심과 무지의 소치일수도 있고 단순하고 소박한 바램일수도 있으며 냉철한 현실 분석의 결과일수도 있다. 대다수 일반국민들이 전쟁 불감증 상태에 있다고 해서 이를 개탄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달라야 한다. 그들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겠다고 나선 사람들로써 국가의 정책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다. 그런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진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므로 전쟁의 가능성이 1%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 미연에 방지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 전쟁이란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치인도 이를 막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쟁이 정치의 다른 표현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전쟁이란 말이 운운되는 상황이 정치가 잘못되어 나온 현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잘못된 정치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공멸로 가는 전쟁의 길이 아닌 다 같이 공생하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몸 바칠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다. 첨예한 대결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대화를 주선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미국 편에만 서서 북한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잘못되면 지적하고 북한의 입장이 옳으면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정말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민족의 제단에 한 몸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인이 한명이라도 있는가?

오늘의 위기는 작년 12월 12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로 끌고 갔다. 여기에 반발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미국은 다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였다. 이러한 서로 주고 받기 식 상대 압박 전술을 구사하다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인 키 리졸브 군사훈련 기간 중에 핵잠수함과 핵폭격을 단행할 수 있는 B-52 전략 폭격기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스텔스기 등 고성능 무기들을 동원하여 북한을 위협하자 북측에선 전쟁불사의 강경 발언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북미 간의 첨예한 대결 국면에 남한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였으며 이렇다 할 전략도 방침도 없이 청와대와 통일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는 등 혼선만을 가중시키며 오락가락 하였다. 그 와중에 개성공단의 문이 닫혀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은 핵을 가져도 되고 북한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 미국은 인공위성을 수 백개 쏘았지만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당연히 평화협정을 맺어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맺자는 주장을 거부하는 측이 누구인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춘래불사춘이라고 봄은 왔지만 민족의 봄은 오지 않았다. 아직도 긴장과 대결의 살얼음판은 계속되고 있다. 전쟁은 아주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 전면전은 물론이고 국지전도 막아야 한다. 이러한 팽팽한 대치국면 속에서 자신의 한 몸을 던져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위해 나설 정치인이 없단 말인가? 대통령은 물론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 그러한 인물이 없다면 이야말로 민족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민족의 내일을 위해 정치인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핵전쟁 불감증

문영희(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두 달 동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 속에서 보냈다. 바로 이런 위기는 한. 미 양국군이 한반도에서 공동으로 벌였던 군사연습으로 촉발된 것이었다. 이 소동 속에서 북한군이 장군하면 한국과 미국은 명군으로 맞섰다. 외국의 언론들은 세계의 화약고인 한반도 핵전쟁 연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한민족은 핵전쟁 불감증'에 걸렸다고 비아냥거렸다.

한 미연합군이 남한 땅에서 군사훈련을 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 올해 훈련은 유난히 길고 시끄러웠다. 미 본토로부터 B-2 같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투기, 역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투함을 비롯한 지상군 등 사상 유례 없는 전투력이 한반도의 지상, 공중 그리고 해상에서 북한을 상대로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 측이 당황하고 긴장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이런 일련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는 물론 북한 측의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남한 측의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미는 굳건한 군사동맹관계를 가진 나라이다. 더구나 미국은 3만 명가량의 지상군을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다.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놓고 답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는 일은 어찌하면 무의미하다. 양측은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건 자기 측이 위험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한다면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열전상태로 되돌리면 그만이다.

한 미 양국이 북한을 불신하는 이유는 핵무기 개발이다. 핵 개발의 원인을 둘러싸고 양측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한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원칙을 꺾었다는 것이고,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억제한다며 저항한다. 이에 대하여 중국의 여론은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하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긴장국면이 소강상태에 들어선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양국은 '한 미군사동맹 60년 기념선언'을 발표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대북관계를 반복하였을 뿐이다. 역지사지할 때 북한의 입장은 자명하다. 미국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체제를 보장할 의사는 전혀 없이 핵무기만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면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것이니 그들의 기질상으로도 들어주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8도인의 기질이 서로 약간씩 다르다. 특히 북한지방의 대중을 이루는 평안도와 함경도인의 기질은 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안도 사람은 맹호출림(猛虎出林)형이고 함경도 사람은 이전투구(泥田鬪狗)형이라고 불려왔다. 맹호가 숲에서 나왔으니 먹이사냥에 혈안이 될 것이고, 개가 진흙탕에서 싸우니 말릴 재간이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아집이 강하고 전투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배고픈 호랑이에게는 적당한 먹이를 주면 족하고, 싸우는 개는 지칠 때까지 가만 놔두면 조용해지는 법이다.

오래 전부터 은둔 중이던 전 쿠바 실력자 피델 카스트로(1926년 생)가 한반도 핵전쟁 위협이 얼마나 걱정스러웠는지 지난 5일(현지시간) 관영 기관지인 '그란마'에 '한국에서 전쟁을 피해야 할 의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과 남한 어느 쪽도 이득이 없는 끔찍한 살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지구촌 인류의 70%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인구 밀집지역에서 벌어질 터무니없는 전쟁의 심각성을 비난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한반도 핵전쟁의 가능성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이를 막을 책임은 남북 양측의 민중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민중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설마 핵전쟁이 나겠는가 하고 방심한다면 남북 민중은 공멸하는 일밖에 없다. 핵전쟁 피해자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우리 민중이다. 국내의 지배층 1%는 전쟁 나면 다 외국으로 도망갈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의 전쟁불가피론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신심과 맹신

수산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무엇인가를 옳다고 믿는 마음을 ‘신심(信心)’이라 한다. 특히나 종교에 있어서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 물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불편함 없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한다. 그런 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교세확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 람들에게 “나를 존경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내 말을 따르지 말고 비판적으로 시험해 본 뒤에 받아들여 라.” “스승을 따르지 말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라. 스승의 말을 따르지 말고 그 말의 참 뜻을 따르라.” “직접 경험해 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두루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마라.”라고 강조하셨다. 기 본적으로 부처님은 당신이 길이요 생명이며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포교나 선교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불편함이나 아 픈이 아니라 편안함과 도움을 주는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오늘날 종교로 일컬어지는 가르 침은 몰라도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주어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존경해 줄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 이웃 종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존경할 때 다툼이 나 혼란 그리고 전쟁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수백 만 건 이상의 조회수로 관심을 주었던 민족문제연구소의 다큐 ‘백년전쟁’에 대해 이승만 전 대통 령의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니 다큐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한 반론이라는 것들이 사실에 입각한 사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 도가 아니고 이런 의도였다.’라는 식의 자기주장에 그치고 있기에 안타까움이나 실소를 넘어 불쾌한 느 낌이 든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하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자손들이 그 잘난 선조들의 재산을 찾 겠다고 소송하는 웃기지도 않는 시대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이견 도저히 아니지 싶다. 예를 들어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오원춘이 불우이웃 돕기에 성금을 보냈다고 그 죄를 묻고 선형을 기리자고 한다면 피해자 가족이나 그 뉴스로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군사독재 시절 빨갱이로 몰아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더니 이제는 ‘중복좌파’라는 희한한 용어를 들 이대고 있다. 국회의원의 20%가 중복세력으로 그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는 좋은 세상이다.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어 비웃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럽힌 대통령의 얼굴이 었던 윤모씨 사건도 친노중복세력 때문이기에 의병장으로 새 출발하라고 두둔하는 정신없는 사람도 있 긴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건마다 이데올로기의 낙인을 찍어 비난하고 매도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런 맹신도들이 참 안쓰럽다.

불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른 일(행동)’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 이다. 그러나 바른 일(正業)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시야(正見)’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내 안경 의 빨간색 렌즈를 통해 바라 본 세상은 본래의 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덧붙인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교에서는 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진정한 리더로 본다. 그런데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는 바른 시야를 갖고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왜곡된 시야로 사람을 잘못 선택하여 벌어진 상 황임에도 정작 본인의 잘못된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얼마나 더 지켜보게 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사람은 자신의 욕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만 행복해 질 수 있다. 도덕적으 로 바른 결정을 내릴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것 자체가 나 뿐 행동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 모든 사람들이 맹신에서 벗어나 바른 신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평화통일교육이 문제인가 ?

안영욱(6.15경기본부 홍보위원)

6.15경기본부는 2013년 경기도교육청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기관으로 선정되어 5월부터 경기도 초중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의 몇 사람들은 6.15경기본부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 평화통일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이분들의 우려에 대해 심분 이해하면서 6.15경기본부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못 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분들은 6.15경기본부의 평화통일교육을 참관하고서 어디가 잘 못 되었다고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지금은 6.15경기본부의 평화통일 수업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6.15경기본부’라는 단체 이름에 문제가 있으니 당장 중단하라고 하니 황당할 수 밖에 없다.

2011년 6.15경기본부가 학교에서 처음 평화통일교육을 시작할 때도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수업 중단요구가 있었고 뉴라이트 수원지부 학부모회라는 곳에서는 참관수업을 해서 채록과 사진 촬영을 하였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다. 또한 2011년, 2012년 경기도교육청 자체의 교사, 학생들의 모니터링 결과 평화통일교육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 이것은 6.15경기본부의 평화통일교육이 매우 유익하고 청소년들이 좋아했다는 반증이다.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다르며 통일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통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합일점을 찾아나갔으면 한다. 합일점을 못 찾는다면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더 대화하고 대중들로부터 검증을 받으면 될 것이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없어져야 할 대상은 아니다. 틀린게 아니라 다른 뿐이다.

해가 갈수록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생각은 늘어가고 있다. 이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게 6.15경기본부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이다. 청소년들이 평화의 감수성을 깨우치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통일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6.15경기본부는 평화통일교육의 즐거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모둠별로 진행하는 참여 수업,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모둠별 참여 수업을 위해서는 학급별 수업이 제일 좋으나 학교당 제한된 수업시간 때문에 몇 개 학급만 진행하거나 방송 수업, 체육관 수업 등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6.15경기본부는 될 수 있으면 학급별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봉사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사실 북한은 안보의 대상이기도 하고 통일의 대상이기도 해서 접합점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중국에는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평화통일교육은 평화통일지향적이어야 한다. 분단은 남북 모두의 고통이지만 평화통일은 남북 모두의 상생과 번영이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이 땅에서 북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남의 자본과 기술력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우리 민족이 5천년 역사에서 크게 웅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통일 코리아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치고 국위를 선양하는 자랑스런 우리 청소년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소명의식을 갖고 평화통일교육을 할 것이다.

“제발 좀 만남시다!!”

박영락 목사(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드라마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신사의 품격이란 꽃미남 외모나 세련된 옷차림, 멋진 자동차 같은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품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요즘 남과 북 사이에서는 ‘격’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랜 단절의 세월을 깨고 실로 오랜만에 남과 북이 함께 만나 민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단지 ‘격’ 때문에 무산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남과 북의 만남 자체가 갖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회담에서 다룰 내용보다 ‘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다. 아마도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십분 반영된 처사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는 전혀 틀린 주장이다. 물론 형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용을 잘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에 그쳐야지 내용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형식만 앞세워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는 법이다. “격”을 앞세우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너 몇 살이야? 민중 까” 하는 유치한 다툼의 모습이 떠오른다. 처음에는 분명 특정 사안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시작된 논쟁인데 어느 순간 논쟁의 주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오직 나이 만이 싸움의 이유가 되어 버리는 이 유치찬란한 다툼을 7천만 겨레를 볼모로 벌여야 되겠는가? 남북 관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득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속담이 떠오른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이다. 남북 대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화해와 평화,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던가? 모든 과정은 화해와 평화 통일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활용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더 이상 ‘격’을 따지면서 주도권 싸움에 정신 팔려 있을 때가 아니다. 개성공단이 존재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모색하고 실현시켜 가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인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자신의 실리를 따지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은 형식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이거야 말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 회담 일시와 장소 형식 등을 우리 정부에 일임하면서 대화를 제안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먼저 통 큰 양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만남에 나서야 한다. 총리급 회담이 됐든 낮은 수위의 실무회담이 됐든 우리가 먼저 제안하자. 최소한의 형식 속에 최대한의 내용을 담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 ‘격’을 앞세운 유치한 대결정책일랑 내려놓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7천만 겨레의 빛나는 내일을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가자. 하루 속히 남북의 만남이 재개되어서 개성공단이 남북 노동자의 땀방울로 활기를 되찾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남과 북이 어우러지며 반세기가 넘게 헤어져 살아왔던 이산가족들이 감격의 상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가슴 벅찬 소식이 들려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한다.

신뢰 프로세스? 불신 프로세스?

양훈도(6.15 경기본부 교육위원장)

열릴 듯 열릴 듯 하던 남북 대화국면이 격 문제로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지나갔다. 남과 북 당국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바쁘다. 80년대까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었던 이른바 위장평화공세 시대에도 남과 북은 그랬다. 마음에도 없는 제안을 하고, 받은 쪽은 어떻게든 꼬투리부터 잡고, 서로 상대방이 생억지를 부린다고 비난하고, 잠시 잠잠해졌다가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고... 퇴행이다.

물론 달라진 점도 있다. 당시 북쪽 인민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국민도 정부에서 하는 일에 언감생심 토를 달 수 없었다. 의아해도, 궁금해도 그냥 삼켜야 했다. 그나마 지금은 장삼이사가 이렇게 발언이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고급정보는 없으나 꿈속의 일을 복기나 한 번 해 보자.

북쪽은 왜 대화를 제의 했을까? 1) 북미대화로 바로 넘어가기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던져봤다. 2) 개성공단 수입이 끊겨 경제적으로 절실해져서. 3) 이제는 정말 평화체제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1)이 정답처럼 보인다. 3)이라고 믿는 남쪽 국민은 소수일 듯하다.

그런데, 일이 틀어져 버리기 전까지 남쪽 정부는 2)라고 본 게 아닐까 싶다. 아쉬운 건 너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식에 맞춰라! 만약 1)이라고 확신했다면, 아예 대화 제의를 일축했어야 앞뒤가 맞는다. 1)인줄 뻔히 알았는데도 그 소동을 벌인 거라면, 국민들을 감쪽같이 기만한 셈이다. 부언하자면 1)인줄 몰랐다고 해도, 상대에 대해 무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3)이라고 보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현 정부의 대북관에 부합하는 견해는 아니다. 남쪽 정부도 정말 평화체제를 원했다면 실무회담에 더 유연하게 임했어야 한다.

우리 같은 보통사람은 북의 진짜 의중이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렵다. 정부의 추측대로 2)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통일부 차관 대표 통지에 발끈한 북의 태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쉽기는 하지만 자존심을 버리지는 않겠다? 좋다. 그러면 통일부는 북이 발끈하리라는 걸 알았나, 몰랐나?

어느 쪽이라도 문제가 있다. 북이 발끈해서 대화 자체를 무산시킬 걸 알았다면, 남이 일부러 파토를 유도했다는 얘기가 된다. 몰랐다면 통일부는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분단 68년은 차치하고 69년 통일부(국토통일원) 설립부터만 따져도 40여년이 흐를 동안 상대의 체제, 사고방식, 대화 태도에 대해 뭘 연구한 건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쓴 책 『정세현의 통일토크』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1977년 통일원에 들어가 보니, 우리말 정식 명칭은 국토통일원인데, 영문명은 National Unification Board여서 매우 의아했다고 한다. 게다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해마다 통일원 연두순시를 할 때면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국론통일이었던다. 국문명은 국토통일이요, 영문명은 민족통일이고, 해야 하는 일은 국론통일이니, 통일원에 통일 개념의 통일조차 없었다고나 할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다. 그 무렵에 대화 상대방과 격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차례나 정상회담이 열리고, 수십차례 총리회담, 장관급 회담 경험이 쌓여 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레 격을 운운하는 건 유치하다. 그 점에서 북도 마찬가지다. 북이 진정으로 대화할 마음이었다면 북 역시 실무회담에서 더 유연한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

대화의 판을 새로 짜고야 말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은 알겠다. 그러나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는 법이고, 역사엔 비약이 없는 법이다. 상대방이 엄존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담의 역사가 엄연한데 이를 새로 고침 하겠다는 건 오만이고, 오기다. 축적된 경험을 통째로 내다버리겠다는 발상이 측은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나저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제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더구나 힘겹게 쌓았던 알량한 신뢰마저 털어먹은 형국이다. 이대로 라면 위장평화가 남북관계를 규율하던 한반도 불신의 시대로 완벽하게 퇴행해 가는 수밖에 없을 터이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살펴보자.

한상진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요즘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골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0대의 전투기를 구입하는데 현재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의 F-35와 보잉사의 F-15SE 그리고 EADS의 유로파이터가 경쟁을 하고 있으며 1차 가격입찰이 끝난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7월 중순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 기종이 최종 결정된다는 것이다.

근데 요것이 아주 그것도 아주 많이 수상하고 구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미 록히드마틴사의 F-35로 내정을 하고 모든 입찰과 시험의 방식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먼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이야기 하는 대로 몇 십 조원을 들여서 전투기를 들여와야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그 다음 저들이 치는 고스톱 판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국방부는 F-4, 5 등이 노후화 되어 항공전력에 공백이 있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한은 공군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 남한은 3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전투기는 75%이상이 2세대 이하로 1950~60년대에 만들어진 구형 전투기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한 전투임무기 수량 비교>

구분	북한		한국	
4세대	Mig-29A/S	35	F-15K	39 (2012년 현재 60)
	Su-25	34	KF-16	164
3세대	Mig-23ML	46	F-4E	70
	Mig-21Bis	30		
2세대	Mig-21B/F	160	F-5E/F	174
	Mig-19S	100		
	Su-7	18		
1세대	Mig-17	107		
	IL-28	80		
계		610		447

The Military Balance 2010

이러한 사실은 이미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다. 인용되는 자료처럼 말이다. “북한 전투기 중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MIG 29 30여 대 뿐입니다. 하지만 MIG-29는 F-15K에 비하여 표적 탐색 능력, 무장운용능력, 전천후 정밀공격능력, 전자전 능력에서 모든 부분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MIG 29와 KF-16과의 비교에서도 공대공 교전능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죠. (홍석표, <북한 무기체계 양적, 질적 평가>, 한국국방안보포럼, 2010. 10.)”

또한 국방부가 1999년 발간한 장병정신교육자료집에서 “북한 공군은 MIG-23/29, SU-25 등 신형 전투기 보유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70년대 이전의 구형 모델인데다 레이더와 항법장치 등 항공 전자 부분의 성능도 크게 뒤져 전천후 항공작전에 문제점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장사정포 등 북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된 170mm 자주포 100여문, 240mm 방사포 140여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은 K-9 자주포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를 비롯한 최전방 부대에 700여대를 집중 배치했다. MLRS 역시 2006년 말 기준으로 60여문이 실전 배치되었으며 추가도입을 통해 현재는 60여문보다 많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몇 주 전 문화방송의 “진짜 사나이”라는 방송을 통해 K-9 자주포의 위력을 푹푹히 확인했다. 그 프로그램이 보여주기를 목적으로 한 거짓 방송이 아니라면 말이다.)

K-9 자주포는 전차에 버금가는 기동력, 자동사격통제장치, 우수한 방호력을 갖추고 있어 수동사격체제와 기동력과 방호력이 미흡한 북한의 170mm 자주포에 비하여 질적으로 우수하다. 또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MLRS 역시 북의 240mm 방사포에 비하여 기동력이 우수하며 화력 범위(축구장 세 개 정도 타격)도 넓다. 더욱이 MLRS는 재장전 시간이 3분인데 반하여 북의 240mm 방사포는 22분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남측은 K-9 자주포와 MLRS를 포함하여 북 장사정포 대응 무기만 10여종을 확보하고 있어 이미 양적이나 질적으로 북의 장사정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는 과잉전력 이라는 말이다.

<남한과 미군의 북한 장사정포 타격 무기>

	병커버스터	정밀 유도폭탄	무 유도폭탄
공군	합동정밀직격탄(JDAM) 레이저유도폭탄(GBU-24)	중거리 GPS유도탄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	
육군	차기 전술유도무기	차기다련장 유도탄	K-9 자주포 MLRS, 차기다련장
미군		엑스칼리버	

(〈내일신문〉, 2012. 10. 4, ‘북 장사정포 타격 무기만 10종 “과잉전력”’)

국방부의 세 번째 거짓말은 북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 능동적 억제전략의 구현을 위한 타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방어를 넘어선 공격개념으로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 갈 위험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4월 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능동적 억제전략에 대하여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적극적 억제전략에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확실할 때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능동적 억제전략에도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가고 여기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개념도 포함된다.”고 밝혔는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능동적 억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통해 북한의 핵을 선제타격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을 선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모한 불장난이 아닐 수 없다. 압도적 억제능력을 갖추면 우리의 피해

를 최소화하고 상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의 유혹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것이고 이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사업이 과잉전력을 유발하고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위기를 높이고 국고의 낭비를 유발하여 민중들의 삶과 복지가 더욱 곤궁해 진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사업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의 F-35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만들었다.

1.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F-35를 도입하기 위한 요식행위...(절차상의 문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사실상 F-35 도입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지난 해 방위사업청은 “만약 시험평가를 거부하면 평가점수를 대폭 깎고 그 기종은 탈락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관계자는 “방사청이 최근 공개된 자리에서 비행 테스트를 하지 않은 F-35에 대하여 감점요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비행테스트를 거부한 록히드 마틴의 F-35에 대해 감점을 주지 않기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심판이 경기 중에 한편이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꾸는 꼴이다.

최근에는 방위사업청이 미 정부가 F-35A 스텔스기 60대 분의 추정가를 낮게 써낸다 해도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낮은 가격(추정가)을 매겨 입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금이 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록히드 마틴의 서류 미비로 인한 재입찰 사태, 실제 비행 평가가 아닌 시뮬레이터 평가 도입, 록히드마틴 부사장의 F-35 구매 약속 발언, 송영선 전 의원의 F-35도입 한미정상 합의 폭로 등 추진 과정 내내 F-35 내정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다.

2. 결함투성이 F-35 (성능상 문제)

F-35는 엔진의 핵심부품인 터빈 날개 균열,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어 결함 등 수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온이 섭씨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F-35의 시동을 거는데 필수적인 배터리 충전제어기, BCCU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훈련 비행이 두 차례 취소됐으며 시험평가 담당관은 현재까지 "전투기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결함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리비용으로 17억 달러(약 1조 8천52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대당 개발비용이 8천180만 달러에서 1억6천200만 달러로 2배 폭증하였다.

F-35가 자랑하고 있는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공대공과 폭격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목적기', 스텔스 성능, 무장창 추가 등을 모두 좇다 보니 기체가 터무니없이 무거워져 항력이 커졌다”며 “가상 비행 테스트 결과 F-35는 공대공 모드에서 F-16의 기동성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나타냈으며, 폭격 임무 상황에서는 작전 반경과 적재중량에서 F-15에 뒤지는 전투기임이 드러났다. 저고도 근접 육상 부대 지원 작전에서는 A-10기에도 못 미치는 한심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한계를 비판했다.

3.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용유지비 (가격 및 운용유지비 문제)

또한 개발비용의 폭증으로 인하여 기체가격의 상승이 우려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미국 방위 산업정책 이슈와 국방예산'에 따르면 F-35의 한 대 가격은 약 2천139억 원이 소요된다. 록히드마틴사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전투기 가격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경우 2016년 도입하는 F-35 4대의 가격이 당초 계약한 금액을 초과해 미국과 같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의 경우 유지 관리비용이 구입비의 3배 이상 소요되며 정비시간 역시 기존 전투기에 비해 많이 소요되어 실제로 작전에 사용되는 가동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미 국방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2011년 F-35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1대당 연간 운용유지비가 520만 달러(약 60억원)가 소요된다고 평가했다.

4. 가격 올려도 속수무책, 품질보증도 없는 F-35 (FMS 가격문제)

차기전투기(FX)의 후보기종 중 록히드마틴의 F-35A는 FMS 계약 방식을 제시했다. '현행 국외 무기 체계 구매사업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국방부 내부분서에 따르면 "미 FMS 관련 규범(SAMM)은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F-35의 경우 품질보증을 받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 FMS(Foreign Military Sale)

직구매 방법의 한 형태로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 AECA) 등 관련법규에 의거 미국의 우방국, 동맹국 정부간 또는 국제기구간의 계약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 및 차관금액으로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유상(有償) 판매하는 방법을 말하며 지정구매, 총괄구매 및 군수보급지원협정으로 구분된다.

1. 지정구매(指定購買, Defined Order Case : DO)

FMS 구매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대상품목, 수량, 예상가격 및 인도 예정일 등 모든 조건을 청약 및 수락서(LOA)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이다. 지정구매 계약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자는 무기체계, 주요장비, 탄약, 유류, 동시조달수리부속(CSP), 시험장비 등이며 교육훈련이나 공사장비 등도 지정판매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

2. 총괄구매(總括購買, Blanket Order Case : BO)

FMS 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구매대상품목에 대하여 총금액 및 구매기간만을 명시하여 계약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청구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이다. 수리부속, 발간물, 지원장비, 수정작업 및 교육 보조재료 등은 총괄구매로 구입할 수 있으며, 총괄구매로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은 비밀물자, 폭발물, 유류, 완성장비, 무기체계, 목재, 의무물자를 제외한 비표준품목, 도태품목 및 기술자료 등이다.

3. 군수보급지원협정(군수보급지원협정 : Cooperative Logistics Supply Arrangements : CLSSA)

미 국방성 군수지원체제를 통하여 외국에 군수지원을 제공해 주는 국제협동 군수지원체제로서 미국과 해당 우방국간이 군별 쌍무협정에 의해 평시 지속적인 군수지원계획이 일환으로 시

행되고 있는 대외판매의 형태이다. 이 협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현행 미군의 표준준비나 무기체계의 수리부속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미간의 협정을 통하여 먼저 지원해당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연간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출처 : 군수용어집, 공군군수사령부

또한 현행 미 FMS에 따라 기종을 선정하면 ‘상한가 없는 개산(概算) 계약’¹⁾으로 계약하게 돼 F-35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이 가격을 올려도 이를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록히드마틴이 F-35 첫 인도 이후 2차 인도분부터 전투기 가격을 임의로 올려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진행이 늦춰질 때 물리는 지체상금의 부과가 불가능하고 선급환급보증금의 예치도 요구할 수가 없다.

이에 지난 9월 국방부가 F-X 3차 사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FMS 거래 방식의 변경 여부를 질의했지만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F-X 협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FMS 표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특별한 합의(note)는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F-35을 도입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방식으로 인해 계약 후 가격상승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속수무책이며 품질보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번 차세대전투기사업이 어떤 의미와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바로 한미동맹을 앞세워 추진되는 한국의 무기도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1. “한미동맹은 무기시장에서 남한이 계속 우리(미국)의 최고 고객이 되는 것을 보장”

미국은 한미동맹과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내세워 미국산 무기도입을 강요해왔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 미 대사관의 비밀외교문건을 보면 “남한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산 무기구매 고객이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은 우리가 남한 정부에 미국산 무기 시스템을 사도록 설득하는 데서 핵심적인 판매 포인트다. 동맹의 지속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기시장에서 남한군이 계속 우리의 최고 고객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산 무기도입을 염두에 둔 “상호 운용이 가능한 방어능력 강화”에 합의했다.

한국은 이미 수입무기의 74%를 미국에게 도입하고 있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역시 한미동맹을 앞세워 자국의 욕심을 채우려는 미국의 의도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2.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경제위기 미국엔 단비?

2001년도부터 시작된 F-35 전투기 개발 사업은 개발비만 3910억 달러(430조원)가 소요되는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F-35 기체 결함이 계속 발생하고 개발비용이 폭증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악평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F-35 개발 사업을 포기 할 수 없다. 이미 12년 동안 쏟아 부은 개발비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예민한 문제가 있다. F-35는 미국 47개 주에 공장과 연구시설 부품 조달업체가 분산 배치되어 있고 이 업체들과 연관된 일자리만 12만 7천개이다. 그래서 F-35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 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경제위기에 처한 미국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위기에 처한 F-35사업에 있어 8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엄청난 기회이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F-35가 한국에 팔린다면 미국은 F-35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개발비 총당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F-35의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평가했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 역시 '2013년 F-35 보고서'를 통해 "동맹국이 전혀 구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미 정부의 획득비용은 6% 상승한다"며 동맹국에 F-35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동맹을 앞세워 자신이 처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미국과 미 군수업체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미 서술한 것처럼 공군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전력 역시 충분한 조건에서 또 다시 고가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더욱이 한미동맹에 몰입하여 결함투성이 미국의 F-35 도입을 추진한다면 대미 군사적 종속이 심화될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비 예산은 8조3천억 원이다. 여기에 수 십 조 원의 운용유지비가 소요된다. 저명한 군사 컨설팅 업체 제인스(IHS Jane's) 에 따르면 F-35의 경우 비행시간당 최고 3천5백 만 원, F-15SE는 3천2백 만 원, 유로파이터의 경우 2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20년 이상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운용유지비만 30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이야기이다.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고 관리 운용하는데 나라의 공간을 온통 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이 돈을 복지비로 돌리기 위해서라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단해야 한다.

촛불이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이종섭(6.15경기본부)

NLL 논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불법 공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등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보다는 폭염주의보 발동, 불쾌지수 상승을 보도하는 날씨처럼 뜨겁게만 타오르고 있다.

어느 쪽 하나 양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정치공세와 방어, 맞불 전술로 불꽃 하나에 폭발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현상보다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도 누가 누구를 몇 대 때렸고, 누가 많이 맞아서 다쳤느냐에 주목하는 것은 지극히 싸움을 구경하는 수준이다. 왜 싸우게 되었고,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과 같다. 쏟아지는 여러 정보들을 잘 살펴보면 국정원의 무리수가 눈에 띈다. 마치 조직의 생사를 건 듯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정상들의 대화를 공개하는가 하면 정치 개입 수준을 넘어 제2의 3.15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예 대선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동마저 서슴지 않는다. 국정원의 책임으로 주목되는 분위기를 NLL을 이용해 희석시켜보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무리수였다는 판단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다. 오히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더 주목하게 되고, 전쟁과 긴장의 바다를 평화로 덮어야 한다는 인식을 다시금 강조한 효과도 보인다. 2007년 남북의 두 정상간의 대화가 오히려 모든 국민을 학습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은 국정원의 예상 밖의 일인 듯 싶다.

그 질긴 생명줄을 유지하고자 범민련을 비롯한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비롯해 여전히 '종북'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있지만 서울대 학생들의 촛불로 시작되어 학생들의 진보적 행동에 대해 감동을 받아 이어진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각종 단체, SNS를 통한 개인들의 시국선언도 점차 확대되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이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된 듯 하다. 그동안 35%내외의 보수와 촛불에 맞서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강했다.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올해 내내 불거진 전쟁국면(올해 초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가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쟁 중이다)에서 불안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하고, 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은 '정전협정'도 올해 7월 27일로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평화의 상을 찾아야 할 때이다.

국론분열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전의 소중한 국가 간의 약속을 존중하고 지키면 되는 것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해결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자 소중한 것이고, 도덕, 사회, 정치경제 교과서에 '밑줄 짝' 하며 외워야 하는(요즘에도 그렇게 배우는지는 모르겠다) 글자만이 아니다.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찌 평화를 바라겠는가.

지금의 촛불은 올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이다.

결코 쉽게 진행되지 않을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데도 촛불이 힘이 될 것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는데도 촛불이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에도 촛불은 그 빛과 열기를 더할 것이다.

예전처럼 불통의 상징인 '명박산성'으로는 안 된다. 절대 민초들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민초들의 촛불이 활활 타올라 모든 것을 환히 밝혀갈 것이다.

대한민국, 누가 주인인가?

법상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너무나 많이 들어 보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2013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하고, 상식적이며,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권력을 선택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돈 많은 재벌이든, 벼슬이 높으신 분이든, 하늘만 보고 사는 서민이든, 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든, 누구든지 간에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 즉, 권력을 선택하는 선거에서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같다. 이런 연유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권력은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정도전은 『경국대전』에서 인간사회에는 물욕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권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병행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통치자가 필요하며, 그래서 백성은 세금을 내고 통치자를 부양하는 것이다. 이때 통치자는 백성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만큼 마땅히 백성에게 보답해야 한다.(조유식 『정도전을 위한변명』)고 말한다. 이것은 전제군주제에서의 임금과 관료들이 지녀야 하는 통치이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랄 만 사실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도 공권력이라고 부르는 국가는 인간사회의 다툼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억압과 폭력을 수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을 통제하지만 전체의 입장에서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유지한다. 이것은 법과 제도가 가지는 폭력의 순기능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통제기능이 형평성을 잃고 특정집단에 쏠리는 것을 독제라고 한다.

민주주의라는 정치방식을 채택한 대한민국은 지난 60여 년간 단 한 번도 독제를 벗어난 적이 없다. 물론 어느 사회나 국가에서도 지배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습되어오는 지배세력이 양심과 정의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통장잔고 29만원으로 호의호식하며 20년을 넘게 살아오는 전직대통령의 사례이다. 이것은 정치세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로 국민의 기본의무인 군대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NLL을 들먹이고, 국가안보와 반공에 거품을 물며 떠들어댄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29만원을 비호하는 세력과 국민의 기본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에게 의무만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NLL문제 역시 대한민국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착각하는 집단들이 대한민국의 영구지배를 꿈꾸며 벌이고 있는 한심한 작태이다. 이들이 민족통일을 지배논리로 이용하는 동안은 국가주인인 국민들 역시 그들의 전략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 주인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반공과 종북’ 등의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공권력이 나와 가족을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뺨 없어 출세 못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탄보다는 박탈당한 국가주인으로서의 권리회복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본다.

남북 대화의 성공을 ‘기도’한다

박길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여섯 차례를 끝으로 사망선고를 앞둔 시점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동이 중단됐던 판문점 연락 채널을 살려 내는 등 급박한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반드시 정상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국면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희망’ 위로, 왠지 불길한 기운이 더 짙게 깔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류길재 장관의 성명서의 논조 자체가 그러한 상황 판단의 뚜렷한 근거를 제공한다. ‘최후통첩’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한 것은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든 개성공단을 살려보겠다는 충정의 발로여야 마땅하나, 웬일인지 이번 통첩은 ‘중대 결심’ 운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 되도 그만”이라는 느낌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나만 그런가 하여 주변에 물어 보니, 물어보나 마나, 혀를 끝끝 차고 만다. 남한 당국은 현재의 북한 사정이 이러한 식의 ‘압박’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보다 더’ 절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기회에 북측의 ‘양보’를 얻어내기로 작정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래서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니, 어쩌면, 이 일은 애초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실무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결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든다. 상황에 등 떠밀려 남과 북 모두 대화의 장에 나서기는 했으나,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간다는 점을 과시하고는 싶지만, 여전히 지난 연말에서 올 초 사이에 주고받았던 온갖 불신의 행위들의 연장선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재의 남북 간 경색 국면이라는 말이다.

지난 몇 개월 사이 남과 북 사이에 진행된 지리한 기싸움 외에 북-중 간, 북-미 간, 그리고 한미일 사이에 진행된 일련의 회담과 대화 국면에서 보면, 남과 북 사이의 경색 국면의 해소와 통일을 향한 행보는 결국 우리(남북)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앞장서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추진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이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주들의 애가 타는 것만 제외하면 오히려 ‘통일’과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인내의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미 수많은 해결책과 방향 제시가 이루어졌고, 이번 국면의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이를 모르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연 실무회담에 나서는 분들이 얼마나 실무적인 전권을 위임받아서 협상에 나서는지, 그들이 과연 ‘정상화’와 ‘남북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지를 알고 싶다. 그리고 제발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없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의 남북 대화(단절) 정국을 주도하는 실세들이 고수하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 있는 남북대화’ 정책이, 결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의 연장선이거나 ‘고약화’라는 생각만 짊어질 뿐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직 참모총장 출신 정치인은 한 종편 정치 대담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개성공단은 10년 동안 결국 폐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현재의 ‘대북 압박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지난 정부에 이은 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들이 어떠한 인식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는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옛그제가 정전 60주년이었다. 정전협정을 종전협정(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는 찻잔 속의 태풍처럼 맴돌 뿐이다.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통일을 바랄 자격이 있을까 싶다.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분단 부채의 복리이자에 또 하나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 우리 옛말에 ‘반수기양(反受其殃)’이라는 말이 있다. 민족의 미래를 볼모로 벌이는 치킨 게임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만다는 뜻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남북 대화의正道(正道) 위로 올라서기를 기도(祈禱)한다.

7.27과 8.15 사이에서

노세극(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지난 7월 27일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로서 3년여의 전쟁을 끝내고 정전체제로 돌입한 날이다. 그리고 만 60년이 흘렀다. 정전이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는 의미이지 완전한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불안정한 평화가 자그마치 60년이나 되었다.

이 기이한 세계 역사상 최장의 정전협정 체제를 언제까지 붙들고 갈 것인가? 모두 공멸하는 전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면 불안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순리임에도 왜 안 되는 것일까? 이는 이러한 정전 체제를 통해 이익을 얻고 즐기는 세력이 정치적 힘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애호 세력이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정전체제는 남북 간에 소모적인 대결과 긴장을 부추기고 있지만 핵심은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관계이다.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통해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어 종전체제를 가져오기 위해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미국의 거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지금 경제개발과 건설이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인데 국가 역량의 많은 부분이 국방부문에 치중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그럴 여유가 없었다. 정전체제가 종식되어야 국방에 쏟은 자원을 경제 건설과 인민 복지에 투여할 수 있을 텐데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보유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군사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체제 수호라는 측면에서 선택한 전략에 다름이 아니다. 북한은 시종일관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자신을 위협해 왔으므로 어쩔 수 없이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장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미국이나 중국의 핵은 용인되고 유독 북한 핵은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강대국의 논리이다.

북한 핵을 없애려면 그에 상응한 북한체제의 생존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을 가질 명분도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즉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간단한 상식이 왜 안 통하는 것일까?

미국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실현되면 주한 미군이 주둔할 명분도 없어지고 한국에 무기를 팔아먹기도 힘들게 된다. 미국의 세계전략 일환으로 북한을 적성국가로 계속 남겨두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적당한 긴장과 분쟁이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점인 것이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준동하는 한국 내 정치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목전의 정치적 이해에 집착한 나머지 남북관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기를 일삼는다. 작금의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NLL 소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전협정은 육상에서는 경계선을 그었지만 해상에는 설정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한 미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에 의해 해군과 공군이 북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말 그대로 북방한계선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해 오지 않았다. 공식적인 국경선도 아니고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히 일어난 수역이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은 NLL을 대체하는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창설하자는 것이 회담의 기본 취지였거늘 이를 거두절미하여 NLL을 포기하고 북한에 굴종적으로 퍼주기를 하였다는 식으로 왜곡하였다. 이들은 남북의 상생발전 보다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긴장과 대결국면을 부추겨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선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입장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과 연대 협력하여 민족번영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세력을 중복으로 몰아붙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행태가 친미를 넘어서서 종미라는데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

다.

7.27 정전협정은 53년 체제를 성립하게 하였다. 고착화된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세력들이 완강하게 자리 잡아 이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과제로 되고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8.15를 맞이하게 된다.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가져왔던 8.15는 분단과 전쟁으로 치달았고 완고한 분단체제를 성립시켰다. 그럼에도 8.15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53년 정전체제를 극복하는 길이다. 68년 전 815 당시의 감격과 함성으로 돌아간다면 53년 분단체제의 성벽도 눈 녹듯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815에서는 평화체제로 성큼 다가가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한다.

전쟁도 맘대로 평화도 맘대로 하는 미합중국

문영희(6.15경기본부 홍보위원)

한반도 휴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은 지난 7.27 휴전협정 60주년에도 ‘한반도 평화’에 관하여는 한 마디 언급 없이 지나쳐버렸다. 달리 표현하면 ‘깡무시’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남북 전쟁에 대해 "무승부가 아니라 한국의 승리"라고 엉뚱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워싱턴DC 내 남북전쟁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휴전협정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5천만 명의 한국인들이 지금 자유와 번영 속에 살고 있다. 이는 한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데 따른 유업"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에서는 어떤 전쟁도 잊히지 않는다."며 "한국을 지키는 미국의 약속과 헌신은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전이란 잠시 총을 내려놓는다는 뜻인데 그는 휴전을 종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전쟁사를 다시 써야할 만큼 과격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전쟁은 ‘한국의 승리’도 ‘미국의 승리’도 분명히 아니다. 엄청난 희생만 내고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다. 실패한 전쟁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에 무기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이 전쟁을 설마 잊겠는가. 그러나 휴전협정문에는 양당사국은 “협정 체결 3개월 안으로 주둔군을 철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중국군은 북한 땅에서 약속대로 철군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작은 ‘악마’ 하나를 찾아냈다. 북한이다. 이 악마는 씨먹을 데가 무척 많다.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바꾸자면 “악마가 있는데...”라며 깔아뭉갠다. 평화협정에는 ‘북한 핵’으로 맞선다. 미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을 철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악마를 놔두고는 못 간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이런 말조차 꺼내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휴전협정 당사자도 아니다. 그러니 휴전협정에 관한 한 말할 자격이 없다. 공산 측 당사국인 북한과 중국은 끈질기게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들은 척 만척한다.

미국은 1년에도 몇 차례씩 남한지역에서 한국군과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2013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한군 격멸과 북한정권 제거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과 한·미연합 ‘국지도발대비계획’,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5029에 따른 대북 공격연습”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전쟁을 참 좋아하는 나라이다. 전쟁을 하면 사람이 죽는다. 역사상 미국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에 관해 전문가의 글을 보자. “1776년 독립을 선언한 미국은 8년에 걸친 독립전쟁(1775~1783년)에서 미군 5만여 명과 영국군 5만여 명을 합해 모두 10만 명 웃도는 희생자를 냈다. 이어 19세기 말까지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영토 확장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디언 원주민 300여만 명을 학살했다. 그 사이 남북전쟁(1861~1865년)이라는 내전에서는 60만 명 웃도는 희생자를 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독립전쟁 때 프랑스로부터 빌린 전비를 갚지 않겠다고 우기며 도미니카에 해병대를 파견

해 프랑스 전함을 나포했던 이른바 준전쟁(Quasi-War 1798~1800년)을 시작으로 온 세상에 군대를 파견해 공격적인 국제정치의 발판을 깔았다(정문태 국제분쟁전문기자. 한겨레 8월 11일).”

한·미관계란 가깝고도 먼 사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은인이 분명하나 안보는 너무 일방적이다. 미국이 ‘작은 악마’이야기를 꺼내면 남측은 아무 말도 못한다. 미국과의 안보동맹론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자세히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일본이 가도멸명(假道滅明:명나라를 치려하니 길을 내달라)로 조선을 괴롭혔듯이 미국이 이 악마를 칠 테니 우리더러 앞장서라고 할 날이 언젠가는 올지 모른다. 8.15해방 무렵 “미국은 믿지 말라”던 유행어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미국은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을, 평화가 필요하면 평화를 주는 이중성을 가진 제국이다. 국민이 이를 잘 모르고 있으니 그것이 걱정이다.

33년 만에 나타난 내란 음모죄

안영욱(6.15경기본부 홍보위원)

8월 26일 오전 6시 30분경 내란 예비 음모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등 10여명의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되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에게 이 사건이 크게 다가온 것은 죄목이 내란 예비음모죄라는 것 때문이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 내란죄로 구속된 이후 사라졌던 무시무시한 말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어느 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 조직원들에게 “유사 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른 일간지는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무시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정말 저들이 저렇게 준비를 했을까하는 의구심과 지금 국정원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저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몰려온다.

지금 이 어느 세상인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일반 민간인인 130명이 모여서 총기를 들고 경기남부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을 파괴하면 우리나라가 전복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을까하는 의문을 갖는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졌는지 의아스럽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내란을 일으킨다고 우리나라의 군경이 제압할 수 없을까? 고도의 특수 훈련을 받은 실미도의 사람들도 청와대로 가지도 못 했고 고도의 침투 훈련을 받은 북한의 김신조 일당도 이 나라를 전복시키지 못 했는데 말이다.

오히려 현재 국정원이 처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무리한 행동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국정원은 작년 대선에서 불법으로 정치권에 개입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고 자신의 불리함을 감추기 위해 꼼수를 써서 NLL대화록을 무단 공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대해 국민들은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자는 개혁의 목소리에 위기를 느낀 국정원이 국내 파트는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발표를 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예전에 국정원이 발표한 수 많은 간첩단 사건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국정원이 조작하였다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가 엄청난 민사, 형사 손해 배상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08년 탈북자 원정화 간첩 사건도, 2010년 인천의 왕재산 사건도 국정원이 처음에 발표한 것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에 와서 무죄로 판명되었다.

이번 사건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역대 국정원이 했던 모습을 봐서는 진실함을 구하기 어렵게 느껴진다. 국정원이 자신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꼼수를 쓰지 않았기를 희망한다. 국정원이 투명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거듭 바란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수산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불교사상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업”에 대한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불교도들이 닦아야 할 실천적 교설로 자리 잡고 있다. “업”이란 ‘의지적 작용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그 결과인 “보”는 ‘필연적 반응으로 받게 되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따라서 불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 어느 것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다. —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부른다. — 그리고 그 원인은 다른 곳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업’을 설명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의지적 행위’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내가 짓는 모든 행위는 나의 운명 때문도, 사주팔자 때문도, 어느 절대자의 뜻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에 있어서도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이 ‘모든 것은 내 탓이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의 ‘업’을 이야기 할 때, 지나간 과거를 ‘업’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러기에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선인선과 악인악과”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이치와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그렇게만 보이지 않아 혼란스럽다.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궁핍함을 면하지 못하고 고통 받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런 현실을 절대자나 운명 또는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불교의 입장은 단호히 이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우리 개인의 자유의지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내 주위의 모든 현상이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간다면 나란 존재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가 되겠는가? 이러한 현실의 모순도 ‘삼세양종인과’라는 가르침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한 마디로 업을 짓고 받는 시기는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 49퍼센트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탄생한 정부의 수장은 더욱 겸손해야 함에도 소통과는 답을 쌓고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들어난 사실만으로 국가의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서 또 다른 독재의 모습을 떠 올리는 것은 나만의 허상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민주시민으로 헌법에 위배됨 없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암울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라는 자괴감에 대한 답은 바로 불교의 업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이 딱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더 열심히 세상사를 공유했다라면 아마도 결과는 달리 나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나태함과 부족함 때문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되어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정권을 유지하게 되어 아쉬울 것이 없게 된 그래서 더욱 오만해진 정부와 여당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불교의 업에 대한 설명으로 풀어 본다면 만일 그들이 심각한 과오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게 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임기를 마치든 마치기 전이든 국민들의 외면과 원성을 받게 되고 더욱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대해 본다. 이해할 수 없는 60퍼센트 국민들의 지지에 안주하여 자만하지 말고 기득권과 가진 자들이 아닌 힘들어 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부족해서 딱 그만큼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지 파악해서 더 이상 답답하고 늘 제자리인 야권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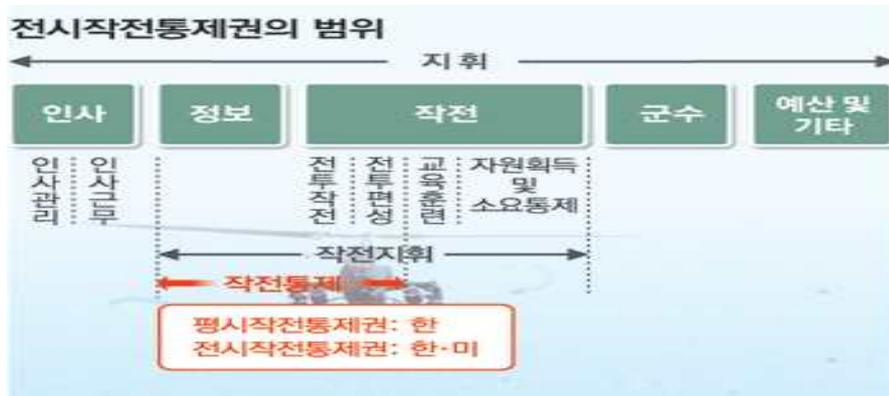
참기 힘들었던 무더위도 물러나고 아침저녁 제법 선선한 공기를 호흡하며 세상도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제대로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되찾읍시다!!!

한상진(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현 대통령인 박근혜는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확실하게 지키기”를 위한 새누리당의 실천 공약으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국민 앞에 천명했지만 당선이 되자마자 미국에 건너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연기를 요청하며 스스로 헌법이 부여한 군통수권자의 지위를 버리고 있습니다. 환수연기의 이유는 지난 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개발과 이에 따른 안보지형의 변화 그리고 우리군의 준비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궤변까지 들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 환수연기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논리에 대한 반박과 더불어 전작권 환수의 절박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실까요?



작전통제권은 군대의 여러 권한 중 지휘관이 전투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등의 핵심적 권한입니다. 그러하기에 국방부에서 조차

"한국군은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실로 44년 만에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독자적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국방부, 국방일보, 1994년 12월 1일)

"작전통제는 특정임무나 과업 수행을 위해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여 작전통제권은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작전지휘의 핵심적 권한"(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 T/F팀, 2006)

"현재의 상태(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태)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국군통수권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이다"(국방부, 전시 작전통제권 T/F, 2006)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작전통제권을 외국군대에 내 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작전통제권을 통째로 외국군대에 내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들은 자국의 일부 전력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미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이양합니다.

리처드 스틸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것을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the most remarkable concession of sovereignty in the entire world)"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핵 위협을 핑계로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하려는 것은 영원히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작권환수 결정은 북의 1차 핵실험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한미당국은 북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전작권 환수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북의 3차 핵실험을 명분으로 전작권 환수를 미려고 합니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한다면서 킬체인과 MD구축에만 향후 5년간 9조6천 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다면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쓰고도 재연기를 시도하는 것은 이를 영원히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기민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마틴 템프시 미 합참의장, 2013. 7. 18 미 상원군사위 재인준 청문회)

"한국은 전작권을 이전받을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2013. 7)

전작권 환수 재연기 협의는 한미당국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음모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저작권 환수를 재연기하려는 이유는 친미사대주의세력을 결집시켜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함으로써 중국 포위전략을 강화하고 한국의 양보(미군주둔비부담금, 미국산 무기도입 등)를 얻어내려는 심산입니다.

현재 환수하려는 작전통제권 환수계획도 실제로는 빈껍데기뿐입니다...

한미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현대전의 핵심인 공군작전통제권, 북의 대량살상무기제거 작전과 대규모 강습상륙작전을 미군사령관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종 군사협조기구를 두어 전 영역에서 강력한 연합지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당연히 해체해야 할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를 유지하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작권 환수계획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전작권 환수"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이므로 이를 환수하는 것은 주권과 의지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재연기 논의를 중단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자신의 공약에 따라 전작권을 제대로 환수해야 합니다.

남북 신뢰의 물꼬

양훈도(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외래교수)

경기도가 올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쓰려고 했던 기금은 67억 원 규모다. 지난해보다 7억 원 늘려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64억여 원이 고스란히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 올해 집행된 예산은 고작 4%(2억8천만 원)이다. 출발도 못 해보고 동결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렇다 한다.

올해 편성된 예산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큰 한숨이 나온다. 결핵퇴치 사업 등 의료지원 사업 14억 원, 말라리아 공동방제 10억 원이 한 푼도 쓰이지 못했다. 긴급 식량지원 8억 원,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6억 원도 묶였다. 개성 등 농축산협력 사업 10억 원, 개풍양묘장 지원 5억 원, 산림병충해 방제 5억 원이 못 나갔다. 개성한옥 보존사업 등 사회문화교류(5억 원)와 학술교류(5억 원)도 올 스톱됐다. 이 정도 사업도 제 맘대로 못하면서 ‘자치’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해야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니 이런 억지가 어디 또 있을까. 자잘한 신뢰가 쌓이고 쌓이면서 돌아가는 게 ‘신뢰 프로세스’ 아닌가? 물이 먼저 흘러야 돌아갈 수 있는 물레방아를, 먼저 가동이 되면 물 흘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격이다. 애들도 웃겠다.

통일 전 동서독이 교류협력 사업을 어떻게 벌여왔는가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다.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가 1969년 동방정책을 시작한 이래 정권이 바뀌어도 교류협력은 20년간 꾸준히 지속되었다. 인적 왕래는 최대 700만 명까지 늘어났고, 서독의 대 동독 지원은 연평균 32억 달러 규모였다. 사민당 집권 13년이 지나 기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어도 그 기조가 바뀐 적이 없다. 결국 7년 후 기민당 정권 하에서 독일 통일이 이뤄졌다.

독일이라고 해서 ‘퍼주기’ 논쟁이 없었던 건 아니다. 사민당 시절 기민당은 시시때때로 ‘퍼주기’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후 기민당은 태도를 바꾸어 대 동독 지원과 교류협력 기조를 유지했다. 그게 서독과 독일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의 동방정책을 한반도의 상황과 수평 비교 할 수는 없다. 동방정책은 동서유럽의 긴장 완화를 결과한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맥락 속에서 지속될 수 있었다. 냉전 해체 시도조차 번번이 좌절된 한반도와는 달랐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외부환경을 탓하고 앉아 있는 건 어리석다.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 흐름을 틀 물꼬를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렵사리 확보한 남북교류 루트를 이명박 정부가 막아버린 건 실책 중의 실책이다. 설령 남북 당국 간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아래로부터의 교류협력은 지속되도록 배려했어야 했다. 동서독도 80년대 들어서는 자치단체(도시) 간의 협력을 권장했다. 동서독 도시들은 자매결연 형식으로 왕래하고 협력의 범위를 넓혀갔다. 이러한 지방협력은 통일 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런 차원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듯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분단 한반도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좀 더 자율적인 비전과 추진력을 갖추지 못한 점도 아쉽다. 김문수 지사 재임기간 동안 경기도는 해마다 60억 원 안팎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세웠지만 평균 30%선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남북관계에서 중앙정부의 방침과 정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기는 어렵다 해도 이미 확보한 ‘지렛대’를 유지하려는 노력만은 지속했어야 하지 않을까.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던 지난 8월 경기도는 ‘남북협력 3+1 신전략’이라는 걸 내놓았다. 3대 핵심 사업은 인도적 지원·사회문화 교류·호혜적 사업을 중앙정부와의 협의 하에 진행하되, 남남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9월 하순엔 제주도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된 현 시점에서 경기도가 스스로 내세운 '3+1 신전략'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수혜를 입은 북한 영유아에게 긴급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인도적 사업은 그래도 벌여 나갈까? 소나무 공동방제와 같은 호혜적 사업이라도 해 보려고 노력할까? 이번에 틀렸으니 다음 도지사를 기다려 봐야 하나?

내 주먹맛을 볼래!

범상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말과 글은 ‘나’라는 주관이 ‘객관’이라는 대상을 인식하여, 그것을 상대에게 전하는 여러 가지 표현방식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언어는 그 민족 또는 그 사회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전달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라 하겠다.

우리말은 형용사가 매우 발달해 있다. 이것은 다른 민족에 비해 감정이 풍부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의미를 의미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말의 “푸르둥둥” “누리끼리” 등과 같은 형용사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꾸밈말들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인류최초로 손가락을 사용한 민족이다. 그래서 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서양의 찬 음식에 비해 뜨거운 국물음식이 발달되었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고는 “시원하다”고 표현한다. 이처럼 말속에는 그 사회의 문화양식이 들어 있다.

예를 들면 영어와 중국어 등은 “나는 간다 학교에”라고 말하는 반면, 인도어와 우리말은 “나는 학교에 간다”는 어순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표현방식만 보아도 중국과 영어는 개아(個我)중심의 사회에서 발달한 언어이고, 인도와 한국은 나, 너, 우리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제목처럼 “내 주먹맛을 볼래”와 같은 표현방식은 우리말이 가지는 특성중 하나로서 우리민족의 독특한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내 주먹맛을 볼래”는 내가 너를 주먹으로 때려 줄 테니 맞아보겠냐는 것이다. 본래 주먹으로 때리고 맞는 것은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을 떠나서 ‘맛’과 ‘보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의도를 더욱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무엇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것은 ‘보는 것’이며,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맛’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전하기 위해 우리민족은 ‘맛’과 ‘보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눈 맛이 좋다(시원하다)’ ‘손맛을 보았다’ ‘소리를 들어 본다’ ‘감을 잡아 본다’ ‘매운 맛을 보았다’ ‘뜨거운 맛을 보다’ 등등

이처럼 우리민족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맛’과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직접체험 한 명백한 사실만을 상대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불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종교와는 달리 “진리를 보라”고 가르친다. 이때의 본다는 것은 ‘알다’ 즉, 깨달음을 말한다. 마치 구구단을 깨친 아이가 셈을 잘하듯이……

위와 같은 언어사용을 전제로 보면 우리민족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조선의 성리학을 기점으로 유일신을 신봉하는 서양문물이 근대화를 주도했고, 반공이데올로기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 흑백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우리민족은 수 천 년을 이어온 듣고→보고(확인)→아는(깨닫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들은 대로 믿고, 묻고 따지기 보다는 어느 한편의 일원이 되는 것을 유일한 생존전략으로 삼

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대통령선거에서의 국정원 댓글사건, 앞뒤가 맞지 않는 NLL논쟁에 이은 대통령기록물사건 등등이 일어나도 다수의 국민들은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려하기 보다는 종합편성채널 등이 쏟아내는 왜곡된 정보를 무조건 믿고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쥐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죽, 살려고 쥐약을 먹는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듣고→믿고→편가르기에 빠져든 결과 부자와 권력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다수의 서민들은 가난으로 내몰리면서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집단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민족의 본래 모습인 듣고→보고(확인하고)→아는(깨닫는) 삶의 방식을 회복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역사의 봄날을 기다리며

이중섭(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유신 부활’만큼 현재를 적절히 표현하는 말은 없다. 사람들이 자기 느낌을 표현한 것인데,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는 안병익 전 카톨릭대 교수(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표현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역사가 과거로 재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국정원을 비롯해 점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비롯해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아님 통보, 오류와 왜곡으로 기획된 특정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등장 등으로 정권 초기부터 사회적인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공약(公約)은 지키지 않아서 ‘공약(空約)’이라는 허탈한 웃음에, 시시각각 보도되는 연예인들의 열애설이 사람들의 관심도 자극하는 동시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왜 이 때 이런 사건이 보도될까, 뭔가 있는거 아니야?”라는 의구심마저 키우는 현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더욱 어지럽게 만든다.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일하다 욕설이 담긴 전화통화를 듣고 “너무 힘들고 배고팠다……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렇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한 노동자의 유서에서 1970년의 전태일이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는 징후가 역력히 보인다.

새로운 386의 등장

언론에 기고한 한 교사는 지금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을 ‘올드 보이들의 집단 컴백홈’이라 표현한다. 원래 386세대는 ‘30대,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생’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1930년대생, 80대(또는 이를 바라보고), 1960년대에 활동했던 원로급 인사들을 의미하는 ‘신(新) 386’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는 뜻이다. 역사의 길고 긴 흐름에서 보면 분명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진리인데, 前 정권에 이어 지금까지도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흐름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비상식적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은 결국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 번 차지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이어가려는 욕심 속에 국민은 안중에 없기 마련이다. 소통과 화합보다 단결과 독선, 독단이 계속되면 그 뒤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우려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다시 ‘새마을운동을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에게 70년대를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되물게 한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 1,500여 명의 교원을 해직시키고, 교원노조를 해산한 전례를 다시 지금의 대통령이 전교조에 대해 ‘노조아님 통보’를 내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측근과의 정치가 아닌 국민과의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온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국민의 역량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1987년 6월 항쟁 전의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결코 순탄하게 연착륙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노 학자의 얘기를 최고 권력자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산 하나

노세극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거리에는 낙엽이 뒹굴고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낮게 깔리고
늦가을 정취 물씬 풍기며
겨울로 가는 길목을 재촉하는
2013년 11월 수유리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고
일신의 안일을 돌보지 않고
온 몸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조상을 둔 탓에
어엿이 독립된 나라가 되었음에도
대접은 고사하고
태어날 때부터 고생고생하며
살아온 신산한 세월

고생도 모자라 탄압까지 받은
모진 세월이 이제나 끝나나 했던만
세상의 시계 바늘은 거꾸로 돌아가는지
친일파들의 후손이 여전히 판을 치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몇몇하게
살 수 있는 날은 멀기만 하다.

수유리 뒷골목 선술집에서
승봉 형님과 대낮부터 소주를 마시며
지나온 60여년 고난의 세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
세상에 대한 분노와 한탄이 뒤섞여
통음을 하며 같이 통곡을 하였다.

4.19의 정기어린 수유리에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지

정신을 차리며 살자 하고 문 밖을 나오는데

바깥 날씨는 급기야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며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다.

우산 하나 밖에 없어

형님이 내게

가을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며 우산을 건네 주신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는 전철을 타고 가면 괜찮으니

형님이 집까지 걸어가는데 우산이 없으면 안 되지요

형님과 옥신각신

형님이 우산을 휩 던지고 손사래 치며

종종 걸음으로 가버리신다

멀찌감치 형님이 가는 모습을 보노라니

옷깃을 여미며 비를 맞으며 가는데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내린다.

에이 못된 형님아 감기 걸려라

전철을 타고 오는 내내

우산을 바라보며

형님 생각에 목이 메었다.

희망 만들기

박길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이달 들어 지난 7일에는 불교 천태종이 개성 영통사에서 “영통사 낙성 8주년 및 대각국사 의천 912주기 열반 다례제 남북 합동법회”를 개최한 바 있고, 12일에는 조계종 스님과 신도들은 금강산 신계사 낙성 6주년 기념 합동법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10일부터 13일까지는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평화3000'이 방북하여, 평양 장충성당 설립 25주년 미사를 봉헌하였다. 또 15일에는 금강산 관광 15주년을 맞아 현대아산 관계자 20명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외로 여야가 한목소리로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서서 이목을 끈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국회의원들은 5.24조치 해제를 비롯한 대북교류 정책의 전면적인 개신을 촉구한 외에도, 한나라당 의원들도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5.24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남북 교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개성공단 국제화나 중국·러시아와의 북한 경제특구 합작투자 등에 대해서는 5.24 조치의 예외 규정을 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기업인들의 모임인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금강산 관광 15주년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간절한 어조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호소하였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공동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운동본부’도 지난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관광의 의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관광 재개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흐름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5.24조치를 무력화하거나 고수 원칙을 파기하는 셈이 될 수밖에 없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남북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흐름과 맞물리는 것이기도 하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3각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최근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5.24조치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대다수 남북경협사업 관계자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5.24조치를 해제하거나 또는 이를 우회한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경협 재개를 요청하고 있어 당국으로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에 화답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최근 필자는 천도교의 남북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승인한 상태이고, 북측도 행사 개최에 동의하고 있다. 이제 실무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만 완료되면, 남과 북의 천도교인들뿐만 아니라 몇몇 동학 관련 민간단체 실무자들도 함께 북한 지역을 방문하여 종교(천도교) 공동행사와 더불어, 내년의 동학혁명 120주년에 즈음한 남북 공동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종교-기업(경제)에 이어 지자체와 시민단체(동학 관련)까지 교류 협력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또한 현 박근혜 정부도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추진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관련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승인하고 대북 지원 재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칙”과 “다만” 사이에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 한 방울’ 만큼의 무게 이동만 일어나면, 대북지원은 붓물처럼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현실만 놓고 보면, 요즘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그러나 씬 호흡 한 번하고 돌

이켜보면, 지금의 ‘남북 교류 한파’ 국면도 통일 과정의 일부다. 지금도 우리는 통일을 향해 가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슬로우 통일’ ‘힐링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남북 상황을 조망해 보면 확실히 그러하다. 남과 북의 통일은 독일의 경우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일방의 몰락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믿는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비를 뿌려 통일의 땅을 굳건히 다지며 “통일의 봄”을 향해 가고 있다. ‘느리게 나아감’으로써 더욱 지혜롭고 행복한 통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 하니 눈보라가 친다고 우울해 하거나 까마득해하지 말고, 오히려 겨울‘ 풍경 나름의 멋을 즐기며 나아가는 건 어떨까. 희망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문영희(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최근 <못난 조선> (문소영 지음, 나남출판사 발행)이란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는 이 글의 제목은 이 책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문소영은 서울신문사에서 언론인 활동을 하면서 조선사 관련 저서를 내는 등 역사학도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책의 ‘들어가는 말’에서 “16~18세기 조선의 못난 부분, 우물 안 개구리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다. 그 시기의 조선은 왜 위축되고 정체되었는지, 일본은 왜 중국 못지않게 도약하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21세기에 똑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다.

조선사를 펼쳐보면 16세기 들어 조선왕조사상 최초로 문신쿠데타가 발생한다. 즉 1506년 중종반정이 발생,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등극한다. 이때로부터 100여년 후인 1623년에도 다시 쿠데타가 발생, 광해왕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인조반정이 발생한다. 이 시기 조선의 집권세력은 민생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쇄국정책과 당파싸움만 계속한 것이다. 반면, 일본은 서양문물을 수용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근대화의 길로 매진한다.

인조반정에 성공한 서인세력들이 바로 향후 200여 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노론의 원조들이다. 이들이 집권하는 동안, 조선은 마침내 일제의 협박에 무릎을 꿇고 나라를 넘겨주었다. 중국의 원-명-청국을 종주국으로 받들며 한반도의 주류로 우뚝 선 이들 사대주의자는 오늘까지도 멍멍거리며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

역사학자 이덕일은 “우리 한국사에서 식민사관이 주류로 자리 잡은 이유는 인조반정 당시 정권을 잡은 노론파가 훗날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파로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조반정의 논리는 ‘명나라 황제를 배신한 광해군을 축출하는 것은 명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이었다, 이때부터 극도의 사대주의가 뿌리를 내렸고 이것이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을 만들게 된 배경이다.”라고 말한다.

친일파들은 일제 강점기 때 ‘역동적 순응력(박명림)’을 발휘,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된다. 일제는 이들을 조선지배의 기본 동력으로 육성하였는데, 일제 말기에는 3000여 개의 친일단체에 250여 만 명의 친일파가 가담했다고 한다. 총인구 25백여 만 명 가운데 약 10%에 이르는 숫자이다. 이들은 미국이 한반도에 상륙하자 다시 재빨리 친미파로 변신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박 창신 신부 발언으로 친미세력이 흥분하고 있다. 그는 시국미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정선거에서 제일 써먹기 좋은 것이 종북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하는 시대의 증추를 오늘날 종북물리로 봤어요. (...) 한 나라에는 항상 좌와 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6.25전쟁이나 북한이 있기 때문에 좌가 적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좌라고 하면 그냥 깜짝 놀라고, 좌라고 하면 따돌리고 죽여도 좋고, 감옥에 가둬도 좋고.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물론 박 신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민감한 문제, 즉 국론이 갈리고 있는 'NLL'과 ‘천안함’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두 문제 다 미국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것이다. <못난 조선>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내면 친북파니 종북파니, 더 심하게는 ‘빨갱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한다. 문제는 보수적인 정부가 정권유지 차원에서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다른 국민들을 몰아칠 때 친북파니 하면서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다. (...) 그러나 묻고 싶다. 북한과 친하게 지내면 정말로 안 되나? 현재 사회주의 종주국인 중국이나 과거 식민지배로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일본하고도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내세워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판인데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 신부 발언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독재자와 닮은꼴이다. 이명박이 반쯤 허물어놓은 민주주의를 그녀가 이제 완전히 짓밟아버리려 하고 있다. 이런 형국에서는 통일운동이 제대로 먹혀들기 어렵다. 백척간두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이 통일운동보다 먼저라는 생각이다. 통일운동을 ‘중복’으로 매도하는 친미파들은 통일의 장애가 될 뿐이다. 이들의 저의를 의심하고 분노하고 행동할 때이다. 그래야 다시 후세에 못난 조상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진실을 바로 알고, 진실을 얘기하자

수산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초기불교시대에 석가모니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실천수행 덕목으로 ‘팔정도’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정견(正見)’이다. 이것은 ‘바른 시야’ 혹은 ‘바른 견해’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접하게 될 때 올바르게 판단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는 증상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간 문체에 집착하는 태도이다. 불교에서는 바른 시야로 제대로 보고 마음을 닦아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견해가 늘 옳바르다고 착각하는 경우다. 미루어 짐작해 보면 히틀러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었기에 그런 엄청난 살육을 자행하였고,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외손자로 우리에게 너무도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본의 아베총리도 스스로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무식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했던가.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야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세이지만,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인연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자신만을 위해 남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생각하며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 진실에 이를 수 없다네.”라는 경전의 말씀처럼 어느 것이 진실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급혀가면서 권력과 세속에 아부하여 출세하려 하거나, 자신의 알팍한 지식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속이는 자들이 너무도 판을 치고 있는 서글픈 세상이다. 시작부터 잘못되어 엄청난 경제적, 환경적 재앙으로 다가 온 4대강 사업을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책임지려 하는 자 없고,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중국과 일본의 행태를 지적하는 자가 없는 이상한 세상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른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에게 치졸한 인터넷 댓글이나 퍼 나르는 임무를 떠 안겼던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에 의해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생활정보 불법 취득 및 공개라는 범죄가 이루어졌음에도 개인적 일탈로 넘겨보려는 뻔뻔한 사람들이 참으로 한심하다. 무엇보다 언론을 틀어잡고 뻔한 뉴스만 방송으로 내보내게 만들어 도대체 밀양에선 무슨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모르도록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밉다.

어제는 북한 권력실세 숙청과 그 측근의 공개처형이라는 속보가 온통 뉴스를 뒤덮었다. 그것을 보면서 예전에 몇 번의 죽음을 치렀던 김일성주석이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지 싶다. 물론 북한의 체제가 불안해지면 우리에게도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뉴스 속보가 너무 과장되고 호들갑스럽게 보였던 것은, 아마도 절묘한 시점에서 간첩이 잡히는 등의, 선행학습 효과가 아니었지 싶다.

어렵지 않은 짧은 문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 온 『법구경』에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은 그를 따른다. 수레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이...”이라는 말씀이 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선하고 올바른 동기로 이루어질 때 만족스런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쁜 의도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거짓과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지난 군사독재정권의 말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불통과 협박으로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정권의 앞으로의 시간이 너무도 측은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안녕하지 않습니다.

안영욱(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지난 10일 고려대 한 학생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에 대답하는 대자보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처음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대자보가 고등학생, 교수, 국회의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는 SNS와 인터넷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도 전혀 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 국정원 대선개입 조사를 못하게 검찰총장을 내리 찍고 국정원 댓글 담당 검사가 아무 이유 없이 교체되는 나라,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종북으로 몰아 딱지를 붙이는 나라, 4대강 등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가 드러났음에도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나라, 선거 공약을 파기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이 없는 양극화의 나라, 자살률 1위인 나라, 1천6백 만 명의 노동자 중 850만 명이 비정규직인 비정규직 천국의 나라, 돈이 없어서 늦게 결혼하는 나라, 양육비 걱정으로 하나만 낳는 나라, 아파도 병원 가기 어려운 나라. 반대 의견을 보도하지 않는 방송국만 있는 나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안녕하지 않다. 국민의 한 사람인 나도 안녕하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상식보다는 비상식이, 이성보다는 비이성이, 다양성보다는 획일성만이 존재하는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다양한 의견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 속에서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를 이야기 하면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게 종북의 딱지를 붙여 흑백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다양성이 실종되고 있다. 일베 회원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찢거나 태우는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려 자랑한다. “안녕하지 못 합니다”라는 어느 고등학생의 대자보는 교장의 경찰 신고에 의해 찢겨져 나갔다. 토론문화는 실종되고 흑백논리를 강요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안녕하지 못하다.

대한민국이 안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이성적인 나라, 다양성이 공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안에는 흑백논리, 이분법적 사고가 만연해 있다. 흑백논리, 이분법적 사고는 분단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전쟁과 분단은 적아만 있고 제 3자는 없게 하였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선택을 해야 했다. 분단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방은 남북의 통일이다. 그리고 첫출발은 남북의 화해 협력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분명 남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남한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일자리를 늘려 줄 것이며 상식이 통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녕한 나라가 될 것이다.